

2012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따뜻한 세상을 향한 발걸음



통계청
STATISTICS KOREA



2012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따뜻한 세상을
향한 발걸음

통계청
STATISTICS KOREA



따뜻한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면서...

통계청은 인구, 고용, 물가 등 나라살림에 필요한 57종의 각종 경제·사회통계를 직접 만들 뿐만 아니라, 국가 통계활동을 기획·조정·분석하며 각종 통계정보를 처리, 관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경제·사회현상이 복잡해지면서 통계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질 좋은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정확하고 진솔한 응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인가구와 맞벌이 가구, 1인 가구의 증가와 사업체 비밀보호, 개인의 사생활 노출 기피 등에 따른 면접곤란, 조사비협조 등으로 통계조사환경은 갈수록 더 어렵기만 합니다.

어려운 조사환경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을 위해, 응답자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자 오늘도 시린 손을 비비며 현장을 누비고 있는 직원들께 존경과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편하지만 기꺼이 또는 어렵게 조사에 응해 주신 응답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을 위해 우리 통계조사 직원들은 응답자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 울고 웃으며 내일도 오늘처럼 포기하지 않고 조사대상처의 문을 간절한 소망으로 두드릴 것입니다.

통계조사현장의 땀과 눈물이 어린 현장조사 체험 사례집을 통해 오늘 이 순간에도 깊은 사명감으로 현장을 뛰는 우리 통계인들의 어려움과 응답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조사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을 전해 주신 현장조사 직원들과 진솔하게 응답해 주며 마음으로 직원을 품어주신 응답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12월

통계청장 우 기 종

- 010 | **대상·이혜진** | 남편이 실종됐어요....
- 021 | **금상·홍수민** | 나는야 긍정에너지이저
- 032 | **은상·김경란** | 나는야 ~ 통계청 코디네이터!
- 042 | **동상·정윤심** | 노부부와 연탄
- 048 | **동상·양정자** | 사람이 사람에게! (효심은 호랑이도 춤추게 한다!)
- 056 | **장려·김춘동** | 자네는 통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066 | **장려·장순원** | Pig Woman
- 072 | **장려·조미영** | 통계는 부메랑
- 079 | **장려·김은경** | 설득은 현장조사의 종합예술
- 092 | **장려·임승주** | 힐링을 주는 농업조사
- 101 | **장려·최종범** | 가축 전수조사 방법을 족구게임으로
- 106 | **장려·이선주** | 농업통계 현장속으로 ~ 아자! 아자!! 아자!!
[“구실이 아닌 방법을 찾아서...”]
- 114 | **장려·형영석** | 농부 아들 통계조사관과 고집불통 영감님
- 118 | **장려·장은옥** |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 123 | **장려·강선숙** | 마음으로 전하는 통계
- 128 | **장려·권영주** | 영혼(靈魂)으로 통계를 사랑하다...
- 134 | **장려·김보영** | 설득은 진행형이다.
- 141 | **장려·최미향** | 달힌 마음엔 편지만이 약입니다.
- 146 | **장려·이민자** | 오늘만 허락 된 일
- 160 | **장려·이현주** | 무서워도 너~ 무 무서웠던 할머니





- 164 | **김봉순** | 왕초보
- 169 | **최은나** | 거부하지 않고 응답해 주고 싶은 통계조사를 만들고 싶어요!
- 179 | **고희숙** | 언닌, 진돗개 스파 ~ 일야!
- 183 | **박기수** | 통계조사는 응답자와의 지속적인 만남으로부터
- 190 | **양은희** |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 194 | **백은옥** | 나의 발자취... 『기억의 습작』



2012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응답자 부문

- 200 | **특별상** · **한양호** | 내 사업에 솔직해 지자!
- 204 | **특별상** · **김광남** | 주먹구구 와 전자가계부
- 208 | **특별상** · **이형님** | "가계부를 쓰면서 얻게 된 행복"
- 211 | **특별상** · **김춘희** | 나를 배우는 시간
- 215 | **특별상** · **장기갑** | 통계청이 깨닫게 해 준 가계부!! 재테크의 시작



2012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조사직원 부문

남편이 실종됐어요.....

대상

이혜진 | 경인지방통계청 구리사무소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가? 하기 싫은 일들을 억지로 하며 살아가는가?

힘든 현장조사를 하면서 나름 성취감도 느끼지만, 지독한 불응가구들이 하나 둘 증가할 때면 나 자신에게 몇 번씩 되묻곤 한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는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오갈 때가 아마도 연동표본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가구부문조사를 담당하는 현장직원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숙명의 과제인 연동표본.....

2012년 5월 나에게도 연동표본의 어두운 그림자가 또다시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조사구가 하남시였던 나는 하남시에서 만큼은 홈그라운드라는 익숙함 때문에, 괜한 자신감이 불타 올라 연동표본에 대해서 별로 걱정되는 바도 없었다.

그러나, 항상 단독주택 조사구만 담당이라며 조사구에 다녀오면 흠, 먼지 때

문에 신발과 차 등이 아주 엉망진창이라고 투덜대던 나에게 운명의 신은 홈그라운드인 정반대편인 남양주시의 아주 깨끗한 새 아파트 한 채와 맞바꾸어 주었다.

“사실... 아파트조사구보단 단독주택이 훨씬 더 좋은데..... 아파트는 문을 안 열어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괜히 투덜거렸나....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은 복잡해진다. 생각에도 한계가 있는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짜느라 설 새가 없다.

몇 년 만에 아파트조사구를 담당하게 되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몇 년째 대문도 거의 없는 단독주택만 조사를 했던 터라, 들어서면서 얼굴에 미소함박 머금고 인사부터 꾸벅하며 활짝 웃음을 지어보이면 어떻게든 어머님들이 넘어오셨는데, 아파트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관리사무소... 경비... 부녀회장... 반장..... 어느 분부터 만나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다. 누가 통계밥 먹는 통계인 아니랄까...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면서 자나 깨나 핑크색, 노란색 가계부만 생각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온몸이 나른해지던 푸르른 오월!

미소 한 모금의 사진이 담겨있는 파란 줄의 공무원증을 당당히 목에 걸고, 단정한 옷차림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표본조사구인 아파트를 바라본다. 그러나 나를 포근히 감싸주기는커녕 현대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해, 현관 출입까지 세콤이라는 장치로 나를 가로막고 통제를 하고 있다. 가슴이 답답하다.

관리사무소의 소장님을 만나고, 반장님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세콤관리실까지 방문하여 출입증 하나를 기꺼이 손에 넣었다. 공무원증과 방문출입증 두 가지 신분증을 목에 걸고 나니, 괜히 뿌듯하니 뭘가가 다 해결된 것만 같다. 출입증 하나로 자신감이 충만해진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보네”

맘속에선 벌써 가계부 10권이 다 설득되고 있는 중이었다.

대부분의 가구들이 처음부터 유쾌하게 맞이해 주길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말도 안되는 소리로 치부되어진 지도 오래다. 한 가구 한 가구가 모두 간, 쓸개...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내 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중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의 가슴 한 편을 아련히 만드는 가구가 있으니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의미,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준 303호. 이제 그 어느 가구보다 특별한 존재가 되어 준 303호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한다.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다이어트를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1층부터 걸어서 계단을 올라간다. 3층이다.....

3층 밖에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쁜 숨을 고르며 제발 사람이 없길 기도하면서 벨을 누른다. 언제부터인가 사람 상대하는 일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터 전입가구를 방문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말도 안되는 바람을 잠깐씩 해보기도 한다.

‘불응가구들로부터 워낙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거야...’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나 혼자 스스로를 위안하며 방어벽을 쳐놓지만, 연동표본 설득에 와서도 사람 없길 바라고 있는 내 자신이 좀 어이가 없어 살짝 쓴웃음이 나온다.

두근거리는 심장소리에 나도 놀랄 지경이다. 차분하게 한 번 미소 짓는 연습을 해보고 벨을 눌러보았다. 분명 사람 인기척이 있는데 나오질 않는다.

“딩동 덩동” 또 눌러보아도 대답은 없고 인기척만 난다.

아무리, 아무도 없길 살짝 바랐지만, 사람소리가 저렇게 들리는데 뒤돌아갈 순 없는 일이었다. “똑똑똑.. 계세요?? 저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인사장과 안내문을 며칠 전 우편함에 넣어드렸던 통계청 직원이에요~ 인사장 보셨죠?”

잠깐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계세요??"

그러고도 한참이 지난 후 어찌할 바를 몰라 현관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나의 모습이 거실 화상화면으로 보였는지 갑자기 문이 열렸다.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당황한 듯 얼른 나와 급하게 말씀을 하신다.

“이집에 큰일이 있어 절대 오면 안돼요. 나는 이집에 잠깐 다니러 왔는데 집주인은 밤10시나 넘어서 들어와요. 그리고 이 집 주인이 그런 거 대답해줄 형편이 안돼요. 집에 난리가 났거든... 난리가.....”

상황정리가 되질 않았다. 큰일이 뭔지, 난리가 뭔지, 말씀해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알고 조사를 하고 안 하고 한단 말인가? 할머니는 내가 뭔가를 여쭙보려고 한다는 걸 눈치 채시곤 큰일이 뭔지 묻지도 말라고 하시며 재빨리 문을 닫아버리신다. ‘아... 또 시작되는구나.....’ 아파트의 장벽... 저렇게 문을 ‘쾅’닫고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아 메모지를 한 장 꺼내어 방문했으나 그냥 돌아간다는 간단한 메모와 내일 방문하겠다는 글도 남기고 뒤돌아선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큰 일이 뭘까? 사고가 났나? 누가 다치신건가? 교통사고인가?’ 나 혼자 추측하고 결론 내리고 ‘내일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내일을 기약했다.

다음날 오후 다시 방문을 했다. 그래도 어제 한번 와본 집이라고 두 번째 벨을 누를 때는 담담하다.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반항기 많아 보이는 남자 고등학생이 나온다. ‘아, 아들이구나....’ 한 반항 할 것처럼 아주 인상이 거칠어 보인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쥔 무섭다던데.... 어떡하지.... 무섭네....’

그래도 문을 열어준 게 어디던가. 다시 한 번 웃으며 아들에게 말을 건네 본다. “아~아드님이세요? 어제 할머니님은 뵈었는데, 어머님은 저녁 늦게 오시나

요?”

“8시쯤 오세요!!” “황.....”

아들과의 만남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또다시 쪼그리고 앉아 메모지를 꺼내어 “오늘은 아드님만 뵙고 갑니다. 내일은 꼭 뵈었으면 좋겠어요. 저녁 7시쯤 찾아뵐게요....내일 뵙겠습니다~”라는 메모를 남겨놓곤 발길을 돌렸다.

다음 날. 저녁 9시까지 기다려도 불이 켜지지 않는다. 국가의 녹을 먹고 열심히 일하는 현장공무원이기도 하지만, 내 집에도 엄마만을 기다리는 초등학교 두 아이들이 있다. “띠리띠리링~ 엄마!! 도대체 언제 올 거야!!! 응?? 빨리오세요...네??” “응, 그래 엄마야.....엄마가 지금 출장중이라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엄마 금방 갈게.... 미안해....”통화를 하고도 언제 올거냐고 휴대폰이 몸살 날 정도로 울려대는 통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발길을 돌렸다.

목요일이다. 금요일까진 면접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무실에서도 먼 거리의 지역이라 마음이 조금해졌다. 목요일도 허탕이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 금요일에 못 만나면 정말 큰일이다. 가계부는 둘째 치고 경제활동인구조사 기본사항만큼이라도 조사를 꼭 해야만 한다.

저녁 8시쯤, 흰색 야구모자를 꼭 눌러쓰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시는 분이 있었다. 처음 보는 분이었다. 직감적으로 그분인 것 같았다. 무시할 수 없는 통계 밥의 예감은 언제나 백발백중이다. 아니나 다를까 몇 분 후 303호에 불이 켜졌다. 심호흡을 하고 3층으로 올라갔다. 벨을 눌러보았으나, 할머니와 아들보다 더 차갑고 쌀쌀맞은 한마디가 들려왔다.“안해요.” 그리고 또다시 들려오는 차갑디 차가운 한마디.....“다신 이곳에 오지 말아요!”

더 이상 문을 두들기고 벨을 누르고 할 상황이 아니었다. 뒤로 물러서야 할 시점에서선 과감히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현장조사의 룰’인 것이다.

드디어 주말까지 오고 말았다. ‘어제는 뭔가 아주 기분 언짢은 일이 있으셨을

거야.... 그래, 누가 온들 반가웠겠어.... 주말이니까 기분이 좋아지셨을지도 몰라....' 우울했던 마음을 다독이면서, 주말캠핑족인 우리 가족들의 베이스 캠핑도 내가 부득부득 우겨 조사구를 지나야만 갈 수 있는 곳으로 정해버렸다.

혹시나 주말엔 마음을 여실지도 모른다는 나만의 희망에 사로잡혀 토요일 오전 가는 길에 들르고, 일요일 오후 돌아오는 길에도 들렀다. 남편은 가족이 함께하는 주말까지 꼭 이래야 하겠냐며 온갖 투정을 다 부린다. 303호는 주말 내내 비어 있었나 보다. 붙여놓은 메모도 그대로였다. 이틀 동안 가시방석 같았는데 결국 헛수고였다.

어린이 동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 세상~~~'이 아닌, 나에게는 더 이상 푸르지 않은 5월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시간은 정말 견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지나갔다. 5월은 물론 6월도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불응가구와 조사직원간의 대립구도로 평행선을 그리며, 주중이며 주말이며 한결같은 반응으로 팽팽히 이어져 갔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 그러나, 난 303호를 꼭 만나야만 했다. 5월, 6월 그렇게도 고생고생 하였건만, 두 달 동안 난 303호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낸 것이 없었다. 할머니와 아들. 그리고 엄마 세 식구만 살고 있다는 것 외에는... 통계밥 18년의 주체할 수 없는 오기가 솟아올랐다.

7월 마지막 주 여전히 더운 어느 날, 밤마다 운동을 하는 것 같다는 옆집아주머니의 말씀을 듣고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의 스포츠 양말을 준비하여 굳게 맘을 먹고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기다렸다. 9시쯤 되자, 야구모자와 운동복차림의 그 분 모습이 보였다. 걱정 반 근심 반, 설레임 반 호기심 반...

그동안 만나주지도 않으시면서 조사는 무조건 불응을 하셨지만 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처음부터 아는 본인냥 그렇게 활짝 웃으며 얼른 뛰어갔다. "차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몇 달 동안 저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

었습니다...오늘은 정말 더우셨죠? 전 아직까지 숨도 잘 못 쉴 것 같아요~~”
약간의 동정심을 먼저 사기 위해 나의 노력도와 고생 정도부터 털어놓았다.
모기에 물리고 더위에 지친 나를 보시더니, 조금은 안쓰럽고 측은해 보였는지
잠깐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고 말씀하셨다.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더운 날씨가 사람을 돕기도 하네...’

갑자기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아주 신기한 기분이 들었다. 아주머니를 따라
들어간 집은 여느 평범한 가정과 다를 바가 없었다. 시원한 물을 내어주셔서
감사히 한잔 들이키고, 천천히 아주머니와 대화를 시작했다.

할머님은 그때 잠깐 집을 봐주실 일이 있으셔서 다니러 오신 거며 지금은 아
들과 둘이 있다고 하셨다. 그런데 남편 이야기는 전혀 입 밖에도 내지 않으셨
다. 이상했다.

‘남편은 어디 계실까.... 정말 교통사고일까... 아니면 사별일까, 이혼일까....
어떻게 여쭙봐야 기분이 상하지 않으실까....’ 머릿속에서 한참을 생각하고 있
는데 아주머니가 먼저 말씀을 하셨다.

“저도 이십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였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공무에 협조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주말엔 거의 집
에 없고 주중엔 서울로 출퇴근하느라 너무 지쳐요... 그것보다 집에 아주 중요
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이해해줘요....”

직장이 온전면허시험장인데 작년에 민영화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더 협
조해 주어야 하는 것도 안다고 하셨다. 하지만, 다른것 보다 난 할머님께서도
절대 묻지 말라시던 그 중요한 일이 도대체 뭔지 너무나 궁금했다. 분명히 남
편과의 일이 있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인지 여쭙봐도 되냐고 조심스레 묻는 나
에게 아주머니는 물만 마시며 한참을 망설이셨다. 십 여분이 지나고, 아주머
니께서 나지막이 말씀을 하신다.

“남편이... 실종됐어요.....”

“저녁식사를 하고 잠깐 바람 쐬러 다녀오겠다며 휴리닝 차림으로 나갔는데...그게 지금 3년째예요....”

나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런 경우는 TV드라마 속에서만 본 장면이었지, 실제 내 앞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실종신고도 했고, 주말에는 아직도 찾아다니고 있어요. 주중에도 출퇴근이 멀어 힘들기도 하지만 애 아빠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협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그 와중에 도저히 난 가계부를 써달라는 말을 결코, 절대 할 수가 없었다.

대충 마무리를 하고 너무 늦어서 죄송했다며 서둘러 정리하고 303호를 나왔다. 한참동안 멍했다.

만약 내가 저 분이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을까.... 직장을 제대로 다니고는 있을까.... 저분의 심정은 지금 어떠실까.... 말로 표현하기도 힘드시겠지.... 집에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는데 가계부는 웬 가계부.....

맘속에 커다랗고 무거운 짐만 가득 실고 조사구를 빠져나왔다.

그 날 이후 난 어떻게 하면 아주머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에 생각을 더했다. 한 달에 한번 찾아뵙는 면접조사를 위한 방문이 아닌 수시로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같은 여자로서, 같은 엄마로서 무조건 돕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렇지만, 아주머니께선 다음부터는 가정방문은 절대 사절이라며 오지 않을 것을 다짐받으시고자 하셨다. 친인척밖에 모르는 남편의 얘기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부담스러우신 것 같았다. 아주머니의 기분과 상황을 십분 이해하며 그래도 연락처는 겨우겨우 받아내어 내 휴대폰에 번호를 등록했다.

전화번호를 등록하자 아주머니도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지 ‘카카오톡’메인화

면에 친구로 자동저장 되었다. “아~ SNS 카카오톡!! 그럼 되겠다!!”

얼굴 마주하는 것을 외면하시며 매몰차게 돌아서려는 아주머니지만, 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 생각하며 하루에 한 번이라도 미소를 지으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싶었다. 그것만이 내가 그 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카톡’으로 안부 인사도 하고 ‘카카오토리’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며 진심을 담아 댓글도 달았다.

처음엔 카톡에 글을 남기면 읽기만 하시고 대꾸도 없으시더니, 어느 날부터 인가 내 안부도 묻기 시작하셨다. “아이들도 어린데 얼른 퇴근해서 엄마가 놀아주어야죠~” “저녁반찬은 양배추찜에 짬장 찍어드세요~ 아주 훌륭하답니다~” “혜진씨의 웃는 모습이 참 예뻐요~” “다이어트 안해도 이쁘데...” 등.....

SNS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는 서서히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엔 내가 희망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 시작한 작은 댓글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내가 너무나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인생이라는 큰 산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야 하는,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깊은 애기와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행복을 바라며 살고 있다는 것, 성공과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 모두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다.

절망의 시간을 보낸 몇 년 동안,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미있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신다. 남편 분을 찾지 못 할 경우 아주머니에게는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큰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 나와외 관계도 성공과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거라며 서로 잘 지내보자고 하신다.

그렇게 또 한참의 시간이 흘러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 밑거름 위에 분홍빛 가계부가 수줍은 듯 놓여있다. 아직은 일



상이 너무 바빠 가게부 작성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고 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신다. 웃으시며 다이어트를 성공하고자 하는 것도 인생의 성공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으니 열심히 하라신다.

또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통계조사인 내 직업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다. 힘든 현장조사업무도 타인들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성공과 행복을 위한 도화지가 될 것이니 즐기면서 하라고...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서광의 빛은 분명히 찾아 올테니 꼭 믿으라고...

얼마 전 케익이 담긴 사진이 카톡 프로필로 올라온 것을 보고 생일카드와 와인 한 병, 그리고 작은 빨간색 화분을 예쁘게 포장하여 방문했다. 여전히 집으로 찾아오는 것은 부담스러워하셔서 쇼핑백에 담아 현관 앞 소화전 안에 넣어놓고 ‘카톡’에 글을 남겼다. 그날 밤 11시 카톡의 아주머니 프로필이 커다란 사이클 사진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TV장식장 앞에 빨간색 주전자모양의 화분이 조그맣게 보였다. 사이클을 시작한다는 글과 주말에 와인 한잔 해야겠다는 글도 함께..... 난 또다시 댓글을 달았다.“사이클 멋지신대요~ 빨간 화분도 정말 예쁘죠^^”

주말저녁 ‘딩동’하고 문자가 왔다.

“나름 가게부 작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고 또 보완할거 있음 하죠. 한번 들르세요^^ 식사 거르지 말구요~”

살포시 웃음이 나왔다. 난 여전히 다이어트 중이다. 아주머님은 다이어트 때문에 내가 식사를 거를까봐 걱정을 해주신 것이다. 달콤한 와인 한잔에 아주머님의 마음도 봄 눈 녹듯 스르르 녹아버리셨나 보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웃음을 머금고 답장을 하고 있다.

“아~ 감동~~^^ 정말 고맙습니다~~ 글구 메이플 시럽에 레몬즙 탄 물 마셨어요~~ 추석때까지 3kg 감량이 목표예요~~ 예쁘게 변신해서 찾아뵙게요~”

아주머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가슴에 새겨놓은 말이 있다. 어떤 어려움과 힘

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해야 한다는 것. 한창 민감하게 반항하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데리고, 시도 때도 없이 남편과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 어디건 달러가야만 하는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정신력으로 지탱하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며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고 계신다고 한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정도의 피와 땀은 그리 사치스럽거나 힘든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셨다. 그 피와 땀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내면의 신호이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다고.... 그 믿음을 갖고 아주머님은 지금까지 견디고 또 해쳐 나갈 것이라고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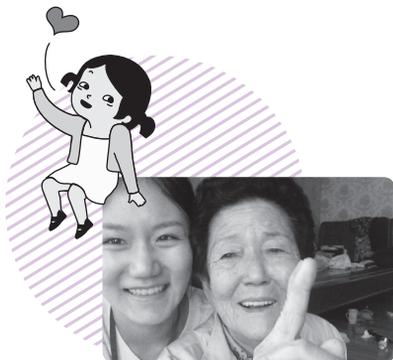
내가 하는 현장조사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므로 항상 즐겨야 하고

내가 하는 현장조사가 좀 더 의미 있게 빛을 받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 한발 더 내딛어 보려 한다.

통계청의 꽃인 현장조사가 내 인생을 더욱 반짝반짝 빛나고 찬란하게 만드는 인생의 등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성공과 행복의 지름길은 바로 이것이다. “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

나는야 공정에너지이저



금상

홍수민 | 충청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 조사구가 아닌 곳에서 응답자를 만난다면

- 밝은 인사로 간단한 안부를 묻는다.
- 이때 응답자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화젯거리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말에 말을 잇는다.
- 우연히 만난 만큼 응답을 강요하는 대신, 조사의 목적을 설명한다면 자연스럽게 통계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사례1. 지하철 안

지하철 : 이번 역은 신흥, 신흥역입니다.

이 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인다.

수민 : (망설이며)어, 어!

재동 : ?

수민 : (명랑한 목소리로)어 안녕? 보라미아파트 살지? 우리 몇 번 보지 않았어?
통계청 직원이야! 길에서 만나니까 색다르네~~

재동 : (무표정으로)아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차 안가지고 다니세요?

수민 : 응.. 이렇게 길에서 우연히 만날 기회도 생기고 고유가시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집에 가는거야?

재동 : 네. 어디가세요?

수민 : 당연히 너네 아파트가지! 매월 1일에는 가계부 가지러가고 15일이 낀 주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 드리러 가고 그 다음 주에는 걷으러 가고 그렇게 마지막 주가 되면 가계부 드리러가고... 오늘은 가계부 가지러 가는 중이야. 통계청에서 뭐 조사하는지는 알고 있지? 조사표 본 적 있어?

재동 : 아니요. 그거 왜 하는거예요?

수민 : 왜하다니!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취업해야 하잖아? 정부에서 취업률은 어떻게 되는지, 평균노동시간은 몇 시간인지 조사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돼.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에서 네가 일하게 되는 거구!



재동 : (재미있다는 듯이)누나 말 되게 잘하시네요. 처음에 우리 집 왔을 때는 민망한 미소만 지으시더니..

수민 : (누나라는 말에 화들짝 기뻐하며)하하하 그랬니? 3개월째니까 우리가 적어도 3번은 보지 않았겠어? 원래 스치기만 해도 인연이라는데 엄청난 인연인거지!!!

재동 : (관심을 보이며)조사 재밌으세요? 요즘 문도 안 열어주지않나?

수민 : 음.. 처음에는 그랬지. 남의 집 초인종 누르는데도 손이 잘 가지도 않더라. 근데 지금은 이렇게 먼저 아는 척도 하면서 대화하고 있잖아. 이런 데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아! 요즘 부모님께서 바쁘신 것 같더라. 조사표를 깜빡깜빡하던 데..네가 잘 챙겨주면 좋겠다.

(엘레베이터 안)

재동 : (편안하게 장난치듯이)생각해볼게요. 몇 층 가세요?

수민 : 12층부터 한층 한층 내려와야지~

재동 : 수고하세요.

수민 : 그래 안녕~ 오는 길에 말동무가 되어줘서 고마워. 다음에 보자.

◆ 응답자가 가게 불응이라면

- 잦은 방문과 전화는 삼간다.
- 한 달에 한 번은 꼭 직접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며 가게부를 권한다.
-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말고 다음 달에 다시 뵙겠다며 인사드리고 나온다.
- 이런 나의 인사를 받았다는 것은 “다음”에 와도 괜찮다는 암묵적 약속이므로 불응했지만 50%는 성공했다.

사례2. 1204호 응답자

“땡땡~땡땡~”

재경 : 누구세요?

수민 : 네, 통계청직원이에요~

재경 : (문을 열면서) 안녕하세요. 어? 바뀌셨네요.

수민 : (당황하며) 네 3개월 전에 바뀌었어요. 선생님은 여기 살고 계신거 아니시죠? 오늘 동생 분은 안 계시나봐요. 저번 주에 답례품 전해드렸어야 했는데 직접 뵙고 드릴려구요. 일단 먼저 드릴게요.

재경 : (형식적으로)예, 고맙습니다.

수민 : (조심스레) 여전히 가게부는 쓰실 생각 없는 것 같으세요? 많이 부담스러우시려나..

재경 : (멋쩍어하며)집에 쓸 사람이 없어요. 죄송하네......

수민 : 아니에요.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게요. 어머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한 시간 후,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수민 : 네, 여보세요.

재경 : 통계청..

수민 :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재경 : 여기 보라미아파트 1204호 인데요. 어머니가 가계부를 써보시겠다고 하네요.

수민 : (환하게 웃으며)아 그러세요! 저 지금 10층인데 바로 올라가도 될까요?

재경 : 그러세요. (전화를 끊고 계단으로 뛰쳐 올라간다.)

“핑둥~핑둥~”

수민 : 어머니 통계청직원이에요.

재경 : 들어오세요.

수민 : 전화 받고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어느 분이 쓰시겠다고 하신거죠?



재경 : 어머니가 써보겠다고 하네요. 곧 나오실 거예요.

(방에서 아줌마3 등장.)

수민 : (환하게 웃으며)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아줌마3 : 네, 안녕하세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밖에 잘 안 나가요.

수민 : (동조하며)아.. 그러시구나. 어머니 근데 왜 마음이 바뀌셨어요? 한 번도 얼굴을 안 보여주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아줌마3 : (나긋나긋하게)거의 집에 있어서 아가씨 왔다가는 소리 다 들었어요. 근데 얼굴이 이래서 밖에 잘 안 나가. 장봐도 한꺼번에 사오는 편이고.. 근데 아가씨가 매 달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도 이것저것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수민 : (안타까워하며)아 그러셨구나.. 몸은 어찌다가 안 좋아지셨어요~

아줌마3 : 약을 잘못 먹어서.. 아이고 얘기하자면 너무 길다.

수민 : 네네, 다음번에 기회 되면 말씀해주세요. 아무튼 가계부 쓰신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일단은 종이가계부 두 달 쓰시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씩 사례금 2만원씩 드릴 거예요. 그 후에 전자가계부로 쓰시면 4~5만원 받으실 수 있어요.



아줌마3 : 내가 컴퓨터 좀 하는데 지금부터 전자가계부로 쓰면 안 되겠나?

수민 : (놀라며)어머, 어머니 컴퓨터 잘하세요? 원하시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도 처음이니깐 종이가계부하나 드리고 가고, 종이가계부로 작성해 놓으시면 제가 다시 방문해서 전자가계부 설명해 드릴게요. 언제가 좋을까요?

아줌마3 : 그렇게 해요. 다음 주 수요일쯤 와요. 아 마실 것도 못 줬구만.

수민 :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아줌마3 : (부드러운 어조로)예~ 잘가요.

수민 : 네, 안녕히 계세요~

◆ 가게 불응 가구의 면접마저 어려운 상황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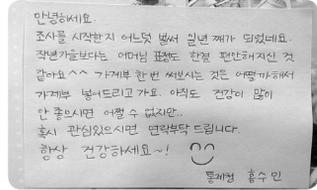
- 오직 그 응답자만을 위한 문자임을 느끼도록 프린트된 정갈한 글씨가 아닌 손수 정성스레 작성한 쪽지를 남겨보자.
- 단순한 메모나 문자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 나의 마음을 남기는 것이다.

사례3. 605호 응답자

작년 가을, 할머니와 인사를 해도, 빵 봉지를 들고 건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엘리베이터의 작은 공간에서 내려 바로 문 앞까지 가더라도 “꽝”하고 두터운 철제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가셨다고 한다. 할머니는 사람을 만나 말을 하는데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을뿐더러, 그럴 경우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게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안녕하세요. 통계청 직원 홍수민입니다. 조사를 시작하지 어느덧 벌써 일 년

짜가 되었네요. 작년 가을보다는 어머니 표정도
 한결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부를 한
 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가계부 넣고 가요. 아
 직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혹
 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라는 쪽지를 손수 써서
 가계부와 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넣어두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수민 : (혼잣말로 중얼거리며)아 괜히 넣었나..이제 경제활동조사도 안 해주면
 어찌지..아..어떡하지? 누를까말까 누를까말까..아..모르겠다 일단 눌러보자.

“핑둥~ 핑둥~”

할머니2 : 누..구세...요?

수민 : (떨리는 목소리로)예~ 할머니 저 통계청 직원이에요.

할머니2 : (문을 열고 미소지으며)어.. 어서...와..요

수민 : (안심하듯)예 잘 계셨어요? 저번에 가계부 넣어드리고 갔는데..

할머니2 : 어..들..어와..요. (거실 쪽으로 걸어가며) 통..계..청..

수민 : (거실을 들어서며)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통계청직원이에요.

할아버지1 : (인자한 얼굴로)예, 어서 와요.

수민 : (조심스레)혹시 제가 넣어드린 가계부 보셨나요?

할아버지1 : 예, 봤어요. 우리가 원래 가계부를 썼었는데 집사람도 건강이 좋
 지 않고 가계부 쓰는 것도 신경쓰이는데 이만저만 아니라 안 썼어
 요. 그건 어떻게 쓰는 거요?

수민 : 음.. 평소에 집에서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그대로 작성해주시면 돼서
 어려운 건 없으실 건데.. 여전히 가계부 쓰는 건 힘들까요?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드렸는데...

할아버지1 : 허허허. 뭐 써야 된다면 다시 써보도록 하지.

수민 : (놀라며)네????? 정말요????

할아버지1 :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집사람이 보고 말하더군요. 이번에 바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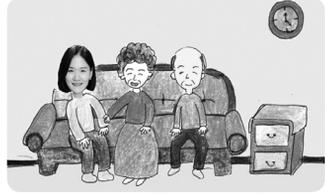
아가씨도 참 상냥하다고. 통계청은

원래 그렇게 예쁜 아가씨들만 뽑나?

수민 : (환하게 웃으며)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

사해요. 그럼 제가 접 때 넣어 놓고 간 가

계부 가지고 계세요?



할아버지1 : 그럼요~ 가지고 있지요.

수민 : 그럼 부담 갖지 마시고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게

될 거예요! 예쁜 아가씨라고 하셨으니 미워하시면 안돼요~

할아버지1 : 허허허

할머니2 : (미소를 지으며 끄덕인다)

수민 : 그럼 저는 중순 쯤 다시 찾아 뵙도록 할게요.

할아버지1 : 그렇게 하세요.

수민 : (꾸벅 인사하며)감사합니다~ 마음 변하시면 아니되어요!

할아버지1 : 그래요 잘가요.

◆ 할머니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 천천히 짧은 문장으로 또박또박 말한다.
- 할머니 말씀을 귀담아 듣자. 대화상대가 없어 외로우신 분들이 많다. 말 한마디 건네드리면 자녀분들, 이웃집 친구분들 이야기가 술술 나온다. 친할머니라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조사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있다면 훨훨 털어 버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그리고 잊지말자! 할머니는 조사구에서 강력한 입김을 갖고 있다는 사실!

사례4. 1203호 응답자

“핑동~핑동~”

할머니1 : 누구쇼~

수민 : 할머니이~~ 저 통계청 직원이에요.

할머니1 : (문을 열며)그려 어서와. 막내딸이 가게부 왔지?

수민 : 예. 방금 받아가지고 할머니보고 싶어서 또 왔죠.

할머니1 : (할머니 갑자기 두 손으로 수민의 양
쪽 귀를 잡고 끌어당기며 볼에 기슭뽀
뽀를!!!) 아이고 이빠라~



수민 : (당황하여)할머니도 저 보고 싶으셨나보
네. 할머니 바다여행 다녀오셨죠? 뭐라도
안 사오셨어요?

할머니1 : 응~ 황생이 좀 사왔어.

수민 : 황생이가 뭐예요?

할머니1 : (한손으로 손가락을 모으고 다른 한손으로 팔목을 잡으며)왜 있잖아
이만한 거. 저번 주에 바닷가 갔다 오면서 짓갈 사왔어.

수민 : (아직 잘 이해가 안간다)아 그렇구나! 뭔지 알 것 같아요. 할머니 근데
머리도 하셨나보네? 단정하니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할머니1 : (갈갈 웃으시며)이 아가씨가 할매 놀러? 엇그저께 요 앞에서 잘랐어.
아랫집이랑 같이 잘랐어.

수민 : 그러셨구나. 잘 자르셨네요.

할머니1 : 근데 아가씨는 몇 살이유? 결혼해야지!

수민 : (손을 내저으며)할머니!! 저 아직 스물 셋이에요~ 결혼하려면 한참 멀
었어요!

할머니1: 아이고참, 그렇지 아니 우리 손자딸도 청주에 있는데 아주 괜찮아.

수민 : 할머니 기억력도 좋으시네~ 청주사는 것도 다 기억하시고.

할머니1 : 이런 것도 기억못하면 어떡하~~언제와 또?

수민 : 다음 주 월요일에 집에 계세요?

할머니1: (서랍장을 뒤적이며 빨간색연필을 꺼낸다)이걸로 표시혀놔.

수민 : 할머니 여기 동그라미 그리고 통계청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이만 가 보겠습니다!

할머니1 : 그러 잘가잉~~



◆ 응답자와 조사원 관계를 뛰어넘자!

- 친한 친구, 나의 가족처럼.
- 응답자와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조사업무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된다면 조사 나가는 하루 하루가 즐겁다.

사례5. 1003호 응답자

“땡동~땡동~”

수민 : (한 톤 높은 목소리로)어머니 저 왔어요~ 통계청 직원ियो.

아줌마2 : (문을 열며)어, 아가씨 어서 와요. 아이고~ 컴퓨터로 입력하는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하루치 쓰려면 한 시간은 걸리는 거 같아.

수민 : 그래도 이번 달은 저번 달보다 많이 입력해 놓으셨네요~ 제가 나머지는 도와드리고 갈게요.

아줌마2 : 전자가계부 쓰면서 컴퓨터 배우는 거 같아. 아무튼 나머지는 아가씨한테 부탁할게.

수민 : 네, 어머니. 그런데 자동이체 내역이 빠져있네요~ 통장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줌마2 : 응, 기다려봐. (아주머니 방에서 나가시고 수민 열심히 전자가계부를 입력하고 있는데 아줌마가 뻔뻔히 방안을 들여다보며) 아가씨, 이거 빨리하고 가야 돼? 약속 있나?

수민 : 아 아니에요!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별다른 약속은 없어요.

(주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줌마2 : 통장 여겼어. 그리고 점심 먹고 가.

지금 준비 중이야.

수민 : 네? 아니에요. 저 금방하고 갈게요!

아줌마2 : 어차피 먹어야 되는 거니까 같이 먹어.

편하게 생각해.

수민 : (미안해 어쩔 줄 몰라하며) 음... 안 그러셔도 되는데..

몇 분 뒤

수민 : (부엌 쪽으로 나가며) 어머니 입력마쳤어요~

된장을 볶으며 다정하게

아줌마2 : 된장도 볶아 먹으면 담백한 게 맛있어. 이거랑 호박잎이랑 싸서 먹고 가.

수민 : 흠.. 올 때 마다 신세지는 거 같아서 어떡하죠..

아줌마2 : 뭐가 신세야. 아가씨는 물이나 들고 와요.

밥 상에는 미역국, 잡곡이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호두와 잣과 같은 견과류가 들어간 멸치볶음, 찐 호박잎, 명이나물, 파래김, 된장이 놓여 있다.

수민 : (감동하며)제가 이렇게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꼭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같아요.

아줌마2 : 대전 와서 지낸다면서. 많이 먹고 가. 우리 딸 같아서 그래,

수민 : 감사합니다. 어머니 따님은 집에 자주 오세요?

아줌마2 : 한 달에 한번 정도와. 힘든지 살이 쪽 빠졌더라고.. 아가씨는 일 좀 할 만해? 조심해서 다녀. 항상 밝은 모습 잃지 말고.. 귀여움은 자기가 만들어서 받는 거야.

수민 : 아 정말 잘먹었어요!! 매일 단체급식 먹거나 밖에서 사먹다가 해주시는 밥 먹으니까 속이 다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아줌마2 : 입맛에 맞았다니 다행이네.

수민 : 네. 그럼요. 제가 설거지라도 하고 갈게요!

아줌마2 : 됐어, 이 아가씨야~ 내가 설거지 시킬 것 같아? 얼른가요. 바쁠텐데,



나도 이제 나갈거야.

수민 : 매일 받기만 하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네요. 점심 정말 잘 먹었습니다. 중순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아줌마2 : 응 ~조심해서 가

수민 : 네 나오시지 마세요!! 문 닫고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나는 오늘도 긍정적인 생각을 응답자에게 전달하는 긍정에너지이저 역할을 톡톡히 마치고 조금 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향한다. 아직 연동이라는 큰 산을 앞두고 있지만 나의 긍정에너지는 앞으로도 쪽~~전달될 것이다.

나는야 ~ 통계청 코디네이터!

은상

김경란 | 동북지방통계청 삼척사무소



출장준비를 하느라 화장대 거울을 들여다보니 염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흰 머리카락이 마치 띠를 두른 듯 앞이마에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어느새 내 나이 오십. 벌써 반세기를 살아 온 내 인생. 해 놓은 것 없이 세월만 허송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통계청이 있어 내 삶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 금지옥엽으로 키워온 자식은 저 혼자 노력해서 대학에 합격을 한 양 용돈 떨어질 때만 전화를 하고 남편은 무슨 회사 일을 혼자 다 하는 양 아침 일찍 나가면 밤늦어서야 술에 취해 들어오기 일쑤. 덩그러니 혼자 남은 지금의 나에게 통계청은 삶의 활력소이자 보람이다.

내가 통계청에서 조사를 시작한 지도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1980년대 말에는 기혼여성의 직장생활이 보편화 되지 못했다. 결혼한 여자는 대부분 직장을 관두는 사회분위 기였으며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최고라는 의식이 팽배했던 때라 아이를 낳고 나는 망설임 없이 사표를 던졌다. 아이 잘 키우고 집안 살림 알뜰히 하는 것에

만족하는 전업주부로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돌아 온 딸아이 입에서 “엄마는 돈 벌러 안가요?”라는 말이 나왔다. 가슴이 찡렁 내려앉았다. 집에서 기다려 주는 엄마, 숙제를 같이 하고 간식 챙겨주는 엄마보다 회사에 나가 돈 벌어 오는 엄마가 아이 눈에는 좋아보였고, 맛있는 치킨이며 피자를 망설임 없이 시켜주는 돈 버는 친구 엄마가 부러웠나 보다. ‘가정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일종의 배신감과 허탈함이 내 가슴을 저리게 했다.

딸아이의 말에 자극을 받아 다시 사회생활에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통계청이었다. 원서를 내고 첫 출근 날을 마치 소풍가는 날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손꼽아 기다렸다. 사무실 한쪽에 놓인 ‘조사원 김경란’이란 이름표가 적힌 책상이 자랑스러웠으며 전산입력 프로그램에 있는 ‘작업자 김경란’이란 글귀가 신기하게 느껴졌으며 내 이름 석 자가 적인 명함을 받아 들며 새로운 삶을 통계청에서 힘차게 시작하였다.

처음 내가 조사를 맡은 곳은 강원도 산간 오지 마을이었다. 하루에 버스가 두 번 밖에 들어오지 않는 곳,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빨리 지는 마을, 논이라고 해도 바둑판처럼 반듯한 모양이 아닌 삐뚤삐뚤한 다락 논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닳아버린 멧턱한 손톱과 마디가 굵어 나무뿌리같이 생긴 손으로 온종일 농사를 짓는 곳이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가계부를 작성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두 차례씩 방문을 했는데 나를 가족처럼 반가워해주셨다. 사람이 귀한 동네, 중년 아줌마인 내가 새댁이 되는 곳, 그 곳에서 조사를 하며 나는 멀리 떨어져 자주 뵙지 못하는 부모님의 정을 나누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좋은데 문맹자가 많고 또 하루 종일 농사에 지치다 보니 조사가 잘 되지 않아 자주 방문하게 되고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는 농작물 수확에서부터 새참 배달 등 눈에 보이는 대로 일을 거들다보니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다.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을 대신 받아드리

고 고장 난 전기밥솥을 고쳐드리고 공과금 대납과 같은 사소한 심부름을 대신 하며 함께 생활을 했다. 며칠만 지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그들의 땀이 뻘 농작물이 잘 영글었는지 걱정이 되고 그렇게 우리는 통계 가족이 되었다.

내가 농가에서 만난 가구는 10가구. 인자하신 할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밥 보다 술을 좋아하시고 말보다는 욕이 먼저 나오는 할아버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저는 할머니, 자신은 못 배워도 자식들은 대학공부 시켰다며 학사모 쓴 아들 사진을 벽에 걸어두고 자랑하시는 할아버지, 이 모든 분들이 나의 통계청 가족들이다. 지금은 조사업무가 바뀌어 예전처럼 자주 뵙지는 못 하지만 자녀 결혼식이나 어버이날, 명절 등 이름 있는 날이면 서로를 기억하고 연락을 하는 소중한 나의 사람들이다.

지난해부터 나는 어가조사를 맡게 되었다. 처음 바닷가에서 만난 어가 조사구 분들은 농가 분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부 특유의 거칠고 무뎡뎡하고 표정이 없는 얼굴들이었다. 묻는 말에도 괜히 쳐다 보기만 할 뿐 대답도 하지 않고 배부한 조사표는 그물더미에 묻혀있기 일쑤였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 얼굴이 별경계 달아오르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 1년이 조금 지난 지금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깊은 인간애를 느끼고 있다.

농가와 달리 어가에서 내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생활이 그들을 무표정하게 만든 것 같았다. 아무 것도 계획 할 수 없는 삶.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날이 있는가하면 어느 날은 조류가 바뀌어 그물 가득 고기가 잡히고, 새벽 조업을 나갔던 옆집 사람이 실종되어 온 마을 배들이 실종자 수색에 동원이 되기도 하는 각박한 삶이 그들 얼굴의 미소를 사라지게 한 것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려움을 가슴으로 느끼며 삼고초려 하는 노력이 필요하

리라 생각하며 이런 저런 일들을 나름대로 찾아서 해보았다.

시집간 딸이 원인도 알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앓으면서 장기간 입원 중인 가구, 사위는 직장에 나가야 해서 외손녀를 돌봐야 하는 가구가 있다. 새벽 3-4



시에 출어를 하고 오전에 입항을 해 수협 경매를 하고 막사에서 밥 한술 먹고 나면 다음날 출어를 위해 그물을 손질하고 늦은 오후가 돼서야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 할머니에게 5살 외손녀 돌보기는 정말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그런가 하면 외손녀의 생활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생선 비늘이 묻은 옷에 생선 비린내까지 달고 유치원으로 데리러 오는 할머니가 싫어서 유치원 선생님 뒤로 숨는 아이, 유치원에 가장 빨리 오고 집에 가기 싫다고 유치원 선생님 뒤에 숨는 아이, 귀가 어두운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늘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있는 아이, 처음 조사를 하러 가서 만난 손녀는 울보에 심술쟁이, 그리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내성적인 아이였다. 하지만 방문 할 때마다 조금씩 얼굴을 익혔고 5살 꼬마가 좋아하는 스티커 북이며, 예쁜 머리핀과 장식 고무줄을 준비해 머리도 예쁘게 손질해 주고 화장대 서랍에 뒹굴고 있던 진주구슬로 함께 팔찌도 만들면서 친해졌다. 조사표를 적는 동안 매니큐어가 발라진 손톱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분홍 매니큐어를 가져가 발라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두 달을 넘기다보니 어느새 내 볼에 뽀뽀도 해주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친구들 이야기며 엄마가 보고 싶다며 내 품에 안겨 울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손녀는 조사를 마치고 대문을 나서는 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유치원에 가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새벽에 할머니가 차려놓은 밥상의 밥을 혼자 먹고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을 모습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저희집에 데리고 가도 될까요?”라고 했더니 “아이 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걸 하겠느냐…….”며 사양을 했지만 대학 간 딸의 방이 비어있고 남편도 아이를 좋아한다며 졸라서 허락을 받았다. 그렇게 시작된 조사구 손녀의 우리 집 주말 나들이는 내게 ‘우리집 막내딸’을 만들어 주었고, 나는 ‘통계청 엄마’로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었다.

대학 간 딸이 읽었던 동화책이며 봉재 곰인형이 다용도실에서 다시 나와 새 주인을 맞았고, 우리 집 거실에는 주말마다 고소한 튀김냄새와 어린이 동요가 울려 퍼졌다. 덕분에 주말과 휴일이 바쁘고 피곤하긴 하지만 나는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뿌듯함을 느끼며 나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8월 여름휴가를 이용해 친아빠가 우리집에 인사차 들렀다. ‘통계청 엄마’는 커피를 좋아한다고 딸이 말했다며 커피 봉지를 들고 온 친아빠는 내년 봄에는 딸을 경기도로 데려갈 거라고 말했다. 외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고 또 딸의 교육을 위해서 데려갈 거라고 했는데, 가슴에 구멍이 뻥하고 뚫리는 것 같았다. 앞으로 다가올 이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벌써부터 눈물이 났다.

지난 여름, 방학을 맞아 교육대학에 다니는 딸이 집에 왔을 때는 아예 ‘무료 공부방’을 운영했다. 주말과 휴일에 우리집에서 지내는 어가의 손녀딸에게 동



화책 읽어주기를 계기로 집 주변 어가의 손자 손녀를 불러 모아 ‘연예인 포스터를 이용한 퍼즐 만들기’, ‘마술 교실’, ‘피아노 노래 교실’을 운영했다. 중고등학교 시절 조사구

의 갖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은 엄마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대요?”하며 통명스럽게 굴던 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봉사하는 것을 배웠는지 선뜻 무료공부방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손자에게는 주3회 예비중학생 영어문법과 수학을 방문 지도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초급 영어 회화를 가르쳤는데,

여름 방학이 끝나고 ‘무료 공부방’을 닫을 때 즈음에는 인근 어가 손자들까지 ‘겨울 방학 예약’ 사태를 빚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다.

무료 공부방임을 강조하며 한사코 거절하는데도 “영어, 수학 책 값도 안 받으면 어떡하냐?”며 우리 딸에게 흰 봉투에 담긴 5만원을 건네 주셨다.

지난 봄 바닷가 막사에 갔다가 유난히도 검은 피부에 겁에 질린 듯 경계하는 눈빛의 외국인선원을 만났다. 우리나라 선원은 최소 150만원을 줘야 하는데 외국인 선원은 70-80만원이면 구할 수 있어 외국인 선원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내 조사구에서도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출신 선원을 쉽게 볼 수 있다.

외국인 고용이 늘어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이다. 어가의 경우 경영주 학력이 대부분 초등학교 졸업이거나 중학교 중퇴정도이고 배우자의 경우도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졸업이 대부분이어서 쉬운 영어도 하지 못한다. 외국인 선원은 월급을 적게 줘서 좋은데 말이 안 통해 불편하고 어로 작업 중에는 위급한 순간 밀치거나 손부터 올라가게 되고 그런 일들로 오해 생겨 외국인 선원이 도망을 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소연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물 손질을 하는 외국인 선원에게 다가가 “Where are you from?” 하고 건넸더니 “I’m from Nepal.”하는 것이었다. 얼른 두 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고 “나마스떼” 했더니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몇 마디 말로 이제 멀리서도 달려와 사물함에서 바나나를 꺼내 주는 사이가 되었다.

자신은 네팔에서 온 ‘차크라’라고 했다.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서 네팔에 가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겠다는 ‘코리아 드림’을 들려주었다. 그 후 나는 막사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만날 때마다 안부 인사 겸 간단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모습을 본 경영주는 아예 내게 업무 지시사항까지 전해 달라고 해서 통역관이 되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 선원들도 이제 더 이상 경계의 눈빛 없이 고향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는 그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말했고 인근 지자체

에 준공한 ‘외국인 선원 복지관’도 가르쳐 주며 그들의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기를 그리고 ‘코리안 드림’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어가 조사구 중 한 곳은 읍 소재에서도 1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작은 항구이다. 삼척시에서 읍으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읍에서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50분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교통이 불편하다보니 우리가 슬리퍼 끌고 동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우유 한통, 달걀 한 판도 쉽게 살 수가 없다. 한 통에 2~3천원 하는 우유가 5~6천원에 배달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렇잖아도 어업용 면세유 값은 오르고 고기는 잡히지 않아 살림이 힘든 어가에서 일주일에 우유 한통을 배달해 먹는데 3만원이나 들다니... 너무 아까워서 내가 매주 방문 할 때마다 우유를 갖고 올 테니 배달 우유는 그만 드시라고 하고 매주 우유를 사갔다. 물론 우유는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 트렁크에 아이스박스와 얼음주머니도 늘 챙겼다. 그런데 우유 사러 마트에 가면 사다 줄 물건이 왜 그리도 많은지? 우유는 물론 달걀, 빵, 라면, 세제까지 구입해 조사구로 향하는 내 차 트렁크는 작은 마트를 옮겨놓은 것 같다.

얼마 전 조사구 응답자로부터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자기야, 우리 집 가계부 적을 때 내가 불링공 값 불러 준 거 있지? 그 게 언젠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불링을 치는 남편이 불링용품을 구입하고 50만원을 송금을 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이다. 서랍을 다 뒤져도 이미 해를 넘긴 일이라 영수증을 찾을 수도 없고 송금을 했던 은행에 가니 정확한 송금날짜를 알아야지 조회를 해 볼 수 있다고 말해 어쩔 줄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언니~~걱정 마세요. 제가 금방 알아보고 전화드릴게요~~” 나는 지난 해 가계부를 다 뒤져 송금 일자를 알려주었고 조사구 응답자에게서 해결됐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는 흐뭇한 기분을 느꼈다.

그런가 하면 김치 냉장고의 계기판을 조작하지 못해 김치가 다 얼어버렸다

는 가구,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는데 고장수리 접수를 해달라는 가구, 5일장에 갔다 와보니 휴대폰 뒤 커버가 없어졌다는 가구, 이런 저런 작은 심부름도 나는 웃으며 해결한다. 대부분 전자제품 서비스센터가 ARS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전자제품 경우의 제품명이 작은 크기에 영어 알파벳이 섞여 있으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접수가 힘든 일이지만 내게는 전화를 하거나 서비스 센터에 가면 쉽게 해결이 되는 일이다. 지금 내가 조사를 위해 방문하는 가구는 모두 28가구이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부탁들이 이어진다.

하지만 나는 조사구에서 부탁을 할 때면 ‘행복을 위한 씨앗 하나’를 받은 것처럼 기쁘다. 나의 작은 노력을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 나는 참 행복하다.

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구를 방문하다보면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게 된다.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은 없다고 했는데 정말 나는 통계조사를 한 6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

다리를 심하게 다치고도 입원비가 없어 통원치료를 하는 할머니 모시고 한 달가량 병원 다니던 일, 입원환자 병문안은 물론 조사구 분들의 장례일 돕기, 며느리 보기 전 날 밤늦도록 하객들에게 나눠 줄 간식봉지 만들던 일, 사찰 3 곳을 다녀야 소원 성취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할머니들의 초파일 나들이도 어느새 6년째를 맞고 있다. 우울증 어머니를 위한 해안도로 드라이브, 주택화재로 인한 집수리 봉사, 가출한 손자 찾기 위한 심야 외출, 새벽 위판을 위한 차량 지원, 마을 진입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원 등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이 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

그 중에서 지금도 가슴 아픈 일은 내가 어가조사로 담당이 바뀌고 나서 들려

은 농가 조사구 할아버지의 자살 소식이다.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난 후 술로 피곤과 외로움을 달래던 분이셨는데 결국 농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술 대신 드시라고 장터국밥을 포장해 가곤 했는데 조사구가 바뀌고 나서 잠시 잊고 있는 동안 나의 무관심을 항변하는 것 같았다. 수많은 좋은 기억보다 단 한 건의 아픈 기억이 지금 내 가슴에 더 크게 자리를 하고 있다.



세상에 일방적인 것은 없는 것 같다. 조사를 하면서 뿌린 작은 사랑의 씨앗들이 몇 배의 큰 열매가 되어 돌아왔다. 나의 행동들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더니 어느 날 신문에 소개가 되고 방송에 나오기도 했다. ‘힘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도 살맛이 난다’는 내용이었는데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았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나의 행동에 채찍이 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굴레가 되는 것 같다.

또한 지금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영광스런 일이 내게 주어졌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통계조사원을 위한 청와대 오찬모임을 마련하셨는데 그 곳에 내가 초대되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과 통계조사에 대해 얘기를 하고 담소를 나눈 기억은 나는 물론 우리 집안의 영광으로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오래 오래 또렷이 남을 것이다.

‘코디네이터’하면 정수기가 생각난다. 주기적으로 정수기를 청소하고 필요한 부품을 교환해주는 코디네이터. 요즘은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를 이어주는 ‘병원 코디네이터’, 학교에서 방과후 공부방 교사와 학생을 연결 프로그램을 운영해주는 ‘방과후 코디네이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조사구내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통계청 코디네이터’가 되기를 감히 희망하고 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지천명의 나이에 나는 생각한다. ‘아파트 평수, 고

급 자동차, 돈, 성적, 외모…….’ 이런 것으로만 내 삶을 채울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 삶은 빛진 삶이 되지 않을까?’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조사를 하면서 힘들 때, 지쳐서 조사만 하고 민원은 대충 모른 척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나는 스스로 지은 이름 ‘통계청 코디네이터’를 떠올린다. 흔히 ‘내가 살아온 것을 책으로 쓰면 소설이 한 권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통계조사를 하면서 만난 수많은 ‘통계청 사람들’과의 이야기도 소설책 한 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야~ 통계청 코디네이터!’라는 내 인생의 소설책에 적힐 수많은 좋은 기억들을 앞으로도 만들고 싶다.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이 흘러 내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통계청 코디네이터’이기를 자청했던 내 중년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며 ‘참 잘한 일’이었다고, ‘통계청 코디네이터’로 인해 내 인생이 참 보람찼다고 스스로 평가하며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조사구분들에게 건넨 식용유 세트와 차 트렁크를 가득 채웠다. 나의 작은 선물에 기뻐하시기보다는 미안해하시며

“별로 해 준 것도 없는데 이 건 또 왜 가져왔어?”

“쓸 돈이 없어 가게부에 적은 것 없어 어찌냐?” 하며 받으실 그분들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진다.

“아버님, 어머님~추석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미소 띤 얼굴과 애교 섞인 목소리 그리고 배꼽 인사로 명절 인사를 드려야겠다.

노부부와 연탄

동상

정윤심 | 호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이 다가오니 내 마음속에 훈훈하게 자리하고 있던 지난 겨울 연탄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떠오른다.

“어보세요~ 통계청 정윤심씨 맞죠잉? 여그 평동인데요”

“아~ 네 조맹순 어머니!”

“연탄이 왔어, 방금 전에 연탄 300장이 왔당께~ 이렇게 고마운 일이 다 있어서 어찌까잉~”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목이 메어 눈물을 머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덩달아 내 가슴도 먹먹해지면서 말을 잇기 어려웠다.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 잘 됐어요. 잘 하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잉, 너무 너무 고마워서 어찌까잉, 정말 어떻게 해야 할꼬나?”

“어머니! 그런 말씀은 마시고 올 겨울은 아주 춥다니까 연탄 아끼지 말고 따

뜻하게 지내세요. 어머니께서 착하게 살아오신 보답일 거예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 송촌길 17번지. 2011년 9월부터 표본연동교체가 시작된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구로 김영철(82세), 조맹순(72세) 노부부가 살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약 20년 전 조성된 평동산업단지 공단부지에 경계지역으로 공단에 편입된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낙후되고 소외된 곳이다.

생활고에 찌들어 하루 하루가 힘겨워 보이는 그분들께 3년 동안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할 거라고 설명 드린 내게 돌아온 반응은 냉랭한 무관심과 거부반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조사에 대한 설득과 설명, 기초자료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나는 매일 그곳으로 출장을 나갔다.



연탄 사건의 주인공인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흙벽으로 지어진 오래된 집으로 방 한 칸 부엌 한 칸, 말 그대로 오막살이였다. 마당은 몸체에다 판넬 지붕을 달아내 햇간처럼 쓰고 있었는데 모아놓은 폐박스가 지붕에 닿을 정도로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노부부는 두 분 모두 자전거를 타고 공단 주변을 다니며 폐박스 등을 주워 팔아서 근근이 생활하고 계셨다. 두 분이 부지런히 한 달 동안 폐박스를 모아서 팔면 약 6~7만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하셨다. 또한 자식을 낳지 못해 갓난쟁이를 입양해 금지옥엽으로 키웠는데 어른이 되면서 부모에게 포악을 일삼아 자식의 연을 끊고 지낸다고 하셨다.

연동 2달째 되던 작년 10월 경제활동조사를 나갔을 때, 한숨을 쉬며 동사무소에 다녀왔다는 말씀을 하셨다. 무슨 일인가 여쭙더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탄 300장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받았었는데 눈이 어두워 그만 쓰레기인 줄 착각하여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시 발급해 달

라고 동사무소에 갔었는데 사정사정해도 안 된다고 했다며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었다.

또한, 구청에도 알아봤는데 재발급은 절대 안 된다고 하여 허탈한 심정으로 그냥 돌아왔다고 하며 추운 겨울 어떻게 할지 한 숨만 쉬셨다.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라고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귀청했지만 마음이 계속 무겁기만 했다.

한 달 후, 11월 경제활동조사 출장을 나가서 연탄쿠폰에 대해 여쭙더니 찾지 못했다 하시며 깊은 한 숨 뿐이셨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있었는데 정말 걱정이 되었다. 무엇인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직접 나서서 구제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가구주 김영철 할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구제 방법을 물었다. 다행히 동사무소의 담당자는 노부부의 사정을 기억하고 있었다. 구청에 연탄지원자를 파악해서 보고했으며 연탄쿠폰이 나와서 통장을 통해서 배부한 것 뿐이라면서, 담당자도 하도 딱해서 광산구청의 담당팀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구제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분명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 끈질기게 물었더니 구청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거기로 전화해 보라는 것이었다.

다음날 광산구청 에너지관리계 000팀장님과 전화가 연결되었다.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노부부와의 인연이 통계조사원과 표본조사구 응답자로 알게 된 과정을 말하고, 그분들의 딱한 사정을 구구절절이 말씀드리며 구제방법을 여쭙다. 담당 팀장님은 “본 증서는 분실, 멸실, 훼손 시에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라는 문구를 2차례 읽어 주면서 연탄쿠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으니 구제방법이 없다고 했다. 여느 관공서와 같이 형식적인 절차만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연탄의 배달방법과 결제방법 등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다며 지식경제부의 예산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므로 광해관리공단으로 문의를 하라는 것이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처음 들어보았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한국광해관리공단(韓國鑛害管理公團)은 효율적인 광해방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저소득층에 '사랑의 연탄배달' 사업을 주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광해공단 호남지사의 담당자는 강천기 과장님이었다.

우선 내 신분을 밝히고, 노부부의 딱한 사정과 구제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말했다니 분실, 멸실시에 재발급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진정 그런 식으로 대답하더냐며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었다. 귀찮고 복잡해서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하며, 다시 한번 나와 노부부와의 관계를 물었으며 친인척관계가 전혀 없이 단순히 업무상 알게 된 분을 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하는 점을 아주 높이 사주었고, 호남 지역에 2만장을 배포하고 그 중 광주광역시에 7천장을 배포한 내용 등 사업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구제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나는 쿠폰발부와 결제방법 등을 자세히 여쭙다. 만약 백화점 상품권처럼 이미 비용이 지불된 유가증권의 형식이라면 방법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쿠폰이 회수된 시점에 비용을 지불하는 후불방식이라면 구제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나의 생각을 말했다. 강천기 과장님은 “그런 것까지 깊게 생각하고 있다니 정말 엑셀런트하다.”며 배달은 남선연탄에 의뢰를 했고 배달 완료 후 정기적으로 쿠폰을 모아서 결제를 남선연탄으로 한다고 했다. 애원하듯 도움을 요청하니 구제방법을 알아보고 연락을 주기로 했다.

며칠 후, 반갑게도 다시 발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나 광해공단 측에

서는 지금까지의 사실이 허위일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는 연락이 왔다. 나는 노부부가 받았다는 연탄쿠폰을 본 적도 없고 분실한 것 또한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의 진솔함과 순박함을 믿어 줄 것을 강조하고, 번호가 같은 쿠폰이 2장 회수되는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드디어 광해공단 측에서 쿠폰발급 처리를 하여 연탄을 직접 노부부에게 배달하여 드리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 후 연탄배달이 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배달업체인 남선연탄과 여러 차례 통화하는 등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외로운 노부부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연탄 300장은 무사히 배달되었다.



통계청이 맺어준 노부부와 나와 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어 지금은 조사 1년째를 맞이한다. 경제활동인구 조사 연동초기 통계조사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고 냉랭하기만 했던 조사구에 노부부의 연탄 자량이 퍼져, 어느 사이 나는 통계청에서 온 반가운 손님이 되어 있었다. 통계조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조사구에 자연스럽게 심어져 불만 제로, 응답률 100%인 조사구가 되어 나 또한 특별한 애착심을 갖고 그분들과 정든 통계가족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아마도 그분들께는 동사무소나 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에 비해 통계청 직원이 적극 나서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 것을 보고 우리 통계청 전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고, 무한한 신뢰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통계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보았으리라...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기뻐던 일,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낙담했던 일...

표본가구와 조사담당자로 시작된 관계이지만, 마치 나의 부모님의 일처럼, 마치 나의 일처럼 도와드리려 노력했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정말 기뻐다. 특히 일을 같이 하면서 나를 신뢰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한국광해공단의 강천기 과장님께도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당당하면서도 부드럽게, 호소력 있으면서도 몇몇한 통계인으로서의 나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져본다.



사람이 사람에게!

(효심은 호랑이도 춤추게 한다)

동상

양정자 | 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



현장조사 직원의 체험사례를 공모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 8년간 통계조사 해온 기간을 뒤돌아보면 내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은 세상에 어떤 일이든 쉬운 일 없다고 하지만 통계조사 또한 어려운 일 중 그 순위를 뽑으려면 그중에 단연 으뜸일 아닌가?나는 생각 한다.

요즘 한창 잘나가는 노래가사 구절에 있는 ‘강남스타일’ 춤 한번 따라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것 같다.

한 분야에서 8년이면 벌써 전문가가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막힘이 없는 술술 기술적으로 잘 해결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나온 통계조사 현장들을 뒤돌아보면 아쉬웠던 일도 많았고 또한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던 일도 무지 많았던 것 같다.

경제조사 일만하다가 7년 만에 새로운 마음으로 어가경제조사 일을 접하고 나서 많은 갈등과 어촌 특유의 공동체의식 및 낯선 타인에 대한 강한 배타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나에게 어가의 특성을 받아 드리기 까지는 1년이란 세

월을 보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처음 불응가구의 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그 반응을 기다리는 초조함, 바쁘다는 핑계와 정부의 불신으로 통계조사를 외면하는 바다 사나이들 앞에서 한번만 더 말 붙였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난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그 먹먹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어가에서 느끼는 보람이 있지 않았다! 스스로 내 자신을 칭찬 하면서 많은 통계조사원의 현장들 중에서 나의 기억 속에 나름대로 진정한 통계조사관으로 보람을 느낀 이야기를 글로 표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이야기는 조사대상 가구의 불화로 가정이 원만하지 못한, 아내와 불화로 홀로된 단독가구였다.

“계십니까?” 하니 대문 안에서 들려오는 고함소리 “누구야!” “저~~통계청에서 왔는데요!” 하면서 이런 저런 물어보니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왜 남의 집 쪽보까지 문느냐며 버럭 화를 내시곤 대답도 해주지 않던 진해 아저씨, 아내는 도망가고 아들도 집나가고 빛은 많아 남에게 자신의 속내를 보이기가 엄청 자존심 상해하던 그런 아저씨였고 일반 대화는 거친 말속에 일상의 피곤함을 담긴 어투로 나를 대하였지만 생일이 되어 문자를 넣어주고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 오빠도 아저씨와 비슷한 상황이라 그 심정을 잘 안다고 하니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고 이제는 고기랑 미역을 잡아서 없는 오빠네 갔다드리라고 하니 마음속에 작은 짐은 되지만 그래도 속내를 알아주고 대화를 하다 보니 이제는 편안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가경제조사를 하러가는 날이면 걸려오는 전화 한통이 있다.

집안에 큰일이 있던 작은 일이 있어도 “야이~야 니이 와 이리 안 오노? 퍼뜩

온나 퍼뜩”그러면서 늘 조바심이 나게 만드는 울티 마을 표본어가 02호 어머니.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던 것 정리만 대충 해놓고 출발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께서는 어서 빨리 오라며 핸드폰 넘어 높은 목소리로 나를 채근하기 시작했다. 나의 애마 모닝과 한걸음에 달려간 조사구앞에 도착해 보니 “통계청아! 니 나 데리고 떡 방앗간 좀 가재이~ 떡 대야 좀 차에 실어래이~ 윗마을에 방앗간이 있는기라~!”

“통계청 정자야, 나는 떡하고 있을 테니까 니 볼일 보고 내 데리러 오거래이~” 그러시면서 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당황하며 왜 이러시지? 싶어 전임자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지금까지 그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몸도 불편하시고 차가 없어 잘 다니시지 못하는데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 부르기도 뭐하고 해서 곤잘 그렇게 심부름을 시킨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나는 나의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찡해지면서 ‘그런 속사정이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 일을 다 보고 어머니를 모시러 떡 방앗간을 다시 찾았다.

“통계청 정자야, 떡 다했다~ 따실 때 하나 묵어 보래이” 어머니는 크고 투박한 큰손으로 떡을 하나 잡아 내입에 쑥 넣어주며 흐뭇하게 웃고 계셨다.

배도 고프고 하던 차라 떡석 먹었더니 어찌나 맛있든지, 그리고 오랫동안 일을 해서 그런지 투박하고 거친 손은 인정이 얼마나 가득한지 가래떡을 한가득 또 싸 주시고 나는 떡을 입에 물고 차를 운전하는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서 잠시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거는 것을 미루어야만 했었다. 그리고 얼마 뒤,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았다.

그 이후로 온 동네 어르신들 집들과 방앗간의 메신저가 되었다.

“아~야 니 잘 왔데이~ 오늘이 공과금 마지막 날인데 세금 좀 내주고 가라 야기 통장이랑 도장 있다” 그러시는 것이었다.

제가 통장에 있는 돈 몽땅 다 들고 도망이라도 가면 어찌려고 통장이랑 도장을 다 건네주시는지 요즘 시골에 도둑이 많다던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막 건네주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율하마을 어머니께서는 “내가 니 안 믿으면 누구 믿겠노? 니도 내 믿고 조사하러 오는 거 아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속엔 깊은 신뢰가 느껴졌다.

“네, 맞지에~ 저도 어머니를 믿고 조사를 하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말씀이 백번 옳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과금을 내고 영수증을 드렸더니, 제 두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맙다, 고맙다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전에 가래떡을 하실 때 어머니 손이 갈라지고 거칠어진 것을 본 후에 작지만 살구 향기가 나는 핸드크림을 선물로 드리고 손에 발라 드렸더니 “아이구야 통계청아! 니가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보다 낫데이~ 차가 없으니 버스는 멀미가 나서 잘 타지도 못하고 그래도 니가 이래 도와주니 너무나 고맙다!”



어머님의 그 따뜻한 손에 오히려 내가 더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고, 어머니의 살구 향기가 나는 손등은 이미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따르릉 따르릉~”

오늘도 바쁘게 울리는 전화벨소리. 오늘은 이명마을 어머님이셨다.

“통계청아! 매실 엑기스 담귀야 하는데 설탕이 좀 모자라는데 니 올 때 설탕한 포대 사오거래이!”

설탕 사가지고 어머님 집에 갔더니, 아버님과 함께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

쳤다.

“아야~ 니 온 김에 우리 읍내 목욕탕에 좀 데려다 주모 안 되겠나?”

“네~알겠습니다!” 하고 읍내까지 모셔다 드리고 목욕 다 하시고 2시간 후에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곤 두 시간 뒤에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러 목욕탕을 다시 찾았다. 내가 오기만을 목 내밀고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닌가?

“통계청 정자야! 니가 효자다~ 누가 우리를 이래 챙겨주겠노? 일도 많을킨 데 여기까지 데리러 오고 고맙데이 집에 가서 밥이라도 묵고 가래이”

가끔은 내가 이런 거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지만 멀리 사는 자식들 얼굴 보기만을 기다리시는 어머니, 아버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에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농어촌 통계팀의 직원들은 외로우신 어머니, 아버님들의 손이 되어 주고 발이 되어드리고 있다.

배고프면 어르신들 집에 가서 손수 담근 된장에 집 앞에서 판 고추랑, 상추랑 해서 밥도 얻어먹고, 대청마루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 하며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진동면 고현 미더덕 위판장 개소식에 창원사무소 농어촌 통계팀과 “한들 품 물단과 (나는 상쇠역을 맡음) 연계하여 지신밟기를 하게 되었다. 미더덕, 오만동이, 흥합, 조사를 하면서 바닷가 어장을 찾아다니며 매월생산량을 체크하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일을 하면서도 찾아가면 획~쳐다보는 대답도 안하고 일만하시는 진동면 고현마을

“저기요?~~ 저 통계청에서 왔습니다! ~~” 하지만 돌아보지도 않아 이막인지 저 막인지 몰라 힘들어하던 첫 만남들.....

그곳의 투박함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어촌계장님과 이사님을 만나 이런

저런 대화를 하면서 위판장 건물을 새로 지어 이사한다고 하여 그러면 저희 통계청에서 지신밧기를 해드리겠다고 하니 엄청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진동면 고현 미더덕위판장 개소식에 농어촌통계팀과 창원사무소 풍물단이 연계하여 지신밧기를 하게 되었고 그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도 열심히 공연을 하고나니 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꿩과리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왔으며 자연스레 가까워지다보니 정확한 자료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었다.



창원사무소의 남다른 자부심 한들 풍물단 상쇠역인 양정자입니다.

이 후 통계청 창원사무소편 <KBS-1방송 고래고래-소화제2> 출연하면서 촬영현장이 조사구였고 심인보 아나운서 역시도 일일 조사관이 되어 하루를 촬영하는 동안 통계조사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통계조사는 책상에 앉아서 자료만 받아 통계자료가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을 찾아다니며 조사해야하는 애로사항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방 방송분이 잘되어 전국방송으로 2회 방영되었고, 통계청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를 한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꼈고 방송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조사구 및 동네어르신들께서도 통계청 정자 덕분에 전화를 받는다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것이었다.



- 창원사무소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소화제 촬영 -

그리고 10월 28일 KBS-2 아침6시 전국방송 '싱싱 일요일이 좋다!' 동남지방 통계청에서 1사1촌을 맺은 김해시 인현마을 봉사활동 사연을 촬영하는 현장에서 한들풍물 단원으로서 어르신들과 한바탕 어울마당을 열기도 했다.

가을이 시작되면서 신표본조사구를 찾아 바다와 섬으로 오가며 조사구를 찾아다닌다.

이제는 인간관계 형성이 잘 되어있어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표본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조사를 하게 되니 통계조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통계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할 것이고 불응 없는 조사구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처음처럼 겁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다 통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려 한다.

끝으로 내 이름을 양정자라고 지어 주신 우리 부모님께 통계청에 입사한 후에야 좋은 이름이라는 것을 새삼 더 느끼게 되었다.

어릴 때는 '자'자 가 들어간 내 이름이 얼마나 듣기 싫었던지 내 이름이 정희, 정미 이런 이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솔하게 해보았다. 하지만 통계청 일을 하면서 통계조사 목적보다 조사대상 어른신께 더 살갑고 친딸처럼 다가서게 된 부분에는 분명 내 이름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내 이름은 양정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정자'라는 이름이 자신의 딸 혹은 자신의 동생처럼 부르기 쉽고 정다운 이름일 것이다.

어느덧 아침 출근길에는 나도 모르게 중얼 거린다.

봄에는 도다리를 가자미로, 여름에는 장어를 봉장어로, 가을에는 전어. 겨울이면 물메기, 꼬시래기 등등 방언을 표준어로 외워가며 사계절을 가름하는 어업인이 되어 가고 아직도 세상은 배우고 나누어 줄게 많고 또 은혜 받을 일이 많음에 늘 감사드리며 거친 파도 속에 늘 긴장과 끈임없는 노동으로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창원사무소 농어촌통계팀 양정자 올림 -



자네는 통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장려상

김춘동 |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



“김춘동 학생, 자네는 통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대학 신입생 첫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내게 던진 질문이었다.

학과생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모양(?)빠지고 싶지 않았던 나는

“그 답을 얻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약간은 건방지게도 들릴 수 있는 대답을 했었다.

어린 학생의 객기어린 대답을 호탕한 웃음으로 받아주신 교수님은 가끔씩 내가 교수실로 찾아볼 때마다 한 번씩 같은 질문을 하곤 하셨다.

1학년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던 나는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해서 한 학기가 지났을 때쯤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었다.

“통계는 현재의 현상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교수님께서서는 씨익 웃으시며, “네가 이제 공부 좀 하려는 겁다.”라고 하셨던 추억이 있다.

내 머릿속에서 통계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이후부터 통계라는 학문은 내게 정말 매력적인 학문으로 다가왔다. 매 학기마다 기말과제로 팀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면서 조사를 기획하고, 설문지를 설계하고, 조사를 실행하고, 분석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전체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정확한 통계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했을 때의 희열도 잊을 수가 없었다.

고학력 인플레이션 시대의 취업난 속에서 당장의 호구지책으로 삼았던 혁신/기획 경력을 뒤로하고 통계청에 입사해야겠다고 뜻을 세운 지 2년반 만에 2012년 6월 남들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에 나는 그토록 바라던 통계청 공무원이 되었다.

내게는 공무원이 되었다는 기쁨보다, 통계수요자에게 신뢰받는 정확한 통계생산을 목표로 하는 전문가 집단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기쁨이 더 컸다.

나는 2012년 6월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에 발령받은 햇병아리 통계 이등병이다. 처음 발령 후 나는 사업체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수원사무소 선배님들의 하해와 같은 배려 속에서 한 달간 조사지침서를 숙지하고, 현장조사를 배워가며 업무인계를 받았다.

두 달째부터 배려의 인큐베이터(?)에서 벗어나 혼자 현장조사를 수행하게 됐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크고 걱정도 많이 됐지만, 전임 선배님들이 쌓아놓으신 친분관계 덕분에 응답자 분들은 호의적이었고 이내 자신감도 붙어갈 때 즈음, 서비스업동향조사 대상 사업체 중 어느 인력파견업체에서 난항에 부딪혔다.

이 업체는 업무인계를 받을 때, 선배님으로부터

“여기는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니,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되 너무 잦은 방문을 하지는 마. 그리고, 사장이 통계청 조사에 응하는 것을 탐탁찮게 여기니, 경리 보는 아가씨와 통화해서 자료를 얻으면 될거야.” 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전화조사를 시도했다.

나 : 여보세요. 통계청 수원사무소 김춘동입니다. 000씨 계신가요?

대리 : 없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중간관리자 쪽으로 보았다.)

나 : 매월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관련해서 조사자료 제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월자료 여쭙고자 전화 드렸습니다.

대리 : 통계청 무슨 조사요? (하이톤의 반문)

사장 : 뭐?! 통계청? 이리로 전화 바꿔봐 (이런... 사장이었다.) 당신네들 하는 그거 뭐하려고 계속 조사하는 거야? 세금 내면 세금이나 받아먹지, 왜 이런 조사해서 사람 귀찮게 해?? 뭐 표본 어찌구 그러는데, 왜 우리 업체가 표본이 돼야해?! 다른 업체도 많잖아!

나 : 사장님. 진정하시구요, 제공해주시는 자료는 우리나라 매월 전체 서비스업 동향파악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업체가 표본으로 선정되신 이유는 월매출액과 종사자수와 같은 특성치를 감안하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고려해서 선정된 겁니다.

사장 : 우리 말고 다른 데 해도 되잖아?! 그리고, 이거 법적 근거 있는 거야? 너희가 해달라고 하면 내가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거냐구!!

나 : 통계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근거를 내세워 강제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왜곡된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정확한 자료가 나오는 것을 저희 또한 바라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장 : 아.. 씨X 짜증나네. 너네 XXX들 이런 조사해서 정부정책 편다느니 이딴 소리 많이 하는데 우리 회사에 도움하나도 안돼!!”

당황스러웠다. 육두문자가 등장했다. 감정 섞여 날아오는 언어폭력에 나는 논리로 이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는 오기도 발동했다.

나 : 사장님!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가 하나의 기업에 혜택을 주기위한 조사가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의 자료가 모여서 전체를 대표하는 자료가 나오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정부정책이 시행되는 겁니다. 거시적인 관

점에서 공익을 위해 협조해 주신다고 생각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통계의 필요성에 대해 최대한 설명했다.

사장 : 아~ 다 필요 없고, 너네 공무원 XX들 조사하는 게 한두 개야? 앞으로 조사고 뭐고, 이제부터 안 해줄 테니 그런 줄 알아!!

나 : 사장님, 저희 조사는….

“딸깍”

나 : “사장님? 사장님? (끊어버렸다!)

하아~, 한숨이 나왔다. ‘어찌지? 직접 찾아가야 하나?’ 일단 난 전임 선배님께 찾아가 현황을 말씀드렸다.

A선배 : 사장이 받았어? 하하하!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전화하면 안돼~!

나 :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

A선배 : ㅋㅋ, 이제야 조사현실과 마주하게 되는구나. 우선은 지금 또 연락해 봐야 격해지기만 하니까, 내일 다시 전화해 봐. 다른 시간에..

선배님 말씀대로 그 다음날 선배님께서 추천해주신 시간에 전화를 시도했다. 분명, 노심초사하며 추천해주신 시간에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사장이 직접 받았다.

사장 : 여보세요! (특명스러운 말투, ‘건들지마라’는 느낌을 목소리만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나 : 사장님! 통계청 수원사무소 김춘동입니다.

사장 : 이 새X가 귀꾸멍이 막혔나? 어제 얘기는 XXX로 들었냐? 안 해준다 했지? 전화하지마! (예상한 반응이다.)

나 : 저, 사장… “딸깍.” …님 (또 끊었다. 호명이 끝나기도 전에)

어찌지? 사장이 이런 식이면 앞으로 경리아가씨를 통해서 자료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장과 담판을 지어야겠다! 찾아갈까?

이 정도 강경태도면 찾아갔을 때 감정만 더 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몇 분후 다시 전화버튼을 눌렀다.

나 : 여보세요? (이번에는 대리였다.)

사장님 계신가요? 사장님 좀 바꿔주세요.(신분을 밝히면 또 끊어버릴
까 싶어 얼렁뚱땅 수화명을 밝히지 않았다.)

대리 : 잠시만요~(우선 성공했다.)

사장 : 여보세요?

나 : 사장님 통계청 김춘동입니다.

사장 : 이 XX가 또... 최대리! 아무나 전화 돌려? 너 말 못 알아 들어?

나 : 사장님, 5분만 통화하시죠. 이후에는 전화 안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
다.) 사장님! 물론 사장님 한 회사의 자료가 전체의 결과치에 반영되
는 정도는 미미합니다. 정부정책도 전체결과를 바탕으로 아우를 수 있
는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개개의 회사들이 느끼는 정책체감도도 떨
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이 모여서 다수의 의견이 되는
것처럼 소수의 데이터가 모여서 전체 통계치가 산출됩니다. 사장님 회
사의 자료는 표본으로 선정되지 않은 다른 작은 영세업체들의 자료를
대표합니다. 사장님께서 조사협조를 거부하시면, 사장님 회사와 비슷
한 회사들의 자료는 결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이 바라시는 정
부정책 또한 나올 여지조차 없어집니다. 표본으로 선정되지 않은 회사
의 대표한다고 생각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어제 말씀
드렸드시피, 통계청 보도자료를 활용해보세요. 사장님께서 협조해주
시는 자료의 결과치를 확인하실 수 있고, 경기동향 파악에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회사경영에 시야도 더 넓어지실 테고요.

사장 :

나 :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사장님께서 정
확한 자료를 제공해주실수록 통계자료가 더 신뢰가 가실 겁니다.

사장 : …….

사장 : 말은 청산유수네. 그럼 그 결과자료는 매달 알려주는거요?

나 : 네, 사장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매달 제가 경제관련 통계청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장 : 잠깐 기다리쇼. 000 씨 전화 좀 받아봐.

… 성공했다! 정공법으로…. 뭔가 이뤄냈다는 사실이 뿌듯함으로 다가왔다. 아직은 두고 봐야겠지만, 그 이후 두 달간 조사는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식의 문제였다. 통계조사를 나와 상관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단지 나에게서는 귀찮은 일쯤으로 치부해버리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역으로 귀찮음보다 통계의 효용이 더 크다는 국민들의 인식만 바뀌면 지금보다 좋은 조사환경이 될 것이고,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테니 희망을 가져본다.

얼마 전 청장님께서 1대100 TV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통계조사의 중요성을 홍보하신 것처럼, 나도 내 위치에서 내 주변 사람들부터 홍보를 해야겠다. 입소문만큼 더 좋은 홍보효과는 없으니까….

전화 답판(?)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이번에는 의왕시의 C아파트관리사무소가 응답을 거부했다. 매월 골칫거리가 한군데씩 생기는 것이 꼭 월례행사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조사하는 관리비는 인터넷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올리고 있으니 그 수치로 확인하고 종사자수는 매월 같고, 영업일수도 쉬는 날 없으니 그렇게 조사를 하고 앞으로는 찾아오지 말라는 것이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타 기관 조사를 윗사람에게 허락도 안 받고 조사를 해줬다고 한소리 들은 눈치였다. 나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하게 되면 제가 조사내용을 지레짐작으로 조사하는 것이 되고, 이는 허위조사인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어떤 기관의 조사도 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다음

날 자양강장제 한 박스를 사들고 또다시 찾아갔다. 사무실에는 한 여성분만 앉아 계실뿐 다른 분은 보이지 않았다.

나 :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왔습니다. 000 씨 계신가요?

여 : (짜려보는 눈빛이 눈에서 광선이라도 나올 기세) 전데요. 왜 또 오셨나요? 말씀 다 드렸잖아요.

나 : 선생님 입장, 기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원래 해오시던 거니까 저희 조사에는 계속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 : 아닙니다. 이제 안합니다. 피해 안드리잖아요! 조사자료는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해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 : 선생님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종업원 수, 영업일수라도 매월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 : 아~ 왜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정말?!!! 계속 이러실 거예요? 가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화가 머리끝까지 차 있는 것 같았다.

1분간 정적이 흘렀다.

나 : 선생님 진정하시구요,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견 사온 거니까 놓고 가겠습니다.

여 : (박스를 밀치며) 아닙니다. 가져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이런거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나 : 아닙니다. 선생님 드릴려고 사온거니까 그냥 놓고 가겠습니다.

여 : (신경질적으로) 가져가세웁! 정말! (더 말을 시켰다간 박카스 병이 날아올 것 같았다.)

박카스 박스를 들고 돌아섰다. 나와서 담배 한대를 빼어 물었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이 직장을 다녀야 하나’ 하는 회의가 왔다.

푸념도 잠시,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다른 대상처를 찾았다. 근방에 다른 아파

트 관리사무소였다. 응답자는 없었고, 푸근한 인상에 관리소장이 있었다.

나 :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왔습니다. OOO 선생님을 만나 보러 왔는데, 안 계신가 보네요. 매일 서비스업동향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무척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장 : 어서오세요. 이리로 좀 앉으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시원한 것 한잔 드릴게요.

나 : 아, 네.. 감사합니다.

소장 : (시원한 음료를 내주며) 날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나 : 아닙니다. 이건 제 명함이고요. 이건 제가 드리려고 사온 건데.. (양심에 찢렸지만, 아까 그 자양강장제를 건넸다.)

소장 : 아휴~ 뭘 또 이런걸 다.. 고마워요. 잘 마실게요. 주무관님이신가요? 인상도 참 좋으시고, 결혼은 했어요?

나 : 아뇨. 아직..

소장 : 직장도 좋으시고!!! 인상도 좋으신데!!!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하셨을까? 곧 생기겠죠!!!

나 : 아..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도 인상이 참 좋으세요.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좀 전에 있었던 C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서 문전 박대 당한 얘기가 자연스레 나왔다.

나 : 여기 오기전에 모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갔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소장 : 저런... 아마 일시적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본인도 아마 지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며칠 후에 다시 한번 연락 해보세요.

나 : 네, (순간, 근방이기도 하고 혹시나 아시는 분이실까 싶어) C아파트관리사무소 OOO 분인데, 혹시 아시나요?

소장 : 누구요? 000? 아 잘 알아요. 예전에 나랑 같이 일하던 애인데, 개가 왜 그랬지? 나랑 친해요, 내가 얘기해 줄게요. 가만있어보자 개 전화번호가….

통화 시작...(땀다!!! 마음속에서 팡파르가 울렸다.)

응답자는 설득 됐다. (쾌재...)

이번 달도 호의적인 목소리와 함께 조사 자료가 들어왔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갈수록 업무에 있어 내 영역이 확고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물론, 실패한 사례도 있다.

건설경기동향조사 대상처 한 곳은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내부감원으로 인해 응답자가 업무인계 없이 퇴사했다. 바뀐 응답자와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4인 부서에서 감원으로 인해 과장 한명이 남은 상황이었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상황에서 조사에 협조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안내데스크를 거치지 않으면 출입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불응설득을 위해 팀장님과 동행 뿐 아니라, 소장님과도 동행출장을 다녀왔다. 하지만, 번번이 자리에 없다는 핑계로 안내데스크에서 돌려보내졌다. 만남 뿐 아니라 통화자체를 거부했다. 소장님, 팀장님께도 만남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죄송스러울 따름이었다. 협조 공문과 함께 메모를 우편물 수령처에 맡겨놓고, 어쩔 도리 없이 돌아섰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소장님께서

“춘동씨, 자필 연애편지를 써봐! 절절하게, 응? 뭐 그런 거 있잖아. 이 힘든 세상에 제가 이렇게 어렵게 취업이 돼서…. 형님 제발 부탁드린다. 이런 거”

‘헉! 자필편지!?!? 민망하다. 이렇게까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D건설사는 불응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수단으로 자필편지... 써볼까 고민 중이다.

이솝우화 중에 여우와 실포도 이야기처럼 먹어보지도 않고 실포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니까, 써봐? (..... 계속 고민 중이다...)

아직도 불응 응답자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겨우 4개월 남짓한 조사경력일 뿐인데, 정말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되는 것 같다. 발령 첫 달에 박승수 소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다.

‘아직도 열악한 조사환경이지만, 예전에는 더 형편없었어, 조사자료를 수기로 기입하고, 수기로 취합해. 먹고살기 바빠서 통계? 그거 왜하는지... 그런 식이었지... 국민들의 인식? 전혀 없어! 그래도 지금은 예전보다 나아진 거야. 요즘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우리사무소에서도 통계홍보에 피치를 올리고 있다. 나 같은 초년병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홍보라고 생각한다.

나의 공직생활은 30년 정도가 남아 있다. 30년 후 2042년, 이날이 오기는 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만큼 너무나도 생소한 숫자다. 하지만, 그 때가 되면, 나에게도 많은 후배들이 있을 것이고, 후배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아련하게 추억하며 얘기해 줄 날이 왔을 때, 후배들이 “정말요? 말도 안 돼! 통계는 국민 생활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1세기에 국민들의 통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낮았던 말이에요?” 라고 하는 반문을 기대하며 조금씩 조금씩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조사환경 또한 비옥해지길 기대해본다.

통계가 ‘미래로 통하는 빛’이라면,

통계청이 밝고 넓은 채광 좋은 창이 될 수 있도록

통계청 직원 모두모두 파이팅!!

Pig Woman

장려상

장순원 |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



“사장님! 오늘 어디서 만날까요?”

“에버랜드 입구에 있는 00갈비집 알죠?”

“네, 알아요.”

“거기로 갈테니 거기서 봅시다.”

“네.”

전화를 끊고 나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출발이 늦어져 급한 마음으로 고속도로를 향해 차를 몰았다. 연휴 전날이라 그런지 에버랜드로 가는 길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밀리고 있었다. 차가 밀리자 차창 밖으로 보이는 숲털같이 하얀 뭉게구름으로 눈길이 갓고 순간, 내가 처음으로 포곡을 갔을 때가 떠올랐다.

2010년 7월 5일, 업무를 인계해주는 언니와 함께 포곡을 갔을 때, 난 속으로 깜짝 놀랐다. 에버랜드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화려한 놀이공원인

데 그 뒤편으로 오니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였다.

그곳은 ‘잔반’을 먹여 돼지를 키우는 농장들이 모여 있는 동네였다. 잔밥을 먹인 돼지는 사료를 먹여 키우는 돼지보다 냄새가 많이 나서 마을 입구로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코를 틀어막았다. 그 중에서도 유독 지저분한 축사에 도착하더니 차에서 내리라 한다. 헉...

“오늘은 계신가 모르겠네...사장님 계세요?” 앞서가던 언니가 큰소리로 불러봤지만 사방이 조용했다.

“사장님!” 언니가 한참을 소리쳐 사장님을 찾고 나서야 안에서 허름한 차림의 여자 분이 나왔다.

“안녕하세요?”하고 언니가 정중히 인사를 하자 사장님은 언니를 향해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꾸뻑하더니 나를 보면서도는 누군가 하는 표정이다.

“네... 바쁘는데 왜 왔어요?”

“아이, 사장님두...왜 오긴요, 사장님 뵈려고 왔죠!”

“아참, 사장님! 오늘부터 이 직원이 맡을 거예요. 저한테 하셨듯이 하시지 말고 잘해 주세요.” 하며 언니가 날 소개한다. 그 분은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으로 “뭘 물어보게요?” 짧게 말하더니 하던 일을 하러 가시려고 하신다.

그녀의 이름은 ‘조순희’. 나와 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여자가 경영주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녀의 남편은 냄새가 싫다고 농장에는 얼씬도 안했고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직접 농장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여자의 몸으로 돼지들 밥을 먹이고 똥을 치우고 축사수리며 온갖 일을 해야 하니 그 고단함이야 오죽했겠는가. 가뜰이나 힘든 상황에 어려운 일을 더 하는 셈이니 우리가 반갑지 않은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농가 경제의 어르신은 내가 안 오면 서운하다고 하시는데 이곳은 완전히 반대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 포곡의 느낌은 너무 차가웠다. ‘이분과 친해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

“사장님! 포곡을 지나는데 점심시간이네요. 저 밥 좀 주세요.”

인근을 지나다 일부러 들리기도 했고 음료수도 사가고 밥도 얻어먹기도 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속내를 얘기하고 세상사는 이야기로 다가가던 어느 날, 그녀가 살짝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

“우리 집에 올 때는 꼭 전화를 하고 오세요. 내가 전에 언니는 잘 안 만나줘서 미안했는데 자기는 될 수 있으면 만나야지” 얼마나 기쁘던지... 그 날 이후 우리는 인생이야기를 허물없이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인가 그녀가 해맑은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자기야,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서 커피를 마셔도 되겠어!”

“왜요?”

“아, 다음 달에 컨테이너 하나 놓아 내 쉼터로 만들려고”

“어머! 좋아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사실상 다른 축비농가에서는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했는데, 여기는 앉을 곳도 없이 달려드는 파리 쫓는데 정신이 없었다.

이제, “파리여 안녕!” 하시며 나를 대접한다는 생각에 사장님의 표정이 나보다 더욱 밝아지셨다.

작은 컨테이너의 행복! 사람들은 큰 것에는 감사하지만 작은 것은 그냥 지나칠 때가 많다. 그러나 이분한테는 이 작은 컨테이너가 천국이였다.

“들어와, 뭐 마실려?”

커피, 녹차, 홍차, 드링크 등을 내놓으시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네! 커피 한잔 주세요. 근데, 아담하니 너무 좋네요”

“그렇지? 나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커피마시며 조사에 응하니 편하구! 항상 밖에서 자기를 마당에 세워놓고 답변할 때마다 미안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대접할 수 있겠어” 그녀가 활짝 웃었다.

사실 내가 축산물 생산비를 담당하고 제일 어려운 것이 농기계였다. 그녀는

고맙게도 “순원씨는 여자인데 기계를 잘 아나?” 하더니 자동 급이 장치며 잔반교반기, 고압세척기, 사료배합기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여기는 업자가 준 잔반을 받는 곳이고 이 모터를 이용해서 잔반을 이동시켜 돼지들에게 먹이는 것인데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 잔반을 받아서 소화제 등을 넣어 돼지가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는 “잘 모르면 자꾸 물어봐요”하며 상냥하게 웃어 주었다. 순간 처음 만난 날 그녀의 무표정이 떠올랐고 나도 모르게 웃음보가 터졌다.

“그런데요 왜 돼지가 다른 농가보다 많이 죽어요?”

“아마도 내가 돼지를 직접 고르는 게 아니라서 부실한 놈들을 가져다 주나 봐. 외국인 근로자 관리부터 온갖 농장 일을 혼자 다 하다 보니 힘이 들어서 그냥 새끼돼지를 배달해 달라 했거든.”

“남편 분이 안도와 주나요?”

“아 그 양반은 여기 잘 안와. 자기 일이 바쁘기도 하고 냄새도 싫다네. 뭐... 내가 시작한 일인데 남편한테 강요하면 안 되겠지.”

“나 초라하지?” 갑자기 나온 그녀의 말에 나는 내심 당황했다.

“아니에요!! 세상에 여자 혼자서 돼지 키우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전 처음 보는데 대단 하신 것 같아요.”

“하긴 포곡에도 없어.”라면서 금새 씩씩하게 웃어 주었다.

“아니! 어떻게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녀를 꼭 껴안았다. 우환은 오는 사람한테만 온다고 누가 그러더니 그녀의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고 단결음에 달려갔다.

“비밀이 어디 있어요. 포곡동네가 다 아는 유명하신 분이데.....”

“너무 갑자기 닥친 일이라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말을 못했지.”

“그래도 나한테는 연락 하셔야지 장례식장에도 못 갔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따로 만나잖아”하며 살짝 웃는가 했더니 이내 긴 한숨을 내

된다.

“날 안도와 줄 때는 조금 밍기도 했어. 그런데 막상 안계시니 남편의 울타리가 무척 단단했구나 싶네”

“아니 왜요?”

“남들 보는 눈도 있고,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것 같네. 남편한테 잘해줘”

축사가 낡아서 수리하려고 모처럼 아들하고 남편이 도와주고 나서 외출했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보니 싸늘한 시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프다고 한번 안하고 잔소리 한번 안하고 항상 자기를 100% 믿어주던 남편이 갑자기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신다.

무엇보다 후회가 되는 건 얼마 전 자신을 도와 준다고 용접을 하다 실수로 불뚱이 튀어 보온 덮개에 떨어져 화재가 나 물질적인 손해와 돼지 손실이 있어 자신도 모르게 책망을 하며 잔소리를 했던게 후회스럽다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신다.

“사장님 힘내세요. 사장님은 여장부잖아요.” 나는 불끈 쥐 주먹을 내밀었다.

“포곡의 돼지 키우는 여사장 pig woman 이잖아요?”

하자 눈물을 닦으시며 “그래! 내가 울면 조순희가 아니지” 하신다. 약해지지 않기로 나랑 새끼손가락 걸며 약속을 했다.

“다음에는 제가 맛있는 점심 사드릴게요.”

“꼭 약속 지켜!” 하시며 다시 한 번 손가락을 내미신다.

오늘은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는 날이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약속한 식당에 도착하니 다행해 내가 먼저 온 모양이다. 안으로 들어가 조금 있자 낮익은 트럭이 들어오고 그녀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인다. 내가 그녀에게 손을 흔들며 씩씩한 목소리로 “pig woman!!”하고 외치자 그녀는 창피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온다.

올해는 그동안 정들었던 포곡의 축산농가와의 인연이 끝나게 된다. 3개월 후

면 내 통계청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같이 한곳으로 남는다고 생각하니 나의 위대한 여인 ‘pig woman’과 만남에 더욱 더 감사하게 된다.

표본대체로 바뀌는 새로운 인연도 이분처럼 산소같이 보이지 않게 통계조사에 꼭 필요한 분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 때나 커피주세요. 하고 불쑥 찾아갈거예요.”

“커피는 사가지고 와.”

“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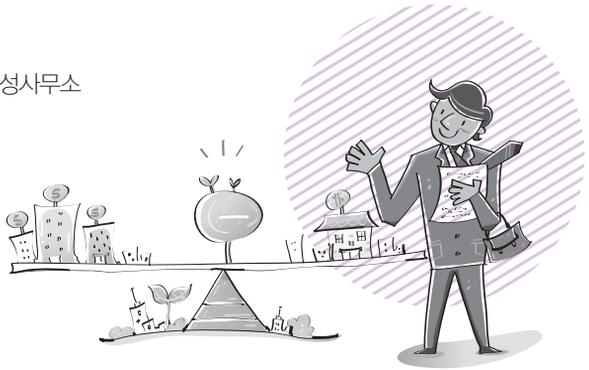
그녀의 수줍은 웃음소리가 그리워 질 것 같다.

힘내세요! pig woman.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과 다른 일을 하지만 한 여인으로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통계는 부메랑

장려상

조미영 | 경인지방통계청 화성사무소



통계는 부메랑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면서 통계와의 첫 인연을 맺게되어 화성사무소 농업팀의 새내기 조사원이 되었다.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이 정감이 있어 농업팀에 지원했고 맑은 공기 마시며 도심을 벗어나 출장을 다니니 일을 하러가는게 아니라 꼭 놀러가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신랑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만 맑은 공기 먹고 일해서 어떡하지!~”

이 말속에는 미안한 마음보다는 사랑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조사를 해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 조사해야할 쪼소 농가를 인수받으러 전임자와 같이 갔을 때는 대답을 잘 해주시더니 혼자 가니까 매일 바쁘다며 대답을 피하셨고 무언가 불만이 많이 있으신 듯 했다. 부채와 이자를 여쭙었더니 지금까지 한 것도 몇 년 했으니 이제 그만 하겠다고 하신다. 조사가 처음도 아닌 몇 년간 조사에 응하던 농가가 조사원이 바뀌다보

니 대답하기가 싫으신지 전임자 이야기만 늘어놓으시다.

한마디로 사장님(조사응답자)은 정부에 불만이 많으신 분이였다. 하루는 사장님을 설득해서 조사할 때 잘 말해주는 분으로 바뀌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따라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는 것 같았다.

“사장님은 젓소 농가를 대표해서 축산물생산비 조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화성을 대표하고, 나아가서 경기도를 대표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젓소 농가를 대표하시는 거라 정말 중요한 조사거든요.” 했더니 그래서 더 하기 싫으시란다.

그 많은 농가 중에 왜 나냐고 하셨다.

조사원이 바뀌다보니 사장님도 편하지는 않으신가 보다. 지금까지는 잘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찾아갔을 때 이번엔야 말로 꼭 설득해보자하는 마음에 신문에서 보았던 기사를 말씀드렸다. “1999년 한일어업협정을 할 때 어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할까봐 어획량을 속이고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아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와 어민들의 주장이 무려 10배가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에는 우리 어민이 잡을 수 있는 어획 할당량이 30%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한 통계가 없고 일본은 자기 나라뿐 아니라 우리의 어획량에 대한 더 자세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는 일본의 주장대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젓소 낙농 농가를 대표하는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고 열변을 토해도 사장님은 꿈쩍도 않으셨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찾아갔지만 갈 때 마다 안하고 싶다는 말씀만 하셨다.

그렇게 설득하던 어느 날 젓소농가 사장님이 우유 협상에 다녀오셨다며 통계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조사에 잘 응해주시겠다고. 이유는 사장

님이 젓소 농가를 대표해서 우유 가격 협상에 가셨는데 상대방에서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나와 우유 가격을 협상하려해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결렬되었단다. 또 협상을 하러 가야 되는데 걱정이 많으신 듯 얼굴표정이 밝지가 않으셨다. 젓소 농가에서는 힘들게 생산한 우유를 그냥 버렸고 우유가격 협상은 시간이 좀 걸릴 듯 하더니 다행스럽게도 해결점을 찾았다. 하지만 사장님은 원하시는 가격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하시며 씩씩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 다음부터는 웃으시며 “통계는 협조를 잘해주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하면 안된다니까~” 하시며 부채며 이자 얘기를 너무 자세히 잘 말씀 해주신다.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분이셨는데 이번 협상을 계기로 사장님은 통계의 중요성을 너무도 절실하게 느끼신 듯하다.

많은 한우, 젓소, 돼지, 닭을 기르는 농가에서 통계조사에 잘 응해주지 않으면 그 피해가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말해달라고 오히려 사장님께서 나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조사 농가와 정이 들어가는데 축산물생산비 표본 기간 5년이 다되어 조사대상 농가를 바꿔야하는 시기가 다되어 간다. 사장님과 대화의 문을 연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아쉽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나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에게 당부하신 통계는 부메랑이라는 이야기이다. 사장님께서 당부하셨던 이 말씀을 다른 농가에 가서 꼭 전해야겠다. 통계의 중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두 번째 자료를 주신 것이다.

송아지가 만원이예요

추적추적 비가 내린다. 가축동향 조사가 시작 되었다. 방송에서는 갓 태어난 송아지 가격이 만원이라고 뉴스를 하고 있다.

“소 가격이 좋지 않아 농가에 가면 좋은 소리 못들을 텐데...”하며 걱정하시

는 주무관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나또한 기운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걱정은 뒤로하고 새내기답게 씩씩하게 출발하여 젓소 농가로 향했다. 도착한 농가는 평소에 사장님이 잘 계시지 않던 곳이다. 그날은 다행스럽게도 축사에서 용접을 하고 계셨다.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가족조사 하러 왔다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하던 일에 열중이시다. 내가 온 것이 맘에 들지 않으신가 보다. 일이 끝나기를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사장님께서 “뭐하러 왔냐”며 이력제 신고 다했는데 쓸데없는 곳에 세금낭비 한다고 투덜투덜 하신다.

그래도 나는 “착유는 몇 마리예요?” 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3개월동안 태어난 송아지는 암, 수 모두 몇 마리예요?” “18마리.”, “폐사는요? “17마리.” 나는 폐사가 왜 이리 많지?’ 생각하며 궁금해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답을 듣는 순간 곧 후회하고 말았다. 방송에서는 송아지를 만원이라고 하는데 숫 송아지는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오히려 운반비용을 더 달라고 한단다. 운반비를 주면서 팔기는 속상하고 키우자니 사료 값이 올라 키울수록 손해란다. 그래서 송아지가 태어나면 덮어주지도 않고 일부러 관리를 소홀히 하여 얼어 죽게 놔둔단다.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일부러 송아지를 얼어 죽게 한다는 말에 가슴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여러 농가를 다녔어도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어서 더욱 충격으로 느껴졌다.

나는 여자이고 또한 엄마이다. 아기를 낳는 고통과 임신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잘 알고 있다. 엄마소를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아팠다. 또한 그 추위에 얼어 죽은 송아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은 사치였다.

“자식 같은 송아지를 오죽하면 그랬겠냐” 며 더 역정을 내시는 사장님.....

정부에 대한 불만을 하염없이 듣고서야 다음 농가로 향할 수 있었다.

농협상품권

오늘은 팀장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 이유는 이렇다. 표본 조사구에 답례품으로 농협상품권(5,000원)이 나왔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마을 입구에 차를 세우고 요도를 확인하여 집집마다 조사를 하였다.

“계세요? 계세요?” 소리 높여 누가 계신지를 확인하는데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어른신이 바지를 올리며 나오신다. 웬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빨리 마치고 답례품을 드리고 대문을 나섰다.

그런데 느낌이 좀 이상하여 뒤를 돌아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는 것이었다. 방금 전 그 어른신이 바로 뒤에 서있는 것이 아닌가 하마터면 얼굴이 맞닿을 뻔 했다. 그래도 침착하게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는데 아차 하는 생각에 뒷주머니를 만져보니 넣고 있던 상품권 2개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그 어른신을 오토바이를 타고 멀리 가시고 나는 뛰어가며 다른 택 드려야 된다고 소리 질렀지만 마치 어린아이 약 올리듯이 힐끔 힐끔 뒤를 돌아보며 나 잡아 봐라 하면서 멀리 사라지셨다.

난 너무나 황당하여 팀장님께 말씀드렸고 그 후로 이 지역은 항시 팀장님과 함께 나온다. 나중에 안 이야기로는 그 분은 치매가 걸려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신단다. 그리고 팀장님께서 면담을 하시는 중에도 자꾸 돈을 달라고 하며 상품권은 자기가 절대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셨단다.

우여곡절 끝에 상품권은 돌려받았는데 마음이 조금 아팠다.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어른신 용돈 드렸다 생각하고 내가 상품권 사서 대체할 걸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이미 늦어 버렸다.

긴급 출동

우정읍은 예전에는 바닷가였다. 그래서인지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곳에 데려

다 주곤 한다. 지난겨울 팀장님과 전수농가에 갔을 때였다.

농가 사장님은 분노처리를 하느라 트랙터에서 내려오지 않으신다.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 하는 수 없이 다음을 기약하며 다른 집으로 가려고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얼마를 왔을 때였다. 분명 앞은 논인데 내비게이션은 길이라고 앞으로 가란다. 앞을 아무리 봐도 길은 없다. 뒤로 후진하기에는 길옆이 바로 논두렁인지라 자신이 없어 앞에 넓은 논에 들어가서 차를 돌리려 하는데 앞바퀴가 땅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

눈이 오고 얼어서 논바닥이 딱딱한 줄 알았는데 날씨가 풀려 얼었던 땅이 녹았나 보다. 큰일이다. 바퀴는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는다. 팀장님께서는 마을에 가보겠다며 가셨다. 어찌해야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시골에 가면 렉카차도 못꺼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더욱 당황스러웠다. 이때 문득 방금 전 분노처리 하시던 농가 사장님이 생각났다. 전화를 해보니 다행히도 받아 주신다. 상황을 이야기 했더니 어디냐고 물으신다. 허허벌판에 건물도 없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 사장님 댁에서 얼마를 직진해서 좌회전, 우회전 하면...이라고만 설명하니 알았다고 전화를 끊으셨다.

팀장님도 안계시고, 알았다는 사장님도 안오시고... 얼마가 지났을까 멀리서 반가운 트랙터 소리와 함께 팀장님과 농가 사장님이 오신다.

망망대해에서 구조선을 만난 듯 너무나 반가웠다. 조난자는 망망대해에서 잘 구출 되었다. “감사합니다”를 여러 번 외치고 돌아서려는데 소 마리수를 알려주시며 지금 조사하라고 하신다. 난 뭘 듯이 기뻐다. 조금 전에 일하시느라 눈길도 주지 않으실 때는 원망스러웠는데 이렇게 착하고 고마운 사장님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조사표의 비고란에 이렇게 적었다. ‘트랙터로 나를 구해주신 고마운 분’.

조사를 마치고 팀장님과 나는 무사히 사무실로 올 수 있었다. 이제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다닐 수 있다. 나는 안 먹던 우유도 사무실에서 매

일 먹고 한우고기가 비싸서 수입산을 먹었는데 지금은 비싸도 한우를 사먹는다. 축산농가 사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이다.

통계조사를 임하는 나의 다짐

끝으로 “통계는 부메랑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 농가에서 통계조사에 잘 응해주지 않으면 그 피해가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말해달라고 당부하시던 축산농가 사장님의 말씀처럼 말이다.

농민들은 정부 정책을 세우는데 통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지 알아야하고 정부는 정책을 잘 세워서 농민들이 정부를 불신하지 않고 앞장서서 통계조사에 잘 협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 또한 성실함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확한 통계자료로 우유가격 협상할 때 농가에서 원하는 가격에 협상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한우의 가격이 떨어질 때 송아지를 얼어 죽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설득은 현장조사의 종합예술

장려상

김은경 | 동북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



초보 임시조사원을 거쳐 경상조사원까지....

우리는 매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다. 2009년 우연한 기회에 통계조사라는 선택을 한 이후 4년간은 내인생의 어떤 시기보다도 값진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처음 임시조사원으로 시작! 그 후 조사관리자, 수시기간제, 경상조사원! 이것이 내가 밟아온 4년이란 시간이다. 줄곧 사업체 조사를 하면서, 삶의 치열한 경제현장을 지켜 보면서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더 넓어졌고, 삶에 대한 겸손함이 생긴 것도 같다. 조사하면서 만난 모든 분들이 나의 현재의 모습이고 미래의 모습일거라는 생각도 해본다.

서울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1990년대 중반. 당시 근무하던 사무실과 멀지않은 곳에 위치한 강남구 역삼동 한국타이어빌딩내의 『통계청』 간판! 조사 통계국에서 매년 우편으로 보내오던 사업체조사표를 까칠한 내 성격만큼이나 정확하고 빈틈없이 작성하여 회신봉투에 넣어 보내주곤 했던 기억이 슬며시

떠오른다. 평생직장이 될 줄 알았던 곳을 그만두며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대구에 정착한 이후 사연 많은 내 삶에 세아이(딸, 딸, 아들) 낳고 살림하며 10여년이 훌쩍~흐른 어느 해. 또다시 통계청 아니 정확히 동북지방통계청에서 2009년 경제통계통합조사 ‘임시조사원’으로 통계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열심히 해보겠다 의욕

2005년 인구조사 때도 무경험자라서 탈락하고 그 후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통계 조사원 양성과정 교육을 받고도 셋째임신으로 참여할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아 아쉬워하던 찰나에 얻은 기회라 더욱더 일에 열중할 수 있었다.

구청과 달리 통계청의 장점은 신규조사원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이 있었다. 경험없는 초보는 힘들 거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다르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조사시작! 어눌한 말투의 조사협조 요청, 응답자의 비협조에 매순간마다 당황하는 순진함, 무시하는 말투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내 자존심 등 그야말로 좌충우돌이었다. 그저 막연히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잘 응답해주겠지 하는 기대와 환상이 깨어지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2010.5월 초보딱지 탈출! ‘조사관리자’가 되었다.

동북청에서 저의 성실성을 높게 평가하여 경제통합조사 관리자를 권유하였으나, 나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여 여러번 고사를 거듭하다가 한편으로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또 다른 일을 배울 수 있다는 열정에서 수락하였다.

아직도 초보인 내가 8명이라는 조사원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다. 우선 나부터 정확히 알아야 조사원에게 도움을 주던지 조언을 해주지! 라는 생각으로 사이버 교육에 지침서를 수도 없이 읽고 지침서 목록마다 찾기 쉽게 견출지를 붙여가며 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

팀원 8명중 7명이 신규조사원이 우리 8조. 나는 지지리도 운도 없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 부딪혀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우선, 나의 경험상 현장을 모르는 신규자에게 무조건적인 지침서 교육은 무리인 것 같아서 현장조사시 실제 겪었던 경험, 대응사례, 불응설득 요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해 주었다.

출근 첫날인 6월 7일 월요일. 출근 전쟁을 치르면서 성서 IC 신천대로 진입 중 따르릉 아침부터 웬 전화!! 조사원 이정희 씨다. 전화기 속에 들려오는 “저 조사 못하겠어요. 우리 동네도 아니고, 친구들은 다 집근처 칠곡 받았는데...” “이정희 씨 주소대로 업무분장을 하였는데 왜 그러세요?” 조사 대상업체 위치도 모르고 무작정 못하겠다는.. 포기도 당당하게 선언하는 말투에...다시 조사원을 뽑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전쟁같은 월요일 출근길에서 어떻게 사무실까지 도착했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

조사표 갖고 들어오라는 말로써 매듭짓고, 사무실에 오면 다시 설득해 볼 요량이었다. 사실 정희 씨가 맡은 지역은 작년 내가 처음통합조사 때 맡은 지역이었다. 한번 시작한 일 하다 보면 자신감도 붙고, 잘 하도록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설득을 하였다.

우선 내가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안내도 구하고, 위치파악을 한 후에 한 3일은 동행해서 조사하며 요령을 가르쳐 주었더니, 나중에는 정말 고맙다며, 언니 아니었으면 포기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또한 보람이었다. 처음 관리자라는 자리에 서다보니 본의 아니게 실수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지침서 공부에 현장경험도 알려 주곤 했지만 30여일 간의 여정은 그것만으로는 다 되는 건 아니었다.

역시 일보다는 인간관계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다. 사람마다 각각의 성향과 생각이 틀린데, 그 스타일에 맞추어서 일을 원활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조사원은 국가통계 작성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정확하게 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고, 조사관리자 또한 뒷사람이 아니라 조사원을

위해 존재하는 조력자임을 항상 인식하고, 조사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 믿고 신뢰하며, 통계는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자세로 임하고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챙기고 도와주는 자세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난 눈물 많은 초보 관리자가 되었다. 나름대로 30여일 전력질주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해도 각 조사원을 들여다보면 별로 도움을 준 것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은 있었다. 다만, 일말의 아쉬움에 코끝이 찡해지는 건 비단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2011년, 1월 보따리 장사 탈출! '경상조사원'이 되다!

드디어 그동안의 나의 열정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2011년 1월 시도별 지역 지수개발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서비스업동향조사 추가표본 경상조사원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다. 경상조사원의 모든 임시조사원들의 '로망'이기도 하다.

조사원, 조사관리자, 입력 내검요원, 수시기간제..라는 임시직에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상조사원 자리는 우리끼리의 말로는 일명 '보따리장사'라 불리는(조사시작에 짐풀고 조사마치면 짐싼다는 의미) 임시직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직장인답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조사원들이 선호하는 자리다. 또 자리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서 운이 따라야한다는 말을 하곤 한다.

2011년 1월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온 곳은 날씨에 89개의 신표본 업체를 배정받고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진다.

조사내용은 어렵지 않았으나, 모든 환경이 낯설었고,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니 과거보다 모든 면에서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추가표본의 경우 처음으로 통계를 접하는 사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불응 및 비협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독 내 표본에는 공식 회계장부가 없

는 미기장 영세업체가 생각보다 많아서 처음부터 일일이 조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늘 2% 부족한 현장조사의 매력 『불응』

현장조사는 연간, 월간(동향)조사, 가구 사업체 농가 할 것 없이 늘 2% 부족한 불응 비협조가 애물단지이면서도 밀고 당기는 연인 같은 매력이 느껴진다.

시도 때도 없이 무너지는 자존심을 추스르며, 오기를 발동하며 끈질기게 설득하는 과정, 또 언제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 변덕스런 응답자 대응, 상대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등 어찌 보면 설득은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또 하나, 경상조사원으로 생활하면서 변화가 생긴 게 한 가지 있다면 나의 ‘쓰쓰미’가 커졌다는 사실이다. 정확히 말하면 나의 조사대상 업체 물건 팔아주기 및 이용하기다. 월급 몇푼 받는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면 한국사회에서 조사하면서 응답자와의 밀접한 접촉과 인간적인 유대를 쌓는데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다. 파마할텐 이왕이면 조사대상 미용실을 이용하고, 외식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조사대상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장을 볼때도 대상 슈퍼를 이용하고, 그러면서 대화도 자주 하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 같은 것이 쌓이면서 조사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 같다.

구겨진 조사표를 다림질 하면서 『오기』 발동~ 태권도학원 원장

2009년 초보 조사원 시절. 나의 잠재된 오기와 열정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있다. 왜 하필 우리 학원이 표본이며 인근 다른 학원 조사표 원본 보여 달라며 억지에 생떼를 마구 쓰는 태권도학원 젊은 원장!

조사표 한장 한장에 애착이 간
초보조사원시절...



조사내용 비밀보장과 다른업체 자료는 통계법상 보여 줄 수 없단 말에 원장은 조사표를 마구 구겨 휴지통에 던져 버렸다.

통계조사 못 해주니까 다신 오지 말라며 자리에서 나가버린다 순간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눈에 불이 번쩍 당황스럽고 구겨진 조사표를 꺼내 집어 들고 바보같이 돌아서 나오며 핑 돌던 눈물!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 소리 ..

조사표 한 장 한 장에 흠이라도 생길까 뭐라도 문힐까, 우리 애들 얼씬도 못하게 애지중지 보물처럼 여기는 나의 이상한 성격은 구겨진 조사표를 다림질까지 해가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했다. 절대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방문한 학원. 그런데 원장의 의외의 말 “참 대단하고 끈질기시네요! 여러 기관에서 너무 많은 통계조사에 일일이다 응답하기 귀찮아서 함부로 막대하면 다신 안 오길래 올해도 역시나 그렇게 한 것인데 정말 죄송하네요!” 라며 커피 한잔을 건네는 원장과의 인연은 몇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내가 통계조사에 계속 몸담고 있도록 오기와 열정을 불러 일으키고, 설득의 묘미와 성취감을 난생 처음 일깨준 사건이 되었던 것이다.

응답자와의 소통! SNS가 조사현장에 접목 될 줄이야?

2011년 경상조사원 시절, 나는 업체와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을 위해 카톡 및 카카오토티를 적극 활용하였다.

현재는 스마트폰을 통한 친구관계를 맺은 업체가 약 30개인데, SNS의 장점은 평소의 접촉을 통해 때론 미처 알지 못했던 인사이드, 출장 등 업체근황 관심사를 공유하고 유대를 쌓아 가는데 중요한 연결고리로 활용하고 있다.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대화를 풀어갈 수 있고, 문자보다는 카톡이 응답자와의 친밀한 유대관계 설정에 매우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카톡으로 자료수집
서로에 안부도 챙기며 소통.

한번은 카스에 올린 글에서 일년 이상 조사를 하면서도 몰랐던 학원원장의 암투병중 이야기가 있다. 평소 방문할 때마다 굉장히 귀찮아하고 힘들어 하길래, 나는 원장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나는 원장부인과 친구관계를 맺어 소통하던 중에 부인으로부터 원장의 암투병 소식을 듣게 된다...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했구나, 그제서야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었다. 이 일로 원장부인과 저는 매우 친해져서, 부인은 매월 조사사진 인증샷(나는 통계조사 받는중)을 게시한다.

블특정 다수가 보는 SNS의 이러한 장점은 통계청 인식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하나, 아주 완고하고 깐깐했던 중국집 여사장님. 이분은 1년만 하고는 절대 안 해준다고 협박성 멘트를 수시로 날리곤 했는데, 우연히 카스에 올려진 우리집 세아이를 보면서 같은 세아이 엄마의 입장에서 동질감을 느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주고 상호 대화도 많이 하고 있다.

SNS는 유대강화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시에도 활용성이 높다. '카톡으로 찍어 주고받는 조사표'는 아주 유용하다. 응답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 또 FAX를 활용할 수 없는 재택근무시에는 카톡으로 조사표 사진을 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작업이 가능하다.

카톡 문자에 화려한 이모티콘으로 안부도 챙기면 금상첨화....현장조사모습도 시대와 세대가 변해 감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인다.

제도(우수조사 대상처)를 통한 설득성공, (주) 이테크

불응을 하는 응답자는 여러 유형이 있다. 현장에서는 유형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은 응답자와 조사자와의 끊임없는 줄다리기에 결론이 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피곤한 밀고 당기기보다는 제도를 통

해 설득한 사례도 있다.

(주)이테크는 2011년 상반기 내내 나를 괴롭혔던 대상처였다. 약 2개월간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설득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경리 여직원은 부사장 소관이라며 회피하고, 부사장을 찾아가면 사장한테 말해야 한다하고, 대표자는 법인은 내맘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임원회의 거쳐야한다는... 그리곤 결정되면 연락 준다는 거절작전! 한참을 지나도 연락 없는 답답함에 무조건 부사장 출근시간에 회사입구에서 기다리며 관심을 끌만한 뭔가를 찾았다.

회사 입구에 걸린 국민은행선정 우등기업 표지판이다... 인력공급업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 수주를 주로 하는 업체이기에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인정을 받는다는 이미지도 회사측에선 홍보인 것 같아 동북청의 “우수 조사대상처 선정”이라는 제도를 소개하였다.

우수조사 대상처로 선정이 되면, 상품권 및 감사패 전달과 홈페이지 홍보등을 하게 된다. 나는 부사장에게 우수대상처 선정은 아파트 인력공급을 주로하는 회사특성상 업체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리고 우리 현장조사원의 채용 실태 등 부사장역시도 인력 공급을 다루는 업체인 만큼 관심이 많았다

“제법 대화가 되는것 같은데...” 내심 오늘은 설득의 기회인 것 같아 어느날 보다 더 성실히 설득에 신중을 기했다.

이에 부사장은 흔쾌히 호응하며 적극적인 협조로 전환되었고 그렇게 싸늘히 조사에 불만을 터트리며 늘 커피 한잔 안주던 경리여직윈도 부사장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차 한잔하시라며 생글거린다 ...이게 현장의 현실이다.

우수조사대상처로 선정되고 나니 아파트계약전자입찰에서 2건이나 성사되었다며 싱글벙글! 우수조사대상처선정건을 입찰서류에도 첨부시켜 놓은 자료를 내 앞에 내놓는다 자칭 통계청 홍보 대사로 나설 것이라며 정확하게 성실

하게 일하는 모습이 통계청 이미지라며 얼굴을 부끄럽게 든다.

또하나의 설득노하우가 생긴 것이다. 조사에 잘 협조하면 이런 혜택(업체홍보, 업체 신뢰도 제고)도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우수조사대상처선정
감사패전달

혼신의 노력(인내, 노력, 땀, 정성) 결정체! 보험회사 대리점

처음 조사가 시작되고부터 지금까지도 한 달도 거른 적 없고 수없이 방문하고도 절대 전화조사는 불가능한 곳, 방문하고도 상황에 따라 그림자 취급 받아가면서도 내 혼신을 다 쏟아 붓는 곳, 언제 또 변할지모르는 변덕스러움에 늘 조마조마함으로 노크하는 곳, 만일 업무 재분장으로 사업체가 이리저리 섞인 다해도 내가 지금껏 들인 아까워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수 없는 업체 보험대리점!

첫인상에서 풍기는 『나간깐함』. 처음 방문시 조사목적 설명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린 그런 거 모릅니더”로 일언지하 거절. “매출액은 비밀인데 당신한테 알려줄 필요 없다.”라는 생똥맞은 거절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버렸다. 그래 오늘만 날인가.. 오늘은 여기까지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통계이며 엉터리 통계는 세금낭비이고, 정책불신에 대구 경기바닥, 보험업계 불황으로 인한 대리점 경영악화..... 그 모든 것이 통계청의 책임이고 조사원의 잘못된 것처럼 질책하고 호통 치는데도 들어야만 하는 상황!

대리점직원들 보는 가운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엉거주춤한 내모습이 창피해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내입에선 엉뚱하게도 “대표님 그래도 통계조사는 정확하게 해주셔야합니다.”로 조사의 여지를 남기는 당당한 한마디에 한 달 두 달 세 달.. 차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거머리처럼 딱 붙어 보험영업도 잘할 것 같은데 직업 바꿔 볼 생각 없냐고,

보험 상품 설명 1시간 이상하고 가입권유, 때론 무작정 기다리게 만드는 그림자로...나 역시도 이에 비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방문한다.



설득편지 ..나만의 방문전.등 정성을 다하면 알아줄 거라는 희망에서..

나의 히든카드 마음으로 다가서는 설득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용 들을 편지로도 쓰고 나만의 방문 전 안부메모도 정성껏 작성하여 늘 흔적을 남기기 작전!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면 늘 살얼음판 딛는 심정으로 선다

면역이 생긴 건지 기관 소식지 “동북메아리” 전달하며 대표님 자꾸 비협조적으로 하시면 현장조사 체험사례에 대표님 얘기 쓸 거라며 협박도 해본다.

어느 날 빌딩 1층 로비에서 대상처 보험대리점 김정숙(사모님)을 찾는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보험계약으로 방문한 고객인 듯해서 사무실까지 같이 안내해 드리고 보니 대표님의 표정이 살짝 미소 먼 의외의 반응이다.

어떤 교육예선가 들은 적 있는 방문하는 “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만 잘 해도 분명히 얻는 게 있다.”는 걸 체험한 날이었다.

인간은 원래 변덕스런 동물인가, 이제 이정도면 됐겠지 했지만, 통계조사에서 안심은 금물이다.

3월 어김없이 자료 수집을 위해 방문한 사무실에 분위기가 심상찮다...지난 2월 달도 만나지 못해서 이번 달은 반드시 봐야하는데 하는 조급함이 앞섰다.

좋은 소리 못 듣고 눈시울 붉히며 돌아서곤 하는 뒷모습 일 년 이상 한결 같이 방문하며 노력하는 저에 모습을 지켜본 사모님(사무실에 같이 근무)께서 요즘 저 양반(대표) 심기불편하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는 게 맞을 거 같단 소리에 불안하고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조사라는 놈도 생명이 있어 아는가보다” 그동안 조금은 편해지고 적응됐다

고 긴장 풀고 안심하고 있는 나의 소행을.

돌아가는 길에 1층 로비에서 대표님과 마주쳤다. 꾸벅 인사를 하며 내심 ‘올라가서 차 한 잔하고 자료 받아가요’라는 반응을 기대했는데 이걸 웬걸, 아래 위로 훑어보곤 이젠 방문해도 없으니까 사무실엔 더 이상 오지 말라 한다.

날벼락 같은 반응! 아,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가하는 한숨이 나왔다. 너무도 마음이 쓰리고 착잡하여 다른 업체조사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날 ~ 3월 23일 결국 소리 없이 내리는 보슬비 빗길에 자동차 접촉 사고를 냈다. 불안한 심정에 판 생각하느라 순간 브레이크를 놓친 것이다.

그 이후 내가 하는 일! 내 맘 같지 않은 통계조사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다.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신감까지도 잃게 만들었다. 여리고 감성적이라 눈물도 많고 정도 많지만 그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는 내 맘을 조절하지 못해 한동안 헤매었다. 그러나, 또 오기가 발동하였다.

마냥 다 포기하고 있을 순 없었다. 난 씩씩해야 하는 대한민국 아줌마다! 세 아이 엄마이고 다시처음부터 다시시작하자. 파이팅~

“뚝뚝!”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함 빈사무실이다.

‘결국 폐업 아님 이사(전출)인가?’ 전화조사는 생각도 않는 터라 늘 그렇듯이 무작정 찾아온 업체가 사라졌다 곧장 빌딩 관리사무실로 향했다.

3층에서 2개사무실을 사용하던 것이 영업활동도 안되고 해서 7층 조금 더 넓은 한개 사무실로 줄여서 이사했던 것이다. 그동안 영업실적이 안 좋아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 대리점의 영업사원은 대부분 60

세를 훌쩍 넘은 정년퇴임하신 분들이시다. 경로당처럼 장기도 두고 소일거리로 나와서 시간도 보내고 그런 분들이 용돈벌이 삼아 보험 영업한 걸 수수료를 떨어졌다고 수당을 줄여 줄 수 있겠냐며 차라리 내가 어려운게 맞지 안 그



사무실이사후 한결 마음이편하게 느껴지는 대표와 조사 후 면담중

래요?? 라며 되묻는 대표님 !

가슴 쓸어내리며 살아있어(폐업, 행복이아니라) 다행이다 라며 7층으로 찾아가 만난 그 껌껌하고 고약한 고집불통 대표님 모습에서 비가 오나 눈이오나 촌에서 농사짓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느껴졌다.

분명 업체 나름의 사정이 있고 사연들이 있음에도 기다려주지 못하고 순간의 느낌으로 서운해 하고 원망스러워했던 내성숙되지 못한 맘이 부끄럽게 여겨진다.

조사현장의 현실은 단순한 거에서 (직원들 간단한 간식 챙기며 내편 만들고, 이시간 업체 휴지라도 선물하며 사업번창하길 바라고 등등..) 고마워하고 공감하고 하나가 된다는 걸 시간이 흐르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업체의 자료만 실적 챙기듯 받아 가면 되는게 아닌 진심으로 내 일처럼 다가가는 자세 ! 나의업체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함께 호흡해야만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진리를 배웠다.

통계청 김은경이 매달 조사하러 방문하는 날이 영업실적 신통찮아 마음 비우고 던져둔 우리대리점 영업수수료 계산 해보는 날이 되었다며 쓴웃음을 짓는 모습에서 은근히 제가 방문 하는 날을 습관처럼 기다리는 듯한 따뜻한 착각의 기운이 느껴진다.

『통계청 직원은 뭔가 다르네요』

조사하면서 만난 모든 분들이 나의 현재의 모습이고 미래의 모습일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세상살기 어려움을 진실성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 아닐까?

『많은 조사기관이 자기네 필요한 것만 묻곤 그냥 휙 가버리는데 통계청 직원은 응답자를 대하는 자세부터가 다르다는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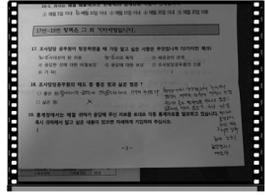
『응답자성향조사 설문지에 통계조사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준 통계청 사

람들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한 응답자』

『멀리 있는 자매, 친구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게 많다는 응답자』

『초심의 마음으로 늘 한결 같이 성실하게 조사하고 꼬~옥 통계청 식구(무기계약직)가 되라며 되려 격려해주는 응답자...』

처음부터 다 호의적이진 않았던 그들이 이젠 나랑 같은 통계가족이 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



응답자성향조사 설문지에 작성된 통계조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

얼마 전 아침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잠깐만~ 에서 통계청장 우기종입니다~라는』 멘트로 시작! 캠페인 코너라 순간에 지나쳤지만 귀가 쫑긋 반갑기 그지없었다. 낯설고 귀찮게 여겨지는 통계청을 미래로 통하는 희망의 빛! 반가운 통계청의 이미지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 현장조사원의 책임이고 몫인 것 같다.

힐링을 주는 농업조사

장려상

임승주 |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



유난히 라는 말은 울여름처럼 무더웠거나 태풍이 잦았을 때 쓰는 말인 듯 싶다. 언제 그리 무더웠냐는 듯, 언제 그리 세찬 태풍이 왔었냐는 듯이 가을 들판은 여전히 고운 물빛으로 결실을 준비하고 있다. 잦은 태풍에도 별 피해가 없는 우리 지방의 가을 들판은 그래서 더욱더 사랑스럽고 소중하다.

내게는 올 것 같지 않던 세월의 무게가 통계청에 발을 들여 놓은 지 벌써 꼭 채운 십 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농가경제조사 표본개편 임시조사원으로 시작한 2002년 시월 첫발을 들일 때 십 년 후에도 내가 이곳에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임시였으니까’

‘상시적 임시조사원이었으니까’

올 초 업무변경 희망에 나는 작물면적조사와 가축동향조사 등 농업조사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고 말았다. 작물은 개인적인 취향과 일치하는지라 망설임

이 없었지만, 가축은 뭐 별로~ 나에게 탐탁한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작물면적조사와 가축동향조사는 묶음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농가경제조사 9년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동안 농가경제조사만을 칠 년 동안 하다가 작물면적조사, 가축동향조사와 병행하기를 2년, 올해부터 작물과 가축동향조사만을 전담하게 되었으니 농촌은 나의 일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농가경제조사 9년의 세월은 결코 나에게 헛된 시간은 아니었으나 더는 내가 잘할 수 없다는 회의에 빠져있을 시점이었다.

농가경제조사는 사람과의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니 일을 떠나 정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 '정'이란 걸 갈무리해야 할 때가 농가경제조사 5년 차 표본개편이 있는 올해다. 이 표본개편이 있는 해를 앞두고 난 내부 갈등을 겪는 중이었다.

9년 동안 서른 개 정도의 농가를 조사했지만 조사 중에는 무척 가깝게 지내다 가도 조사가 끝나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친하게 지내면 후임 조사관에게 피해가 갈까봐 정을 떼다 보니 사람의 인연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농가경제의 표본이 두 번이나 바뀌었으니 이제 나도 세월을 이야기 해도 될 나이가 되지 않았나 싶다. 다행히 인복이 많은지 나는 조사에 있어 크게 불운을 하는 경우가 이제껏 없었다. 조사대상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도 거의 없고.....

그래서 무슨 체험수기를 쓸 만한 대단한 사례도 없이 그냥 무난히 조사를 해 온 듯싶어 체험수기를 쓰기조차 민망한 게 사실이지만 통계생활 십 년을 정리해보고 다시 시작하는데 의미를 두기로 한다.

나에게 농가경제조사는 고향 같은 편안함이었다.

농촌 그분들의 모습은 내 친정의 부모님의 모습이었고 산천은 내 고향의 모습과 똑같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농업 분야 조사는 처음부터 거부감 없이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었고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다.

농가경제조사 9년 동안 두고두고 기억나는 노부부가 있다.

전국에서도 오지로 이름난 영양군에 농가경제조사를 할 때였다.

영양읍에서도 한참이나 떨어진 일월산 자락 밀 당동이라는 마을은 가도 가도 끝이 없던 편도 70km의 멀고도 먼 길이었다.

처음에는 그 길이 얼마나 멀던지 산모퉁이가 나올 때마다 이 모퉁이 지나면 농가가 나올 거야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다녀야 했다. 밭에 가보지 않고도 작물을 70%는 맞출 수 있다는 영양은 그냥 고추밭 천지인 그래서 농가 대부분도 고추농사가 주 소득원이고 주작물이었다. 여름부터 가을 내내 고추 따르는 매콤한 냄새로 조사구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을 정도인 곳이었다.

깊은 산골 사람들이라 농가의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나 좋은 분들이었지만 고령화라는 농촌의 현실에 직면한 전형적인 곳이기도 했다. 정보의 부족과 고된 노동. 문화가 없는 농촌생활의 외로움이 큰 문제이기도 했다.

조사구 초입에서 처음으로 가게 되는 1호 집에는 항상 같이 계시는 팔순이 다 되신 두 어른이 살고 계셨다. 얼마나 외로움이 깊었던지 조사를 하러 가는 날 어머니는 늘 골목 앞에 나와서 내 차가 오는 쪽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셨다.

무슨 말씀을 잘하시는 것도 아니었다.

약간의 치매기가 있으셨던 어머니는 그냥 늘 웃으면서 커피를 타 주셨다.

물어보지도 않으셨다.

그냥 슬그머니 아버님 거랑 두 잔을 옛날 다방 커피 잔에 타 오시는데 그 말이 요즘 속된 말로 죽음 ‘아~ 너무 달고나’

지금은 봉지 커피를 타서 주는 집이 많지만 그건 너무 싱겁다고 꼭 커피 따로 크림 따로 설탕 따로 준비해서 타 주신다.

얼마나 넣는지 결눈질해서 봤더니 커피, 설탕, 크림이 물을 안 탄 상태로도 컵 거의 가득이었다.

재료만큼의 물을 부으니 당연 뽀뽀하고 달 수 밖에.....

‘저 커피 안 좋아해요’ 말할 수도 없고

직접 타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뺏으려 ‘제건 제가 타 먹을게요.’ 할 수도 없이 난감했던 때였지만 지금은 그냥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기만 하다.

내가 방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아버님은 통계청 가계부를 꺼내고 서랍장 깊은 곳에서 또 한 권의 수첩을 꺼내신다. 그 수첩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록하고 있던 자신만의 가계부로 전기, 수도 등의 공과금, 가계지출 반찬들을 목록별로 정리해서 기록하고 계셨다. 이십 년 치는 족히 기록된 그 수첩은 아버님의 자랑거리였던 셈이었다.

또 한 가지 6.25 참전을 하셨던 아버님은 그때 받은 훈장을 내가 갈 때마다 거의 깊은 서랍에서 꺼내서 보여주시곤 하셨다. 그래도 본 걸 티내면 안 되니까 난 언제나 그걸 처음 본 것처럼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한마디 해 드리면 너무나 기분 좋아하셨다.

전쟁 당시 이야기를 꺼내시면 짧으면 30분인데 언제나 처음 듣는 것처럼 귀를 쫑긋하고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셨다.

신이 나서 말씀하신 그 모습에는 깊은 외로움이 같이 보여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곤 하기도 했다.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동안 어머님은 빠르지 않은 손놀림으로 식사 준비를 하신다. 어떤 때는 고소한 부추전에 어떤 때는 조미료가 듬뿍 들어간 했지만 구수한 청국장애 풋고추에.....

어머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는 손님처럼 앉아서 밥상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설거짓감을 그냥 모른 척 두고 와야 한다는 걸 터득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두 분은 언제나 나란히 고추밭에 가셨고 영양 장날이면 같이 장을 보고 보건 소로 병원으로 다니셨다. 어느 날 어머니의 치매가 조금 더 심해져 무작정 큰 길을 따라 걸어가시다 집을 잃어버릴 뻔한 일이 있고서는 어디든 항상 데리고 다니셨다.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같이 사는 가족한테 소홀한 내 모습을 노 부부를 보면서 반성해보기도 했다.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 말동무 해 드리고 살아온 이야기 들어 드리고 점심 얻어먹고 온 게 전부였는데 삼 년 반 조사를 마친다고 인사드리러 간 날, 무덤덤한 나와는 달리 오히려 아버님께서 눈물을 보이셨다. 너무 고마웠다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노인네들한테 찾아와줘서 고마웠다고.....

난 할 말이 없이 그저 부끄럽기만 했다.

조사기간이 끝난 후 아버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주셨다. 전에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출장을 갔었지만 조사가 끝난 후는 반대로 일주일에 한 번 아버님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다. 너무 죄송하고 고마워서 내가 먼저 전화를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번번이 내가 하기도 전에 어느새 전화가 와서는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미안해요. 항상 건강해요.’ 하시던 아버님이셨다.

자식 둘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 자식들은 다 먼 타지에 가 있고 영양에서 안동까지 병원을 와야 해도 불편하신 몸으로 두 분이 꼭 같이 다니셨다. 한 번은 큰 병원을 가셔야 한다가에 안동에 있는 병원엘 모시고 갔더니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누구냐고 물으니 ‘딸이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해 드린 것도 없는데 죄송스럽던지.....

지금 표본개편을 하고 있으니 조사를 마친지 어느덧 오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조사를 마치고 이 년 동안은 한 해에 두세 번씩 아버지 댁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했었는데 아버님의 전화가 뜸해지면서 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한번은 크게 마음 내어서 오랜만에 전화했더니 집 전화는 안 받으시고 휴대

폰은 다른 사람이 받았다. 어머니가 노환이 있으셨으니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자 그동안 소홀했던 나 자신에게 너무나 회의가 들었다. 결국, 나는 내 업무를 위해 잘해 드린 척했을 뿐이 아닌가 싶었다.

어른들이 주신 정에 제대로 보답해 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선뜻 찾아가지도 못하고 있었다. 내가 필요할 땐 잘 해 드리고 조사를 안 하니 소홀해진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스러웠다.

‘돌아가셨겠구나.....’

양지바른 고추밭 가에 어머니 산소가 있을까?

혼자 생각하면서 지난여름 옛 조사구를 찾았다.

그때도 절렁한 농촌마을이었지만 그 사이 더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님 댁은 열쇠로 굳게 잠겨 있었고 사람이 사는 집인지 안 사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 큰길 가게주인에게 물으니 할머니는 돌아가신지 이 년이 되었고 할아버지는 치매가 있어 요양원에 가 계신다고 한다. 집은 외지 사람에게 팔렸다고 한다.

그럴 거라 예상하고 찾아가는 갔지만, 막상 확인하니 너무나 허탈하고 인연을 제대로 이어오지 못한 나의 무능함에 회의가 들었다. 그 회의가 농업전담으로 발길을 돌린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발길을 돌렸다고 해서 여운이 가시거나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닌 듯싶다. 되돌아보면 어머니 가신 길을 봐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연락을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도 그럼에도 지금도 선뜻 아버님이 계시다는 요양병원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나를 알아보지 못 하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주신 사랑만큼 보답하지 못한 죄송함 때문이다.

햇살 좋은 어느 가을날에는

푸르고 푸른 가을하늘 좋은 날에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아버님을 찾아뵈어야지...

이번 작물조사 마치고는 꼭...

한 집 한 집 모두 순수한 농가의 사람들과 많은 추억을 접어두고 작물면적조사는 바쁘게 돌아간다. 쉬는 게 싫으면 어느새 조사기간이고 농사스케줄과 마찬가지로 농번기가 되면 더욱 더 바빠지고 가을이면 덩달아 더 바빠지니 내 농사 한 평 없지만 농부가 된 기분이다.

올해로 논벼예상량조사는 세 번째다.

농업조사는 다 힘들지만 논벼예상량조사는 아직 늦더위가 가시지 않을 때면 서도 일정이 빡빡해 힘이 더 든다. 지난 해 예상량 조사 때는 같이 일하던 조장님이 온종일 뜨거운 햇살에 탈진 직전까지 간 적도 있다.

수확할 때와는 달리 논에 물을 가두어 둘 시기라 한걸음 한걸음 떼기도 힘들고 구월이라지만 여름햇살만큼이나 덥기도 해 농업조사 중 가장 높은 강도의 작업이 아닌가 싶다.

올 해는 다행히 시원한 날씨로 힘이 덜 들고도 조사를 마칠 수 있었고 소풍 나온 듯 돛자리 깔고 차돌박이 구워먹으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즐거움도 잠시 아직 구월 중순인데 산돼지 때문에 벼를 일찍 베야 한다고 경영주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다. 서둘러 가서 벼를 베고 벼 한단 때문에 탈곡기를 꺼내기가 번거로워 시원한 다리 밑에 앉아서 옛날 원시인처럼 쪽 곤은 나뭇가지를 겹쳐서 벼를 훑었다.

십분 이면 탈곡할 것을 두 시간 동안 앉아서 훑으니 몸은 고됐지만 힘든 노동을 하면서 머릿속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는다. 고된 노동후의 힐링의 느낌은 농업조사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싶다.

논벼 실수확 조사 때에는 나는 기록하는 보직을 맡았고 두 남자조원이 벼를 베는 동안 논두렁에서 메뚜기를 잡는다. 친환경재배를 하고 있는 들판에는 벼반 메뚜기 반이니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일하고 메뚜기 잡고' 는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일보다 더 매력 있는 일, 일하면서 얻는 수확의 기

뽕은 두 배다.

무더웠던 폭염과 장맛비를 뚫고 고생했던 7월 작물조사의 기억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산고의 고통을 잊어버린 여자처럼 단위구 가는 길이 어느새 신이 난다. 9월의 작물조사는 시원한 가을바람과 막 피어난 억새꽃을 보고 쭉부쟁이 등 온갖 야생화를 만나는 계절이라 가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내 몸과 마음이 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종자 보급이 발달하여서인지 밭에는 늘 새로운 작물이 자란다. 새로운 작물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고 산야초나 귀농 인터넷카페에 올리면 금방 답을 준다. 동북지방청 카카오토티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전국적인 인터넷카페인 '몸에 좋은 산야초' '귀사모'는 작물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카페의 질문 있어요' 코너를 이용하면서 궁금한 작물을 묻고 내가 아는 것은 답을 달아주면 작물에 대한 지식이 금방 늘어나 작물조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지지난해 동북지방청 작물식별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평소에 새로운 작물을 보면 꼭 이름을 알아야 직성이 풀리곤 했던 작은 열정이 한몫 했었던 것 같다.

이른 봄부터 가을 황금 들판까지 마치 내가 농사를 지은 것처럼 뿌듯해지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르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자연을 벗 삼으며 늘 소풍 가는 것처럼 일하는 것이 농업조사통계의 매력이다.

작업복에 빨간 고무장화를 신고 비록 촌아낙 패션으로 들판을 누비지만, 자동차 안은 씨를 뿌려도 될 만큼 흙이 쌓이지만, 땀, 모기, 멧돼지까지 온갖 위험요소들이 늘 함께 하지만 그래도 들판으로 나가면 즐겁다.

그리고 보니 농업조사가 나의 천직인가? 내 나이 지천명에 이제 나의 천직을 알게 된 것일까? 늘 마음속으로 되뇌던 '면적조사 월령가'를 오늘도 불러본다.

면적조사 일령가

안동사무소 임승주

삼월이라 갯가
버들가지 움트고
움츠렸던 겨울지나
새봄공기 상큼하네.
올해 처음 작물조사
새맘으로 시작하네.
새로심은 저 나무가
복숭인지 자두인지?

오월이라 온천지
꽃천지 풍광 좋아
나들이 마음으로
작물조사 나서보네.
머느리 내 보낸다는
봄햇살 막으려
모자쓰고 마스크쓰고
산으로 들로 나서네.
땅속에 묻힌 씨앗
꺼내 보고
떡잎 올라온 놈
비벼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작물도감, 인터넷
두루두루 살펴봐도
일쌍달쌍 모른다네.

오늘도 비오네
내일도 비온다네
칠월이라 작물조사
장맛비 아니면
짐통같은 무더위라~
작물은 왜 그리 많은지
제일로 힘든 달.

구월이라 면적조사
하늘 높고 날씨 좋아
조사하고 바람쐬고
이만하면 신선놀음
에구구 그것도 착각
여름장마 지나면서
잡초 하늘 찌르고
가을이라 물오른 독사
여기저기 도사리네
빨간장화 신어보네

밭밑에 땀이 차네.

십일월 면적조사
들녘은 행하고
작물은 거의 없어
이제는 쉽거니
한숨놓고 있어보니
도로공사,무슨개발
경지조사 만만찮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농사 다 지나고
작물면적,경지면적
익숙해도 지련만은
돌아보니 아직
모르는 작물 많아
아직도 갈길 멀었는지...

가축 전수조사 방법을 족구게임으로



장려상

최종범 | 동북지방통계청 영월사무소

영월사무소 농어업통계팀 직원들에게 몇 년 동안 가축동향조사 하면 등산길 가로막은 암벽과 같이 한숨과 함께 떠오르는 이름 ○○○씨가 있다.

○○○씨는 평창군 ○○면 ○○리에 거주하고 있는 한우 전수농가 경영주로 매 조사 때마다 조사담당자가 방문을 하면 일단 시선을 애써 피한다. 하던 작업을 아주 심하게 오버해가며 더 빠르고 힘 있게 계속해서 조사담당자가 말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게 한다. 잡초를 베고 있을 때 조사담당자가 곁에 가서 인사를 할라 치면 손에 들고 있던 낫이 마치 무협영화 속에서 이연걸의 손에 쥐어진 칼과 같이 바람을 가르는 듯, 잡초가 낫질에 추풍낙엽처럼 날아다녀 차마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만 보다가 돌아서든가 아니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다음에 다시 뵈겠다는 인삿말을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남기고는 재빨리 자리를 떠나기가 매번 반복된다.

어쩌다가 말문이 열려 조사담당자가 조사를 위한 대화를 시작할라치면 녹음기처럼 조사 때마다 반복되는 역정 섞인 말,

“그거 해서 뭐하는데?”

이 말 한마디는 모든 통계조사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응답자의 질문이다. 지방청, 본청에서는 온갖 지침서를 제공한다.

‘조사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모든 현장조사 담당자는 알고 있다.

아니 너무도 잘 알고 달달 외다시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가이드자료를 보급했다고들 성과로 치고 많은 직원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항상 반복적으로 현장조사 방법에 대해 뜬구름 잡는 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초청 강사들 말도 항상 결국은 같다.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 게 인지상정이니 감동시켜라!’

하지만 현장에서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있고, 웃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도 있으며, 한 응답자를 감동시킬 시간적, 공간적 여건도 주어진 적 없다.

직업을 건 인내심과 자제력으로, 어느 정도는 통계조사 담당자로서의 사명감으로, 그리고 책임감으로 조사담당자는 모든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의 적절한 대처를 한다. 조금이라도 응답자가 빈틈을 보이면 바로 조사 완료를 위해 머리를 치밀고 들이대서는 답을 얻어 유유히 응답자로부터 돌아서 나오는 실로 위대한 조사담당자는 주변에 아주 많다. 곁에서 보면 참 대단들 한데도 ○○○씨 앞에서는 최고 경력자도 무안한 표정으로 돌아서야 했고, 신규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으며, 팀장 또한 설득과 호소, 어느 정도의 국민의무 이행 촉구, 약간의 협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결국 조사를 할 수 없는 ○○○씨!

농어업통계팀 팀장으로 영월사무소에서 3년을 근무하였는데 단 한 번도 조사가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씨는 그야말로 가축동향조사가 시작될 즈음이면 벌써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2~3차례 방문은 기본이요, 면접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에 다른 집과는 다르게 아주 이쁜 글씨로 메모를 남

기고 다음 날 다시 찾아가면 메모 쪽지는 구석에 뜯어지지 않은 신문과 편지와 함께 쌓여 있다.

결국 축협 의 자료, 역지로 이어가는 대화 중 새어나오는 정보, 그리고 경영주의 처가 알고 있는 부분적 자료 등을 종합하여 조사를 마무리한다.

조사 자료를 자신 있게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는 유일한 조사표!

그래도 행정자료와 거의 맞으니 어찌면 한두 마리 오차는 있을지언정 그나마 모니터링에도, 감사 수감에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불응과 조사불가 조사표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가축동향조사!

오랜 기간 동안 가축동향조사 현장조사를 추진해오면서 왜 불응과 조사불가 응답자를 어느 정도 인정해달라고 상부기관에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던가 싶다. 어찌면 당연히 선배들이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머리를 들이밀고 자료를 받아오는 조사방법에 이미 져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찌됐든 지난 6월 조사까지 조사는 완료해왔다.

또 다시 다음 조사 시기는 올 것이고 또 ○○○씨는 같은 행동으로, 같은 말로 조사담당자를 힘들게 할 것이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어느 때 부턴가 해결책 강구를 포기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팀장으로서 참 부끄럽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답이 될 것이다.

어느 날인가 팀장을 찾는 전화가 걸려왔다.

“평창군 ○○면 한우협회 회장 ○○○입니다. 보내준 농축산물가격동향 자료에 있는 전화를 연락했는데 가축조사하는 통계청 맞지요?”

반갑다고 말을 했지만 기실 반갑기는커녕 겁이 덜컥 났다.

○○○씨가 ○○면 한우협회 회장이라면 이는 좀 우려할 만한 상황!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우리가 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들끼리 족구계를 하나 석 달 전에 만들어서 운동을 하고 친목을 도모하는데 통계청 직원들하고 시간 되면 족구 한 판 합시다. 여기 모이는 사람들 모두 소를 많이 키우니 사귀어두면 가축조사하기도 쉬울 것이고 하니 시간 되면… 하실래요?”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대답했다.

“아 좋지요. 선생님도 가축조사 할 때 무조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

이렇게 짧고 간료한 대화로 한우 사육농가 단체와 족구게임 약속을 하게 되었고, 시간을 길게 끌 필요 없이 바로 몇 일 지난 후 퇴근시간에 바로 직원들과 게임장으로 달려 나갔다.

어찌 보면 얌전한 이를 확실히 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직원의 조언으로 닭강정 두 박스를 옆구리에 끼고 게임장에 도착하니 이미 한 잔을 걸치신 40~60대 아저씨들 10여 명이 우리를 반겨주셨다. 물론 가장 앞에 나서서 반겨준 이가 바로 ○○○씨!

“아이구, 어려운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그 오랜 기간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과 말투로 우릴 반겨주시고 회원들에게 우리 직원을 소개시켜 주신다.

회원 중에는 조사대상 농가의 경영주도 있었기에 더더욱 반갑고 모임에 의미를 둘 만 했으며, 몇 분은 직원의 부모와도 연관되는 등 대화가 자연스레 이루어지면서 여기저기서 형님, 동생, 삼촌 해가면서 난리다.



한우협회 회원들과의 첫 만남과 인사

게임의 승부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우리 사무소 족구의 대표선수인 최상오,

조근혁, 구광서, 권오찬씨가 눈치있게 적절히 점수관리를 하여 분위기는 자연스레 재미와 긴장이 섞여 웃음소리와 파이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네 주민들, 지나가는 분들도 모여서 구경을 하신다.



한우협회 회원들과 영월통계청 직원 간 족구게임 장면

두 게임 결과 1:1로 비긴 채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한우협회 회원들이 준비한 술과 우리가 준비한 닭강정 안주로 한바탕 화합

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적당히 마치고 귀청하려 해도 한우협회 회원 분들이 놔주지를 않고 계속 놀자하신다. 약간의 음주로 남자들만의 적절한 허세와 객기는 점점 친목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고, 결국 바로 그 불응의 대명사이고 가축동향 전수조사의 넘기 힘겨운 암벽인 ○○○씨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우리 직원을 대해주신다. 아니 더 나아가 소리치신다.



한우협회 회원들과 영월통계청 직원 간 족구게임 장면

“앞으로 조사하다가 주변 마을에서 안 되면 전화해! 내가 도와 줄 테니!” 가축동향조사 조사표에는 조사방법으로 면접청취조사, CATI조사, 등등 여러 가지 조사방법이 있고 제각각 부호가 있어 조사한 방법을 조사표에 기재하고 입력을 해야 한다.

이제 조사방법 하나 추가를 창의제안 해야 되겠다.

“족구조사”

농업통계 현장속으로 ~ 아자! 아자!! 아자!!

“구실이 아닌 방법을 찾아서...”

장려상

이 선 주 | 호남지방통계청 해남사무소



내가 처음 통계청 현장조사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작년에 있었던 2010인구주택총조사이다.

13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쉬는 동안 조사가 별로 어렵지 않다는 말과 사실 용돈이라도 벌어볼 마음에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조사원 교육을 받을 때에 교관님께서 현장 조사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나는 설마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인데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조사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통계청 조사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뿌듯한 마음을 안고 조사를 하는 동안 있었던 일이다.

‘함께해요 2010 인구주택총조사표’를 들고 해남읍의 한 아파트를 방문하였는데 설명도 듣지 않고 무조건 안살거니 가라며 잡상인 취급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때문에 방문을 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문을 닫아걸고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너무나 크고 높은 벽이 내 앞에 가로 막혀 있는 느낌이었다.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하고 다음날 직접 쓴 장문의 편지와 함께 조사표를 우편함에 넣어두고 몇일을 우편함을 확인해도 조사표는 보이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실에 여쭙 보았더니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 분들이라 그럴 거라며 만나기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다.

결국엔 불응으로 마감을 해야 되나 싶어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설득을 해보려고 찾아간 날 서툰 글씨로 써 놓은 ‘미안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조사표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눈물이 글썽이기가까지 했다.

여러 번 방문해서도 만나지 못한 가구는 귀가 시간이 늦더라도 기다려서 조사를 했다.

통계조사 경험이 없던 나는 ‘내가 왜 이런 취급까지 받으며 이 조사를 하고 있나’ 싶은 생각과 ‘내가 다시 통계청 일을 하면 사람이 아니야’라고 다짐 아닌 다짐을 하면서 정말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은 어렵구나를 절실히 느끼며 힘을 들지만 그래도 내가 맡은 일은 틀림이 없어야 된다는 나만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마쳤다.

이런 나의 모습을 지켜본 인구주택총조사 총 관리자분의 권유로 농림어업총조사를 하고 2011년 경제총조사 대비 사전조사까지 하게 되었다.

모든 조사에 임할 때마다 각종 지침서 숙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 시험 준비를 하는 자세로 지침서를 꼼꼼히 메모하면서 익혀 나갔다.

현장조사를 할 때마다 무너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통계청 조사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성취감도 생겼지만, 반면 부족한 지식으로 불응하는 사람들을 설득해 응답을 얻어내야 하는 일이 너무 버거워 ‘다음엔 통계조사를 절대 하지 말아야지’ 했었는데 지금은 통계청 해남사무소에 입사하여 조사업무를 맡게 된지 어느덧 8개월이 되었다.

처음에 맡게 된 업무는 어업생산동향이었는데 300개에 달하는 대상처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고 태풍이 지나가면 바다에 힘들여 해놓은 시설물들이 전파 되는 일들이 허다해 그런 대상처를 조사할 때 마다 돌아오는 건 아무런 도움도 안 되면서 귀찮게 하지 말라는 차가운 말들뿐이었다.

일이 너무 힘들어 지쳐가던 차에 사무소 정원조정으로 인해 기간제 직원인 내가 남직원들만 수도룩한 농업통계 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당시는 어업생산통계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어떤 업무를 맡게 돼도 지금보다는 좋을 것 같아 즐거운 마음에 일을 시작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농업생산 업무는 여자직원들은 기피하는 업무였었다.

처음 농업팀원들을 보았을 땐 검은 피부에 거친 말투, 나누는 대화들은 온통 농업이나 축산에 관련된 이야기 일색이고 어느 누가 봐도 그냥 농민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저 사람들이 과연 공무원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고 저 남자들 틈에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우리 팀은 농업관련 업무와 경제관련 업무를 함께하고 있어서 내가 맡게 된 업무는 작물재배면적조사, 농작물생산량조사, 농가판매구입가격조사, 축산물생산비조사 그리고 사업체 관련 업무이다.

팀원들의 배려로 작물재배면적조사는 단위구수가 제일 적은 면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정도야 뭐~ 모르는 작물은 사진 찍어서 물어보면 되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는 사업체 관련 업무에 대한 공부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숙지해야할 지침서도 7권이 넘었고 모두 처음 접하는 업무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신이 없어서 작물재배면적이니 생산량조사 등에 관해 선배들이 “뺨을 만날지 모르니 등산화는 발목이 있는 걸 신어야 돼”

나는 강아지를 참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집은 애완용 강아지와 한 식구다

경기도 파주가 고향인 나는 파충류와 양서류는 질색이다

선배들에게 “뱀” 소리는 듣던 순간부터 내 발밑에 뱀이 기어다니는 듯 했다.

조사구에 나가 발두령을 걸어가는데 조그마한 나뭇가지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런 나를 보며 선배들은 한심스럽다는 듯 배를 잡고 웃는다.

또, “피부가 타서 몇 번은 벗겨져야 진정한 농업팀이 되는거야.”

하는 말들을 내가 여자라 겁을 주려는 농담으로만 들었었다.

햇볕이 짙게 내리쬐는 7월 12일. 작물재배면적조사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운동화를 신고 따라 나선 첫날 내가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시골에서 살기는 하지만 농사라고는 지어본적이 없는 내 눈에는 모든 작물이 거의 다 똑같아 보였고 더운 날씨와 비가 내려 폭폭 빠지는 논두렁 발두령을 걸어 다니며 선배가 불러주는 작물을 받아 적고 작물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한참이나 했지만 아무리 봐도 분간이 가지 않았고 작물도감을 봐도 볼 때 뿐이고 눈앞에 있으면 여전히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틀에 걸친 인수인계기간동안 내가 아는 작물이라고는 고추, 상추, 논벼 정도가 전부였다. 해남에서 많이 나며 내가 주로 먹었던 고구마를 보고는 가지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한 적도 있다.

첫 작물재배면적조사는 선배의 도움으로 불러주는 작물을 적어가며 겨우 정리만하는 수준으로 끝냈는데 문제는 9월 작물재배면적 조사였다.

혼자서는 작물구분이 힘들 것 같아 최근 3년간 담당 조사구에 심어졌던 작물들을 파악해 작물도감을 찾아 확인하고 평소 조사를 다니면서 만나는 시골 어

르신들에게 이것저것 물어 익혀두어서 이제는 작물구별에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신 있게 혼자서 조사를 하러 현장에 나간 날 작물구분은 차치하고라도 조사구를 찾아내는 게 문제였다. 유난히 길눈이 어두운 나는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구를 찾는 게 너무나 큰일이었다. 어렵게 조사구를 헤메고 다니는 나를 보고 밭에서 일하시던 어르신이 묻는다, “멀 보고 다니는겨?”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답한다. “네!! 통계청에서 작물재배면적조사합니다”

어디?” “통계청이요”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통계청을 잘 모른다. 그렇게 몇 번의 실랑이를 하고나면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나도 모른다... 그러던중 또 다른 조사구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어른신을 만난다..

똑 같은 물음에 똑 같은 대답을 반복한다... 이렇게 몇 번을 하고나면...이제는 밭에 사람이 있으면 피해간다.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그냥 조용히 쳐다만 보시는 어르신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다른 선배들이 2~3일 정도면 끝낼 조사를 5일을 내내 헤매어서야 겨우 끝낼 수가 있었다.

통계청은 민원이 없다더니, 민원들이 모두 논과 밭에 계신가보다.

내 통계조사 경력의 일생일대 최대의 고비는 9월에 있었던 미곡예상량 조사였다.

추석이 지난 후 실시하는 일이라 덤지는 않겠지 하며 나선 첫날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가만히 서있어도 땀이 흘러내리는 무더운 날이었다.

스타일리시한 레인부츠가 아닌 농민들이 주로 신는 빨간색 장화를 신고 선배들을 따라 나섰다. 여직원이니 벼 포기수를 세러 직접 논에 들어가는 힘들 거라는 팀원들의 작은 배려로 조사표(선배들은 이것을 일명 야장이라 한다.) 작성을 맡게 되어 논에 들어가는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쩌다 들어가게 되면 발목까지 푹푹 빠져버리는 논에서 허우적거리다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

러운 눈독길에서 넘어져 눈에 빠지기도 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예상량조사 시작 전 모든 표본 필지의 경작자가 이미 파악되어 경작자에게 예상량조사를 실시하겠노라고 통보가 된 상태였다,

한참 가로와 세로 길이를 재고 이삭수를 세고 있는데 파자마 바람에 아주머니가 눈썹을 휘날리며 달려온다, “어떤 놈들이 남의 논에서 논을 망치고 있어” 하며 노발대발이다, 거의 진정시키고 취지를 설명해도 먹히지가 안는다... 가지고있던 조사표에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고 아저씨와 통화를 하고서야 거의 예상량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예상량 조사 후 3일 동안 몸살로 앓아누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체력이 약해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 여기서 그만 두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내가 이정도인가??” “이거밖에 안되는 거였어??”

무언가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그 구실을 찾고 있었다.

이런 내 마음을 눈치 챘는지 평상시 무뚝뚝했던 팀원들이 달라졌다. “커피 한잔 할까.”며 너스레를 떠는 선배, “지난 번 회식 때 보니까 맥주를 좋아하던데 맥주 한잔 사줄게.” 하는 선배, “모르는 거 있음 물어봐 언제든 알려 줄 테니까.”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선배들 덕분에 농업 팀에 당당한 일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까지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껴졌던 것들을 이제는 작은 담쟁이 잎 하나가 수천 개의 담쟁이 잎을 이끌고 높은 벽을 넘듯 하나의 작은 담쟁이 잎이 되어 그 벽을 넘어 보리라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미곡 생산량 조사를 할 때는 처음 잡아보는 낫질도 해보고 탈곡은 위험하다며 못 하게 하는데도 나도 내 몫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에 탈곡도 직접 했다. 그런 나를 보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농사 많이 지어본 사람 같다고 놀려대는 말들이 이제는 싫지 않다. 내가 그만큼 잘해내고 있다는 결론이니까... 사실 직원들은 모른다.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면 파김치가 돼버린다는 걸.

내가 맡은 업무만 잘 해내면 된다는 단순한 내 생각이 이번 미곡생산량 조사를 마친 지금 여러 가지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고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 발표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올해 감자생산량조사때의 일이다.

산이면에서 감자를 열심히 캐고 있는데 좁은 농로길로 1톤 하물차가 달려오며 들려오는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아주머니가 하는 말.

“니들 거기서 꼼짝 말고 있어??”

우리는 캐던 감자를 잠시 멈추고, 놀란 선배가 농로로 나가서 무언가 열심히 설명을 한다. 조용해진 아주머니의 목소리....

“아!! 그러시군요, 그래야죠!! 다음에 우리 밭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환산해서 알려주세요, 나도 알고 싶네요..”

사연인즉 담당자가 경작자와 통화를 했는데, 경작자가 지번을 잘못 알고 옆 밭을 자기 밭으로 착각하고 허락을 한 것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에도 표본으로 선정됐던 경우라 그 아주머니가 통계청의 일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야기를 마치고 사례금으로 농협상품권을 내밀자 난색을 표한다.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배가 상품권을 사용하기로 하고 마무리 짓는다. 감자의 측량을 끝내고 양파망에 가득한 감자를 내밀자 경작자가 하는 말이 돈까지 받았는데 감자까지 받을 수 없다며 그냥 가져가라고 손사래를 친다. 아주머니의 성의가 고마워 몇 개만 따로 담아와 그날 사무소에서 감자 파티를 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 시골의 인심은 후한 편이다.

통계조사의 홍보부족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통계업무를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지만 뉴스에서 간간히 나오는 통계청 발표 자료들을 볼 때는 웬지 반갑기도 하고 자부심도 생긴다.

사실 여자가 하기엔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지만 농업팀에 들어오길 너무나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업무량과 힘든 일들을 아무런 불만 없이 내일처럼 묵묵히 해내는 우리 팀원들이 너무나 든든하다.

우리팀원들 아니 모든 통계인들에게 한없는 존경과 박수를 보내본다.

농부 아들 통계조사관과 고집불통 영감님

장려상

형영석 | 호남지방통계청 해남사무소



[조사대상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농약을 치면, 내가 직접 농약을 치겠다는 자세로 조사업무에 임했다]

2011년 초에 해남사무소로 발령이 났다. 1993년부터 통계청에서 일했는데 나의 업무는 운전, 서무, 회계 등 통계조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주로 했다. 그러나 해남사무소로 내려온 이후에는 회계를 보면서 조사업무도 병행하게 됐다. 내가 현재 담당하는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이다.

솔직히 조사 업무는 처음 해본다. 길다면 긴 공무원 기간 중 현장 방문 조사는 내게 매우 생소한 업무이다. 제일 처음에는 두려움도 적지 않았다. 먼저 연동표본을 맡게되어 조사 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고, 응답자가 조사원을 만나주기는 커녕 문전박대를 하였다. 또한 이 업무는 주로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성이 관행적으로 해오는 조사인데 남자가 경제활동조사를 하니까 응답자가 많이 꺼려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내가 맡은 조사대상은 농가이고 고령자가 대부분인 농촌지역이다. 나는 시골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다.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오신 부모님의 어깨너머로 농사를 배웠다. 지금도 노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기 때문에 고향에 자주 간다. 따라서 도시에서 나고 자란 조사관보다는 농사꾼의 사정과 심정을 잘 이해한다고 자신한다.

그래서 조사대상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농약을 치면, 내가 직접 농약을 치겠다는 마음으로 부딪혀보기로 했다.

하루는 연동표본지역인데 사전조사할 때 고지식하다고 소문난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해남에서 1시간 넘게 운전을 하고 진도군 끝자락에 위치한 임회면 어느 마을에 찾아갔다.

번지를 확인하고 김할아버지네 집에 들어갔는데, 첫눈에 봐도 할아버지의 성깔은 까칠하게 보였다. 우선 경계의 눈초리가 매섭게 느껴져 말꺼내기조차 어려웠으나,

그래도 이 먼길을 달려왔는데 꼭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고

“할아버지, 저는 통계청에서 나왔어요.”

“나, 바쁜 사람이니까 말 할 틈 없네. 젊은이 괜히 시간 낭비 말게.”

“영감님! 저와 잠깐 말씀을 해보십시오. 아따 할아버지를 뵈니까 시골에 계신 저의 아버지를 뵈는 느낌이에요.”

“여보게, 젊은 친구! 헛소리 말고 그냥 가라니까!”

“할아버지! 어르신께서 말씀해주시는 내용은 개인적인 용도로는 쓰이지 않고, 정부에서 국가의 일을 계획할 때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봐! 젊은 친구 얼른 가보라니까. 나 지금까지 농사지으면서 정부 말을 들어서 좋은 꼴 못 봤네. 내 성질 돋우지 말어잉!”

“아따~ 영감님! 제가 한 달에 못해도 두 번은 꼭 찾아오잖아요. 객지에 사는 자식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가보다 하면서 반갑게 해주세요~”

“뭐라고! 자네가 내 자식처럼 한다고? 웃기는 소리 작작 그만해.”

이렇게 첫 방문 때 별 소득을 얻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마당에조차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할아버지는 엄청나게 고집이 세고 막무가내였다.

다섯 번째 그 집을 방문했다. 마침 집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마당에는 베어다 놓은 깃단이 세워져 있었다. 뒷마루에는 옷가지, 수건 등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걸 보니 바쁜 일로 어딘가 분주하게 일하러 나가신 것임에 틀림없었다.

인기척이 나는 옆집으로 갔다.

“안녕하세요, 저 집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동네 뒷산 밭에서 일하실 거예요.”

물어 물어 가면서 그 밭에까지 갔다. 마침 할아버지는 구부러진 허리에 농약 통을 지고 고추에 농약을 치고 계셨다. 영감님은 농약 통이 비자, 내려놓은 농약 통에 농약과 물을 섞어 넣어 채웠다. 나는 얼른 달려가서 농약 통을 빼앗아 짚어졌다. 영감님은 농약을 치느라 지치셨던지 그런 나를 그저 바라보고 계셨다.

그렇게 농약 세 통을 고추에 했다. 해가 서산을 붉게 물들일 만큼 시간이 흘렀다. 그제야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자네, 펜대만 굴리는 줄 알았더니 농약도 할 줄 알아? 자네 촌놈인가 봐?”

“예~~~ 어르신 저는 시골에서 크면서 농사도 지었고요, 지금도 가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시골에 가서 농약도 해드립니다.”

“그래, 자네 또래들 중에서 시골에서 큰 놈들이라 해도 농약을 칠 줄 아는 놈은 별로 없는데 자네는 좀 다르구먼.”

밭에서 집까지 오면서 농약 통을 등에 지고 왔다. 마당에서 깃단이 잘 말라서

깨가 쏟아질 듯했다. 꺾단도 내 일처럼 열심히 털었다.

까칠하기만 하셨던 할아버지가 말문을 여신다.

“자네가 뭐 하는 사람이라 했는가?”

“예, 저는 통계청에서 일하는데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할아버지! 지금 몇 가지 여쭙 봐도 되지요?”

“그렇게 하소! 벌써 해가 다 졌네. 자네도 얼른 하고 퇴근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 날 처음으로 30분 정도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곰탕을,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팔죽을 사가지고 갔다.

할아버지께서는 객지에 사는 자식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가보다 하고 반갑고 살갑고 정답게 대해주신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러 간다는 심정으로 한 달에 한 두 번이지만, 조사대상가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시골에 계신 노부모님이 생각나고 측은지심이 일어난다. 친자식보다 못하겠지만, 잠깐이라도 객지의 자식이 찾아온 듯한 기분을 그분들이 느끼도록 하려고 애를 쓴다.

현장조사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장애는 응답자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특히 농촌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요즘 농촌은 일손부족 및 기상 재해로 인심이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 기관을 불신하여 불응하는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 심정에는 맞지 않을 까 싶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마음을 어루만지면 그 분들의 얼음장 같은 마음은 눈 녹듯이 녹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도 우리 현장 조사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응답자들을 보러 간다.

나는 농사꾼의 자식이고, 응답자분들은 그 자식들의 부모님이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장려상

장은옥 | 호남지방통계청 정읍사무소



생각해보면 그리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냈다
어느 정도 작은 목표도 이룬 것 같고...
남들은 불혹의 나이에 정년 아니면 명예퇴직을 하는 시기인데,
특히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다니던 직장은 내려놓고 편하게 여가를 즐기며
살 수도 있는 나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사십 고개를 훌쩍 넘긴 나이에 감히 통
계조사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몇 년 전 지극히 내성적이고 소심하며 사교성조차 없던 내가 지인의 권유가
있어 임시조사원으로 몇 번 통계조사를 해 봤지만 낯선 사람을 만나 설득하고
조사까지 하는 일이 참 생소하고 어설프다.

그런 내가 또 자의반 타의반으로 통계청 기간제근로자로 덜컥 입사하는 무
모한 용기를 내버렸다.

갖추고 있는 자격이 너무 없다보니 잘 해낼 수 있을지 나 자신부터 나를 못
믿겠고 어려운 통계조사라는 일을 어찌 감당해야할지 앞이 캄캄하고 날 소개

해준 언니를 살짝 원망도 해 봤다.

내가 맡은 일은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우리나라말이 이렇게도 어려웠나? 도무지 무슨 말인지 지침서교육을 받으면서 자신감은 더욱더 곤두박질치게 되었다.

드디어, 첫 조사를 나가는 날, 어떻게 운전을 해서 조사구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다행인 건 선배님 뒤를 졸랑졸랑 따라갔던 가게, 경찰조사구는 인정 넘치고 푸근한 시골인데다가 응답자 어르신들 또한 내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첫 대면에서도 편안함을 느꼈다.

워낙 선배님이 잘 닦아온 터여서 그런지 두세 차례 다녀온 후로는 편안해진 출장길에 깊어가는 가을풍경을 온몸으로 느끼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코스모스 단풍에 흠뻑 빠져 눈 또한 호사스런 아름다운 출장을 다녔었다.

내 생애 최고의 직장이고 행운의 직장이 생겼다며 행복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그리 오래가진 않았다. 통계조사 일을 만만하게 봤던 하룻강아지에게 연동이라는 낯선 업무가 떨어졌다. 이전 동안은 신참에게 주는 약간의 특혜 같은 시간이었나보다.

혹한의 추위에 시작된 연동은 나를 제대로 훈련시켰다. 처음으로 요도라는 것을 그리기 위해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눈으로 측량도 해보고 지침서교육을 받은 대로 나를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를 위해 나섰지만 막상 응답자 앞에서면 의심과 경계부터하고 부릅뜬 눈으로 노려보는 분들 앞에서 웃는 얼굴이 굳어지면서 소리 없는 두려움에 무슨 말로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해야할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통계청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리자마자 버럭 화부터 내는 사람, 다시 찾아오면 그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사람, 외판원취급은 물론 왜 남의 뒷조사를 하고 다니냐며 으박지르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다음 사람은 어떻게 나올지 미리 주눅 들어 목소리는 다시 목으로 기어들어

갔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은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미운정이든 고운정이든 쌓여간다는 것이었다.

대낮부터 약주 한잔 하시고 나만 보면 사회에 대한 불만을 다 털어버리시던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버럭 아버님도 일년을 넘긴 지금은 이젠 농담도 건네시고 가끔은 귀엽기까지도 하시다.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게부 회수 때 뵙고 차 마시며 이런저런 살아온 인생이야기를 해주시던 어머니는 경찰조사표를 드리려고 방문했을 때에는 스스로 삶을 내려놓으셨고, 홀로 남은 아버님께선 어머니 안부를 묻는 내게 마치 옆집에 마실가신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지만 슬픈 눈빛만은 감추지 못하시던 모습을 뵙고 가슴이 먹먹해져 뭐라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했었던 일, 배불뚝이 새댁은 예쁜 공주님을 낳았고 미소년 고등학생은 의젓한 군인이 되었고, 시부모 모시고 살던 아들 며느리는 큰 집을 장만해서 분가하고...

갓가지 행복과 불행을 공유하는 절친이 20가구나 생겼다. 빙판길에 넘어져 핸드폰 깨지고 좁디좁은 골목길 곡예하듯 서툰 운전하다가 일년도 안된 나의 애마에게 상처를 내 가면서 그렇게 연동이라는 홍역을 한차례 치러내고 나서 야 조금은 통계조사에 대해 반의 반쪽 정도는 눈을 뜬 것 같다.

내가 처음 선배님 뒤를 따라갔던 조사구에서의 편안함은 선배님들의 뼈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밑바닥에 깔려 있었기에 가능했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서야 느낄 수 있었다.

통계청 일 년 차 두 번째 연동이 시작됐다. 더 까다로운 아파트 조사구였다.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버렸기에 더 겁나고 떨렸고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고층아파트를 올려다보며 한참을 심호흡하고 초인종 누르기 전까지 스멀스멀 밀려오는 두려움을 꼬깃꼬깃 접어 감추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지난번 그 조사구분들처럼 몇 개월 후엔 분명 나의 오랜 친구처럼 소중한 인연이 되어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에 새로운 자신감으로 무장을 할 수 있었다.

한번은 서비스업동향조사 대상 사업체의 까칠한 사장님은 몇 달이 흘러도 냉랭하고 명쾌한 답을 해주지 않으시던 분이 응대전략을 바꿔 홍보직원을 자청하며 단체복주문을 받아 대량구매를 성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며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일도 있었다. 이제는 너무 친절하셔서 오히려 부담이 될 때도 있다.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하는 씩씩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일도 서로 상부상조라며 좋게 생각하기로 했다. 지난 봄, 세번째 연동을 시작했을 때는 사전조사용 답례품이 없어 차마 빈손으로 찾아가 조사협조를 부탁할 수 없어서 평소에 내가 취미로 즐겨 만들어 지인들께 선물했던 친환경수세미와 페브릭행주를 만들어 답례품으로 활용해가며 세 번째 연동까지 불응가구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렇게 산전수전 우여곡절 희로애락을 겪는 동안 이마에 주름이 깊어진 대신 경력은 쌓여가고 있을 즈음...

통계업무 2년 차 올 가을에 농부의 공간이 채워지듯 나에게도 무기계약이라는 큰 선물이 주워졌다. 절대로 2년을 버티지 못 할 줄 알았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달다. 돌아다본 세월은 아프고 쓰린 기억이 더 많다. 나의 무력함에 눈물 훔쳐가며 서러웠던 일들이, 그렇게 참아냈던 나의 2년을 너무 과분하게 보상받은 것 같다. 솔직히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 떨어지면 차라리 훌가분할 것 같다는 생각을 몇 번은 했던 것 같다.

이제 무사히 무기계약직 직원이 되었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봐야겠다. 2년 전 만큼의 열정은 없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2년이라는 작은 연륜이 쌓였으니 처음보다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 하지만 하루에 또 하루의 노력들을 보태다 보면 단단한 무언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다시 찾아온 가을 친정이 세 군데나 생겨버린 내 차 트렁크에 가을이 실린다.

이 조사구에 가면 호박 한 덩어리, 저 집에 가면 짝 벌어진 석류 세 알, 어느 집 담장에 걸린 호박잎도 내 것 마냥 따와도 뭐라는 사람 없다.

다하지 못한 숙제마냥 아직도 곁을 내어주지 않는 몇 몇 가구 응답자분들께 다시 한 번 함박웃음 지으며 찾아가 정을 나눠보리라 다짐도 해본다.

흔쾌히 조사에 협조해 주시던 가구임에도 또 다른 복병이 있다. 타지에 사는 자녀분들이다. 며칠 전 000의 딸이라며 한밤중에 전화를 받았다. 시골노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찾아가서 개인정보를 다 캐고 다녀도 되냐고 따지면서 오히려 나에게 호구조사를 한다. 난 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보지만 내말을 들으려하지 않는다. 다짜고짜 우리 어머니는 조사에서 빼달라고 한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있는 9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다시 한 번 몇몇 자녀분들까지 설득을 해야 하는 숙제가 또 떨어졌다.

통계업무 2년차에 눈칫밥까지 경력이 보태졌는데 설득 못할 일이 있을까?

사람이 재산이다. 세조사구 60가구의 수많은 가족들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생겼다는 긍정의 힘으로 다시 한 번 발걸음에 힘을 실어본다.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며

“안녕하세요! 어머님! 통계청입니다.”

내 이름은 통계청.

위풍도 당당하다.

“화이팅~!”

마음으로 전하는 통계



장려상

강 선 속 | 동남지방통계청 진주사무소

농어가 표본개편으로 많이 바뀐 요즘,
 힘들고 어려우면 고향생각이 나고 아름다운 추억이 기억되나보다. 5년 전 농가경제 표본 조사구는 시내 동지역이 많아 면접도 어렵고 설득도 힘들었다.
 시내에 거주하면서 주업은 따로 있고, 농지는 다른 지역에 있어 주말이나 공휴일에 농사를 지어 자급용으로 소비하는 정도의 2종 겸업농가가 많았다.
 그 중 낮에는 도무지 만날 수 없는 농가가 있어 부득이 밤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몇 차례 통화를 하면서 경영주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 가벼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다.
 대학생인 듯한 아들이 문을 열어주기에 통계청에서 농가경제 조사차 방문했노라고 밝혔더니 아버님을 불러주었고, 거실로 안내되어 경영주와 면담이 잘 진행되어, 가계부를 내밀며 작성방법을 설명하니 흔쾌히 수락을 하시고는 통장을 가져왔다.
 매월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공과금과 보험료, 그리고 보험료의 납입회수 등이 통장에 표기돼 있으니 통장을 보라며 내밀기에 '이게 웬 황재냐' 싶어 얼른

보험료 금액과 횡수 등 내역을 열심히 옮겨 적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욕실문이 열리고 칫솔을 입에 문 여자가 눈을 부릅뜨며 통장을 들고 있는 나를 쏘아보는 것이 아닌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지만 이내 웃음을 지으며,

“아~ 어머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 강선숙입니다. 낮에 아무도 안 계셔서 지금 찾아뵙게 되었어요. 아버님께 몇 가지 여쭙보고 있는 중입니다.”

떨리는 마음을 들킬까 더 상냥하게 웃으며 신분과 방문 목적을 밝혀도 어머니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더 자리하고 있다간 한 대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다시 방문하겠다는 인사를 하고 서둘러 그 집에서 나왔다.

그 뒤 몇 번 더 방문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난 후 혹시나 하고 방문하였더니 어머니가 문을 열어 주시는 게 아닌가.

반가운 마음에 꾸벅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든 순간,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눈 앞에서 하얀 종이가 펄펄 날리고 있었다. 배부했던 가계부가 갈기갈기 찢겨져 내 눈 앞에서 내던져지고 있었다. 그 종이가 마치 내 심장이 찢겨져 나뉘는 것 같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다. 어머니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갑자기 두 손을 치켜들고 당장 달려들 기세였다.

‘아~ 이 분이 지금 내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구나’ 싶었지만 마치 내 두 다리는 얼어붙은 듯 꼼짝 할 수가 없었다. 너무 놀라서 이 순간을 모면해야 한다는 생각만 있을 뿐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찰나에 무슨 생각은 그리도 많이 나던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나...

통계조사를 하러 온 게 머리채를 잡힐 만큼의 일이던가...

남들이 보면 내가 무슨 죽을죄를 지은 줄 알게 아닌가...

이 사실을 우리 애들이 알면 안 되는데...’

머리 속이 복잡한 그 순간, 구세주 같은 손길이 어머니를 뒤에서 확~끌어당겼다. 사실 위험을 감지했기에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끔 감고 있어 그 순간을 정확히 보진 못했지만, 알고 보니 처음 방문 때 본 막내아들이 어머니를 백허그로 달랑 들어 집으로 들어갔던 거였다.

그렇게 문이 닫히고 아찔했던 상황은 종료됐지만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온 몸의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통계조사를 하러 다니다보면 십인십색이라는 말처럼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된다. 불운도 있고 이유 없이 거친 반응도 보이지만 이렇게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큼 공격을 당하긴 처음이라 사람이 무서워지고 상황이 난감하기만 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왜 나만 보면 날을 세우고 덤비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반면 경영주는 호의적이고 협조를 잘해주었지만 어머니만 생각하면 방문하기가 무서워 표본 대체를 고려하던 중 경영주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경영주도 며칠 전 사건을 아들을 통해 들은 듯 미안해하며 부인이 가성우울증이라고 알려주며, 경영주가 젊은 시절 가정적이지 못했던 몇몇 사건으로 부인에게는 한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 낯선 여자가 밤에 찾아와 통장을 들여다보며 경영주와 얘기 나누는 것을 보고 옛날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고 이 낯선 여자가 남편을 꼬드쳐 통장의 돈을 다 빼가는 줄로 착각을 했던 것이다. 그렇게 상황을 오해하고 있으니 경영주가 아무리 통계청 직원이라고 설명을 해도 믿지 않더라. 그러던 중 내게 위협을 가할 뻔한 상황을 본 아들이 차분히 설명해서 오해는 풀렸으며 그 일에 대해 사과를 했다.

그 말이 참 반갑기도 하였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한없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남편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가성우울증이라는 병까지 안고 살아야 하는 어머니의 상처가 그대로 느껴졌다. 오해는 풀렸다고 하지만 서로 감정을 다친 터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을 하며 그 조사구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하필이면 그 가구가 조사구의 입구에 위치해 그 집을 지나야만 다른 가구로 갈 수 있었다. 그 날, 마침 어머니가 집 앞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인사를 해야 하나, 그냥 지나칠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먼저 날 알아보며 이리 와서 옆에 앉으라고 하셨다. 지난번 일도 생각나 조금 떨어져 앉아 애써 웃음을 보이며,

“어머님! 오늘 햇볕이 참 좋죠? 집에 이렇게 햇볕이 잘 드니 얼마나 좋아요. 어머님 집 화초들이 참 잘 자라네요. 어머님이 정성을 많이 쏟으시나 봐요. 식물도 햇볕이 필요하지만 사람도 적당히 햇볕을 쬐어야 건강하대요.”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나도 모르게 횡설수설하고 있었더니 어머니가 살며시 웃으며 내 손을 잡아주었다.

당신이 병이 있어 감정조절이 안될 때가 많아 가족들도 힘들어한다며, 내게 행패를 부리고 나서 며칠간 많이 아프셨단다. 이유도 없이 그렇게 아파 누워 있으니 내게 모질게 대해서 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며 미안하다 하셨다. 앞으로 자주 오라며 웃으시는데 가슴이 멍멍해졌다.

어머님의 힘없는 눈빛이 마당으로 쏟아지는 햇볕만큼 따스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안고 돌아왔다. 서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가 큰 만큼 포용력도 커지기를 바라며 노력했다.

그 날 이후로 어머니는 참 많이 밝아졌다. 방문하면서 간혹 간식거리도 들고 가 같이 먹으며 수다도 떨고. 엄한 남편 흉도 봐가며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걸 느꼈다.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벌써 5년.

지금은 그 어머니 집에 있는 화분이 이쁘다고 말을 하면 그 화분은 이미 내 손에 쥐어지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

어떤 사람이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나쁜 사람은 없다. 불응을 할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는 숨기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한다. 마음을 열지 않으니 사람 상대하기가 그래서 힘든가 보다.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고 외면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나는 이 직업을 사랑한다. 출장을 다니다보면 점심을 거를 때가 많은데 어떤 날은 배고파서 힘들고, 또 어떤 날은 너무 배불러서 힘들 때도 있다.

또 다른 조사구 어머니는,

“아이구, 우리 딸 왔네. 이렇게 다니면 얼마나 배 고프겠노” 하시며, 손수 미숫가루 한 사발을 타 가지고와 내민다. 맛있다고 잘 먹으면 또 한 사발을 더 주신다. 과일에, 고구마, 감자, 옥수수, 부침개, 요구르트, 사탕, 커피까지 뭐든지 먹고 가라고 붙잡는다.

그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해 다음 방문 때 호두과자라도 사드리면 창고에서 온갖 농산물을 종류별로 담아 주신다. 마치 친정집에 다녀온 느낌이다. 매월 답례품을 갖다드리면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신다. 내 주머니를 털어 사다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저 내게 고맙다고 하니 때로 점연쩍기도 하다.

‘그래, 난 복 받을 거야. 보는 사람마다 내게 고맙다고 하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가을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환하게 화분을 비춘다. 어머니님이 주신 길으로는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작은 화분 속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함께 자라고 있는 듯하다.

오늘도 불응에 힘들어 하며 현장을 누비고 있는 통계인들 파이팅!!!

영혼(靈魂)으로 통계를 사랑하다...

장려상

권영주 | 동남지방통계청 진주사무소



“세월이 우수라 천년도 수유던가!” 라는 고등학교 국어책에서 배웠던 단어가 막 소스라치게 다가오는 것은 엇그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던것 같은데 벌써 19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다. 1993년 10월 첫발령을 받아 혼자 함안이라는 낯선 곳에 통계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통계가 뭔지도 어떤일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오로지 내 가슴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사회 첫 출발이라는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간과 공간의 한 견에서 사회에 몸을 실었다.

통계라는 단어는 뉴스나 신문에서나 접해본 경험 외에는 전혀없는 통계조사, 더욱이 논과 밭을 헤매며 작물과 경지면적을 조사하고, 축사를 휘저으며 가축을 대상으로 조사 하는 등 농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통계조사는 정말 사회에서 생각했던 공무원으로서의, 아니 내가 생각해왔던 공직자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 갈등과 번민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낯설고 도무지 일이 감히 잡히지 않았다.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부모님한테 떳떳해질수

있다는 거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었던 내가 철없고 얄미워지기도 했다. 사회라는 곳이 참 만만히 볼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처음 비로소 깨달았다. 낯선 곳, 미지의 세계에 누구라도 처음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을 맞이하지는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난 후에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업무에 몰두하게 되었다.

통계사무소에서 10월은 농사로 보면 곡식을 모두 거두어 들이는 달이고 아주 중요한 결실을 맺는 시기이다. 발령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논벼생산량조사였다. 농업에 전혀 경험이 없던 터라 눈에 들어가서 정해진 범위 안에 낮으로 수확하는 것이며, 수확한 벼를 묶어 벼를 안고 걸어가는 거, 벼 포기수를 세는 일, 논두렁을 걷는 것조차 모든게 낯설고 매우 힘든 일이었다.

차라리 고향이 농촌이었다면 이런 것 쯤은 쉽게 따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90년대 초반에는 기계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농업통계조사하는 방법이 수동으로 작업 조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탈곡하는 작업, 제현하고 단별하는 과정을 처음 보는 나로서는 모든게 신기하고 두렵기도 했다. 도시처녀가 농촌으로 시집와서 어르신들과 함께 체험하는 수준이랄까... 아! 이렇게 농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농산물생산량조사 중에서도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중요한 것이 논벼생산량조사일 것이다. 정부는 물론 농민들 또한 논벼생산량조사에 큰 관심과 반응을 보였던 조사였다. 일년에 한번하는 8.15 논벼작황조사와 9.15 논벼예상량조사가 있다. 예상량조사는 날씨가 좀 서늘해서 작업하기가 작황조사보다는 좀 수월한 작업이었다. 논벼조사는 업무특성상 혼자하는 조사가 아니라 조별로 구성된 3~4명이 함께하는 조사라 공동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8월에는 비가 수시로 오는 날씨 때문에 제때에 조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엔 보고 기일 안에 보고 하려면 주말에도 출근하여 부득이 조별

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는 바야흐로 2000년 8월 논벼 작황조사때였다. 주말에 나와 조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 아들이 5살로 집에서 마땅히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형편이고 일요일라 어린이집도 문닫고 쉬는 날이어서 무엇을 하든 무조건 애를 데리고 다녀야 했다. 어떡하랴! 아들을 혼자 차에 놓아두고 눈에 들어가 조사를 했다. 이때처럼 마음이 아픈 적이 없었다. ‘차에 혼자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면 어떻게까?’ ‘또 어린것이 차 안에서 익숙지도 못한 물건을 잡고 다치면 어떻게? 하는 걱정속에 조사를 해야하는 나 자신이 참 괴롭고 힘들었다. 그나마 놀이터 같은곳에 차를 세워 조사할 때이면 논두렁에 앉아서 강아지풀을 뜯어서 벗삼아 놀고 하고, 그러다 혼자 지치면 울고 쓰러져 잠들어 버리곤 하는 아들을 볼 때면 엄마의 마음은 너무도 아프고 시렸다. 그런 짝한 마음이야 어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엄마로서의 자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 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드는것은 인지상정일까?’

세월이 많이 흘러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그때의 어린시절 아들을 생각하면 의외하게 자라 준 아들이 고맙고 대견스럽기도 하다.

“아들아! 엄마가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했고 그래서 오늘 너를 더욱더 소중히 바라보고 있는 거야” 라고 저 혼자말로 지나간 그때를 더듬으면서...

또 하나의 아련한 농업통계조사의 추억은 농촌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나에게 가축통계조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 가축조사를 하는 나로서는 가축통계조사구 요도를 보는 것도 생소하고 어려워 한참을 헤맸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익숙지 않은 거라 일 진행속도는 올라가질 않았다. 다른 직원들은 1주일 정도 조사를 하면 삼일정도는 더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가축조사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송아지의 암수구별이 가장 힘들었다. 주인이 없을 때 암수를 구별하기 위해 소마구에 들어가 작은 지팡이로 소를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다가 소 뒷다리에 치여 넘어져 옷을 버리고 엉망이 돼 허탈하게 혼자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고 했었다. 또한 주인에게 들켜 “야! 거기 누가 소를 훔치려고 하는거야?” 하는 주인의 성난 목소리에 깜짝 놀라 죄인마냥 미안해 하면서 조사목적과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누명 아닌 누명을 벗고 조사했던 아련한 기억들이 떠오른다.

2001년 12월 가축조사 어느 한적한 시골 촌동네.. 약간씩 눈바람이 날리고 있었고 한참 가축조사를 하고 다음 집으로 이동하는데 나이가 좀 많으신 할머니께서 혼자 마당에서 김장을 하고 계시는 거였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얼마나 김치를 드신다고 꽤나 많은 양의 김치를 담고 계셨다. 아들, 딸, 동생댁, 친척등과 같이 나눠 먹는다고 하신다. 혼자 김장하시는 모습이 친정엄마가 생각나 짝한 마음에 약 2시간 정도 팔을 걷어 부치고 못하는 숨씨지만 도와드렸다. 그 참에 하루를 더 조사해야만 했지만...그날 점심은 금방 만든 김장김치, 김이랑, 시락국이 전부인데도 얼마나 꿀맛이었는데 그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약간의 노동을 한 뒤로 더 맛이 있었는데.

같이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거 자체가 어머님한테는 고마운 일이었고 집을 나서는데 저에게 김치를 몇포기 싸 주시는 것이었다. 무, 동치미, 시금치조금 등을 같이 챙겨주셨다. 친정나들이 온 딸을 챙겨주시듯이..정성스레 진심이 느껴질 정도로 따뜻한 정을 느끼면서 발걸음을 돌렸다.

공동으로 하는 작업이 많은 반면 작물재배면적조사처럼 혼자 요도를 보면서 눈두렁과 발두렁을 다니는 경우도 있다. 처음하는 작물조사 제일 난감한 것은 작물식별 오류로 인한 실수이다. 생강을 대나무로 조사한 것, 토란을 연으로 조사하고 고들빼기를 잡초로 오해 면적을 빼 먹은 것 등등 많다. 7,8월의 작물 조사는 더위로 인한 땀과의 사투를 벌이는 게 제일 관건이었다. 먼저 출발하기 전에 썬크림은 필수로 바르고 토씨, 모자로 중무장을 해도 쏟아지는 땀과

햇빛을 피할 수는 없었다. 며칠 작물조사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새까맣게 타는 팔목, 손, 얼굴 기미가 올라왔다. 왜 촌 사람들이 피부가 까맣게 되는지 이해가 되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이 다섯 살 무렵에는 주말에 같이 작물조사를 하는 것이었다. 하동 청학동 단위구 3~4개를 하고 남편하고 아들은 자연속에 묻혀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다. 개울가에 앉아서 개구리도 잡고 여러 가지 식물들도 관찰하고 산속 공기도 실컷 마시면서 자연을 느끼고 오는 것이었다.

한참 작물조사를 하고 밭 고랑을 내딛으려고 하는 순간 이상해서 다시 확인하는 찰나 큰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나를 주시하고 있었을 줄이야 갑자기 무서움과 공포가 온몸으로 짝 몰려듬과 동시에 현기증이 일어나 아찔했었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큰일나겠다 싶어 재빨리 뒷걸음쳐서 겨우 빠져 나왔던 기억들이 떠올른다. 밭고랑 사이를 가다가 질러갈려고 폴짝 뛰어내리다가 밭목을 접질러 깁스를 한달동안 하고 다니고, 파묘상을 밟아 농가에 배상한 경험, 돈 주고도 못 할 삶의 체험을 많이 하였다.

산에서 혼자 배낭을 메고 돌아다니는 나를 보고 무슨 간첩취급을 받은 적도 있고 봄이면 산에 산나물을 뜯어 파는 아줌마로 오해를 하기도 하는 건 일쑤고 무슨 처녀가 산에서 통계조사를 하냐고 한심해 하기도 했다.

무슨 공무원이 편하게 책상에 앉아 일을 해야지 이렇게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하냐고 걱정가득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농촌의 아버님, 어머님들 모습이 눈에 선하다. 공무원이란 직업과 나의 행색이 영 어울리지도 않고 못미더운 말씀들.. 그래도 그 속에는 말로는 표현못하는 정(情)이 흐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하는 경제통계조사 업무는 농업통계와의 정반대의 성격이다.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지금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정

이렇게 많이 작용한 듯 싶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걸 느끼면서..도시속 각박한 공간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 들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이다. 아파트 높은 빌딩 속을 빠져나와 초록색 풀이 있는 산을 보면 마음이 먼저 푸근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농업통계경험 이후로 논과 밭 산을 보는 나의 눈도 많이 달라졌다. 삶의 깊이가 느껴진다고나 할까? 시기별로 밭에서 나는 배추 무 등을 보면 내가 한때 열심히 조사하던 작물인데 잘 키우고 있구나, 배추 한 포기 키우기 위해 얼마나 농부의 손길이 많이 갔을지 하는 짝한 마음도 함께 느끼면서, 말 못하는 풀, 잡초 하나라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거,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고마운 경험이고 소중한 추억인것을 느낀다.

나도 누군가에게 미소를 띄우며 행복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내면에는 순수하고 정이 많은 감정들이 베이스로 깔려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순수한 農心에서 우러나오는....

설득은 진행형이다.

장려상

김보영 | 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출장도 가지 못하고 발이 묶여있다.

때론 내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을 신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다.

통계조사원으로 일한지도 어언 7년. 처음부터 가계조사만을 담당해왔다. 그래서 나를 가계조사에 대한 지침서숙지 및 가구관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가구원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때로는 벽차계만 느껴지고 힘겨울 때가 있다. 그래도 잘해내고 있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하다.

내 나이가 올해 마흔이다. 삼십대에는 마흔이 되면 뭔가 내 자신이 많이 달라져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않다. 단지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내 나이에 책임을 지려고 더 노력한다.

늦둥이 셋째를 낳고 3개월의 출산휴가와 12개월의 육아휴직을 통해 15개월

을 전업주부로 지냈다. 위의 두 딸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만 셋째 돌보기만도 벅찰 지경이어서 계획했던 대로 되지는 않았다. 휴식이 끝나가면서 아이들을 돌보며 주부로 남을 것인가 복직을 할 것인가를 두고 많이 고민했다.

결국 복직하기로 결심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내겐 지난 15개월이 긴 휴가와 같았다. 복직 후 전에 담당하던 조사구는 다른 분이 담당하고 계셨고 새로운 3조사구를 배정받았다.

새로 맡게 된 조사구는 전임자의 발령이나 임시조사원의 계약만료 등으로 담당자가 자주 바뀌었다고 한다.

조사구 방문 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또 조사원 바뀌었어요?’였다. 특히 창원의 중심가에 위치한 26평 복도식 아파트 조사구는 불응이 심했다. 면접 거부도 있고 가계부가 4권이 나오며 회수율이 50%를 넘지 못했다.

다른 한 조사구는 표본연동이 시작되어 가계부기입 설득을 해야만 했다. 또 경제활동인구조사만 하고 있는 나머지 조사구 역시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통계청에 대한 유대관계나 끈끈한 정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조사구를 담당해왔지만 최악인 것 같다. 하지만 신은 감당할 만한 시련만을 허락 하신다고 했다. 오랜 휴식을 취하고 온 덕분인지 일에 대한 열정이 솟아났다. 새 힘을 얻은 듯했다. 전투력 상승!

조사구를 열심히 방문하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드렸다.

보통 불응이 많더라도 1년 정도 조사가 진행되면 가계부를 써 주시는 가구와는 유대관계가 좋아지고 신뢰가 쌓이기 마련인데 이 조사구를 그렇지 못했다. 방문하는 가구마다 이거 안하면 안되느냐며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게 역력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해나가던 나는 자꾸만 벽에 부딪혔다.

심지어 2가구는 전자가계부 기입을 잘 해오시다가 불응이 난 경우다. 이런 사례는 드물다. 가계기록부를 보니 정말로 성실하게 가계부를 잘 써주시던 가구였다.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원래 자기 성격이 꼼꼼하고 완벽주의자라고 한다. 결혼하고서부터 계속 가계부를 써왔는데 통계청조사를 하면서 전자가계부를 잘 써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완벽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가계부 적는 일이 온 생활의 중심이 되고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큰 병을 얻어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불응하게 되었고 가계부하면 신물이 나서 지금은 자기 가계부 적는 일도 그만두었다고 한다.

옆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내가 방문하니 억지로 문을 열어주는 하는데 몸을 옆으로 돌리고 앉아서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가계부 얘기할 거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싸늘하게 이야기한다. 그녀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높달란 벽이 쳐진 느낌이였다.

그렇게 몇 달을 설득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설득을 해나가는 동시에 가계부를 적고 계신 다른 가구와도 유대관계를 쌓아 나갔고 담당자가 바뀔까 봐 우려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더 이상 담당자는 바뀌지 않을 거라며 안심하시라고 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얘기하기 힘든 개인사정을 이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 하셔야 했으니 힘드셨을 것 같다. 아무리 인수인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글로 표현하기 힘든 섬세한 속사정들이 더 많은 법이기 때문이다.

처음엔 싸늘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친근한 사이가 되었다. 조사한다고 이것저것 여쭙보아도 잘 대답해주신다. 그리고 가계부 안쓰면 안되냐는 말은 더 이상 안하시고, 잘 못써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신다.

가구방문을 꺼려하시는 분들의 특성을 알게 되어 보조조사표 및 전화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면접 시에는 불응하고 거부하시던 분들이 의외로 보조조

사표에 잘 적어 주시고, 전화에 잘 응해주시는 경우도 있었다. 그야말로 가구 특성에 맞게 대처해나갔다.

그런데 한번은 초과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가계부설득을 위해 가구를 방문을 하였다. 맞벌이 가구로 퇴근이 늦어 잘 만날 수 없는 가구들이었다. 마침 비슷한 경우의 두 가구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한분은 인상이 부드러웠고 한분은 강해보이셨다. 한 가구는 처음부터 불응인 가구였고 다른 가구는 불응 대체를 위한 설득이었다. 조사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가계부 기입을 부탁드렸다. 결과는 두 가구 모두 기입을 약속해주셨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맞벌이주부로서의 동병상련을 느꼈다.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는 느낌.....

특히 처음부터 불응이던 가구는 내가 먼저 가계부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협조용으로 챙겨주었던 답례품에 대해 고맙다고 하시며 안 그래도 아들이 제대를 해서 전자가계부를 써볼까 생각중이라고 했다. 때마침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가계부 기입약속을 받았다. 펼 뜻이 기뻐지만 기쁨을 누르고 집으로 가는 차안에서 외쳤다. ‘앗싸~’ 늦은 시간이었지만 퇴근길이 정말 행복했다. 거리의 내온사인이 더욱 더 찬란하게 반짝여 주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밤’이었다.

그리고 불응가구 전출 후 전입이 되었다. 새로운 마음으로 퇴근길에 방문하였다. 금요일이었다. 인천에서 남편직장을 따라 이사를 오셨다. 너무 이야기가 잘 통했다. 들고 갔던 가계부를 내놓으며 설명을 드렸다. 흔쾌히 전자가계부를 써주시겠다고 하신다.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 한통의 문자가 왔다. 전입가구였다. 남편이 반대를 해서 가계부를 써줄 수 없으니 상품권이랑 가계부를 도로 들고 가라고 한다. 허걱! 심장이 철렁한다. 코너로 몰리는 느낌이다. 가계부 한권에 이리도 희비가 교

차한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괜히 짜증도 났다. 주말이 어떻게 지나 갔나 모르겠다.

아들을 통해 전자가계부를 써주마 하셨던 그 가구도 그 밤 이후로 연락두절이었다. 가구주와 통화를 했지만 자기가 볼 때 가계부 기입은 어려울 것이라며 나중에 통화하자다.

그리고 기입을 약속했던 다른 가구 역시 가계부를 못 쓰겠다고 한다. 아이쿠. 큰일 났다. 그날도 역시 초과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가구를 방문하였다. 배우자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오산이었다. 배우자들은 아직 퇴근 전이었다.

한 가구의 문이 열려 있었다. 인사를 하며 들어가자 가구주는 몹시 당황하며 성을 냈다. 미리 약속도 없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이닥치느냐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조사원은 처음 봤다며 경찰 조사도 안 해주겠다고 한다. 아차 싶었다. 가계부 설득에만 욕심을 내다보니 내가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지난번에는 이 방법이 통했지만 이번엔 아니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이렇게 까지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싶었다. 미처 전해주지 못한 롤케이크 상자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거리의 네온 불빛은 너울거렸다. 내 잘못이 크다. 하지만 그분도 너무 하신다 싶었다. 내 전화를 받지 않으시니 나도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자꾸만 서러움이 북받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가구주와 배우자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냈다. 이리다간 경찰 조사마저 불응이 날 수 있으니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설득은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닌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 후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가계부를 써주고 계신다. 화를 많이 내셨던 그분도 나중에 통화해보니 청소도 하지 않아 집도 엉망이고 아침에 먹었던 밥상도 그대로여서 창피하기도해서 더 화를 내셨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 조사는 보조조사표도 넣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라 하신다. 그러면

잘 대답해 주시겠다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경찰 마저 불응 되는 줄 알고 마음을 졸였었다.

지금도 두 조사구 합산 가계부 회수율 77%정도. 목표치와는 거리가 멀다. 다른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든다. 그러나 나의 노력의 결과물들이다. 그리고 설득에 마침표는 없다. 나의 설득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낮은 회수율로 인해 더욱 겸손해지며 최선을 다하게 된다.

그리고 본청장님께서 사무소를 방문하셨을 때 불응가구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던 나는 통계청조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현장에서 너무 힘들다며 본청차원에서 어떤 홍보계획을 갖고 계시느냐고 당돌하게 질문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창원사무소가 '소화제2'라는 방송에 나가게 되었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일 먼저 지원하여 '고래고래'라는 코너에서 발언하게 되었다.

'막힌 속은 뽕! 참았던 말은 고래고래~ 할 말은 하고 사는 세상' 이라는 아나운서의 멘트처럼 마음 같아서는 불응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고래고래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통계청에서 인구조사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아니 아니 되오~'라고 하며 각종 통계조사를 홍보하며 조사원 방문 시 물 한잔 주시고 꼭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방송촬영 자체도 긴장감 넘치고 무척 흥미로운 작업이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통계청 이미지가 좋아지고 미래의 응답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임했기에 보람되었다.

몇몇 조사구분들도 tv에 나오는 거 봤다고 하시며 우리 담당 아가씨(?)가 제일 예쁘고 잘했다며 칭찬해 주셨다. 그리고 '불응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하며 오히려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렇다. 불응으로 인해 때로는 너무나 힘든 게 사실이지만 더 많은 응답자들이 있다. 그리고 현재 불응이지만 미래의 응답자들 또한 많다. 그리고 한편 한

권의 가계부가 너무나 소중하며 이 가계부를 기입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너무나 감사하다. 지난번에는 이 감사한 마음을 못 이겨 한분 한분에게 손 편지를 보내드렸다. 진심으로 눈물이 나도록 감사했다.

불응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때는 그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일들. 본인들에게 크게 이득 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에 그리고 담당자의 성의를 봐서 그렇게 통계조사에 협조해 주시는 것이리라.

그런 한분 한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나 또한 내 위치에서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련다.

달한 마음엔 편지만이 약입니다.



장려상

최미향 | 충청지방통계청 서산사무소

『내가 편하게 한 발 다가서면 그들은 편하게 두 발 다가온다』 이것은 내가 현장을 발로 뛰며 터득한 교훈이다. 현장조사를 하다보면 언제나 최선을 다해보지만 늘 한계에 부딪힌다. 당당하게 다가섰다가도 그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고심하게 되고 또한 한발짝 물러서게 된다. 하지만 두발짝은 절대 안된다. 너무 멀리 물러서면 다가가기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임을 누구보다 나는 잘 안다.

이 농가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젓소 농가로 표본이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곳이라 안타깝게도 서로가 어색한 관계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붕이 파손된 것을 수리하다 갓 결혼한 아들이 축사 위에서 떨어진 사건이 있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들은 허리를 심하게 다쳤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했다. 옆친 데 댈친 격으로 어머니는 부정맥으로 쓰러지고 말았으니 집안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다. 그 심란한 가운데 조사한답시고 애송이 조사관

이 이것저것 물으니 당연히 사장님의 심기가 불편도 하셨으리라.

아침 일찍 일하고 녹초가 된 사장님께 젓소에 관해 여쭙보면 “이런 집구석에 뭘 조사를 한다고 와. 눈으로 보고도 조사가 나와? 그러지 말고 다른 집 알아 보슈. 나도 피곤하고 이런 저런 생각하면 깡깡스러우니께 이해 좀 해 주고 그냥 돌아가유.”

조사답례품조차 받지 않으려고 돌아서시는 사장님께 괜히 나조차 송구스러워 탁자 위에 말없이 상품권을 두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들렸던 사장님의 한숨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귓전을 때렸고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방문의 의미와 더불어 농가 식구들과 친숙해지기 위해 고심을 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는데 무엇을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농가 이야기를 저녁 식사자리에서 우연히 식구들에게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딸이 한 말

“엄마! 걱정하지 마. 편지 쓰면 되잖아. 엄마가 나한테 편지 써주면 나 엄청 좋아하는 거 엄마도 봤잖아. 아마 그 아저씨도 엄마 편지받으면 진짜 좋아할 걸!”

딸아이의 이 한마디가 내 가슴을 뻥 뚫리게 만들었다. 너무도 원시적이지만 너무도 감동적인 자필서신!

‘맞아 어찌면 이것이 최선일수도 있어. 막히지마. 다 뚫어버리겠어.’

단단히 각오를 하고 나는 간접적으로나마 부딪치며 나의 마음을 전하리라 작정했다.

당장 시행에 옮겼다. 사장님과 사모님께 드릴 두통의 편지를 쓰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래려 안간힘을 썼다. 혹시 이 편지를 받으면 “쓸데없는 짓했슈”라고 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바빠죽것구만~”하면서 찢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할 지경이었다. 그래도 나는 딸아이의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대한민국의 정서는 아직도 살아있으니. 아무리 강한

척하시는데 사장님이시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쩌면 더 여린 감정들이 숨어있지 않을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그렇게 밤새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가며 방문을 했다. 처음부터 반응이 꼭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꾸준히 쓰다보면 나 자신이 먼저 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리라 생각하며 쓴 글이었다. 일상생활의 얘기며 아이들 얘기며 주변의 얘깃거리며....

축산에 관한 얘기를 쓰면 너무 진지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빼고 우리의 살아가는 얘기 위주로 이웃집 언니, 오빠에게 쓰듯 가볍게 차근차근 접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장님께서 나에게 전화를 걸어오셨다.

행정서류 마감일이 바로 오늘인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돼지 농가가 구제역 양성판정이 났다며 이동거리제한에 걸려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였다. 걱정하다 생각난 사람이 바로 통계청이라고.

하늘을 날듯이 기뻛고 드디어 나의 진심이 통했나 생각하니 뭔가 큰일을 해냈다는 성취감에 희열을 느꼈다.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분의 뇌리 속에 내가 생각났다는 것. 이것은 아마도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기쁨이리라. 걱정 말라며 그분을 안심시키고 앞뒤 썰 것도 없이 무조건 출장신청을 했다.

그런데 아뿔싸!

그곳이 구제역 지역이라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거였다. “서산 지역은 구제역이 없는데 괜히 통계청 직원이 갔다 와서 혹시라도 구제역이 서산으로 오면 어쩍니까!” 일언지하에 거절!!!

역지를 썼다. 몸을 완전 소독하고서라도 다녀오겠다고 졸랐고 통계청을 그

만두는 한이 있어도 다녀와야만 되겠다고. 그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게 아침 일찍 전화했겠냐며 우리가 그 분을 필요로 할 때처럼 그분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달려가 줘야 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설득을 했다.

결국 사무실에서는 나의 억지에 두 손 두 발을 들었고 대신 군청에만 갔다가 오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내 출장에 팀장님을 동행시켜주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건 그분의 농가는 바로 전날 구제역백신을 접종하여 그나마 매몰은 면할 수 있던 농가였다. 만약 백신을 하루 사이로 접종하지 않았다면 완전매몰의 아픔을 겪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부터 그분은 외출뿐만 아니라 택배조차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먹을 거리도 사라 나갈 수 없는 형편이라 완전한 고립속의 고립 그 자체였다. 그나마 집배원아저씨가 회관에 우편물을 내려놓고 간다기에 나의 걱정과 안타까움을 편지로 대신하여 보냈다.

힘겨운 시간들이 그렇게 흘러갈 즈음의 어느 날,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제 숨 좀 돌릴 틈이 생겼으니 감사한 마음에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더 반가운 것은 이제부터 일계부 다 써주겠으니 쓰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말씀.

“통계청 직원들은 다들 그렇게 친절하고 고마워요? 정말 이번에 너무 고마웠어요. 부탁한 일도 그렇고 편지도 그렇고. 정말 편지는 언제 받아봤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누가 우리에게 이런 따뜻한 편지를 써주겠슈. 요즘 시대에……. 우리 집사람도 이런 사람 드물다며 감격하고 있슈.”

나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백그릇 천그릇 음식을 먹은 만큼 배부름을 느꼈다. 그때부터 봄 햇살이 질어질 무렵까지 사장님과 나와의 데이트는 주유소 귀퉁이에서 이뤄졌다. 구제역으로 인해 농가방문을 자제하고 있던 터라 말이다. 일주일에 한번씩 사장님은 일계부를 들고 나를 기다려주셨고 나는 따뜻한 차를 들고나가 나눠 마셨다.

조사 거부에 대한 미안함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란다는 말씀. 그리고 진심으로 편지에 감동받았다는 사장님의 고백! 그 편지를 읽으면서 통계청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 앞으로는 편지쓰기가 힘드니 핸드폰 문자로 잊지 말고 일주일에 한번씩 꼭 넣어달라는 말씀 등등~

그렇게 따뜻하신 분 인줄 미처 몰랐었다. 예전에는 먼 발치에서만 봐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는데 편지라는 매개체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이렇게 온순한 양으로 변하게 될 줄이야…….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가장 뜨거운 심장을 관통하게 되다니…….

더구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오늘도 맞춤식 문자로 세 식구에게 문자를 날린다. 사장님, 사모님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 (아들은 내게 이모라고 부름)

이제는 통계조사관이 아닌 그들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 그들 가까이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발맞추어 나가고 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 축산인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다.

『통계청은 당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습격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당신들 곁에는 항상 당신을 지지하는 우리가 있으니깐요.

맞춤형 고객서비스로 당신들과 소통하기위해 오늘도 현장으로 달려 갑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오늘만 허락 된 일

장려상

이민자 |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



아침부터 날씨가 어둡다. ‘어제까지만 해도 해가 방긋 날씨만 좋더니 하필 오늘 날씨가 흐릴게 뭐람’ 그래도 비가 오지 않아 다행이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불안하다. 비가 오면 조사표와 우산을 들고 대상처를 다녀야 하고,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러워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몇 해 전인가 농축 조사 일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비가 내린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해 겨울엔 눈이 많이 내려 도로에 차가 다닐 수 없어 걸어 다니며 조사를 했던 적도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 권역은 사무실과 멀리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닐만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무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권역의 담당자들은 눈이라도 많이 오는 날이면 택시와 버스를 타고 다니며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한다.

그래서 다른 업무에 비해 물가조사 담당자들은 날씨에 민감하다. 그러나 우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일은 오늘만 허락된 일이니까.

오늘만 허락 된 일에는 농축조사, 공업제품조사, 서비스조사가 있다. 이 세 조사를 하면서 경험하고 겪었던 내용을 조사 과정에 따라 때론 재미있게 때론 공감하는 내용들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농축 조사일이다. 농축조사는 매월 5,14,23일이 포함된 주에 한다. 난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물가조사를 나가기 전에 인터넷 뉴스나 업무시스템의 물가 방에서 그 날의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정보를 훑어본다.

물가 업무방에 많은 정보를 올려 주시는 분들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농축조사는 우선 엠북에 농축 자료를 전송 받은 후 물가시스템에서 종이 조사표를 출력하여 출장 나갈 준비를 한다. 엠북에 직접입력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난 종이조사표에 우선 조사를 한 후 엠북에 입력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사를 하면서 업체의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메모로 적어 놓기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나의 경우 종이조사표가 편해서다.

농축조사 대부분의 품목이 대형할인점에서 조사하고 있다. 대형할인점은 기본 규정이 소비자가 아닌 방문객은 보안센터에서 방문기록부에 기재를 한 후 출입허가증을 받아야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안센터에 가서 외부출입카드에 기관명, 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적고 방문증을 받아야 그날 조사가 허락되는 것이다.

처음엔 규정대로 했다가 얼마 후 판매원이나 코너 담당자들 그리고 보안요원들까지 얼굴을 알게 되면서 이런 규정이 번거롭고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조사 일에 사무실 책임자에게 이런 번거로운 규정은 생략해 주길 부탁드렸더니 신분을 재차 확인 한 후에 허락해 주었다.

그날 이후로 번거로움과 시간낭비를 줄여 열심히 조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여자 요원이 다가오더니 무서운 얼굴로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나오셨죠? 보안센터에 다녀오신 겁니까?” 상대방의 말은 들어 볼 생각도 없이 다짜고짜 질문만 하는 것이다. 그저 “그게 아니고

요” 만하다 결국 출입카드를 가슴에 달고 조사를 했다.

다음 조사 일에 사무실로 찾아간 나는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보안 요원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공지를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 3교대에 사람들은 수시로 바뀌어 일 일이 말해 주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나는 곰곰이 생각한 결과 통계청 전용 출입카드를 주면 조사 때마다 보안센 터에 들릴 일 없이 출입카드만 달고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더니 이번 에도 흔쾌히 허락을 받아 그 후로 지금까지 수월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통계청 전용 출입카드는 말이 통계청 전용이지 다른 출입카드와 같은 것이 다. 대형마트에선 한주에 한번 이상 판매원들과 얼굴을 보게 되니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무슨 조사인가 싶어 경계하더니 지금은 인사말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한번은 조사하고 있는 나에게 판매원이 살짝 다가와

“이거 내일부터 세일 들어가ते 그래도 내일 사지 마요. 다음 주에 더 할인이 들어가니 그때 사”

귓속말로 정보를 흘려주기도 한다. 상품의 무게를 재려고 저울에 가까이 가면 하던 일도 멈추며 자리를 내어주고 하고 가끔 과일이나 음료수를 건네는 판매원도 있다. 이래서 대형마트에서의 조사는 편한 축에 든다. 하지만 재래 시장 조사는 그렇지 못하다.

지금은 내가 4권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예전에 3권역을 담당하고 있을 때 재래시장에서 농축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달랐다.

농축조사는 11시부터 조사 시작이다. 마트야 11시에 가서 조사를 해도 괜찮지만 재래시장은 다르다. 11시에 가든 12시에 가든 개시를 해야 그날 장사 시작이다. 개시도 못 한날 조사라도 하러 가면 대뜸

“개시도 못했는데 재수 없게 무슨 조사야? 개시라도 하고 조사를 하던지.”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팔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산 물건은 대부분 금방 상하는 것들이라 계속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 다음 조사 대상처의 응답자의 몫이 된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선물을 받게 된 응답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응답을 잘 해주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재래권역을 담당하는 분들은 고생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농축조사는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조사를 마치면 일반 슈퍼로 간다. 일반 슈퍼는 대형마트와는 사정이 다르다. 일반마트의 대부분은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인에게 예민하고 기관에서의 조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안녕하셔요? 태풍으로 비가 많이 와서 장사하시는데 힘드셨겠어요?” 하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뭘 조사는 한다고...”

며칠 동안 비가 내려 장사가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 것이다. 대형마트는 판매원이 있어도 조사하는데 있어 방해받지 않지만 일반 마트는 사장이든 판매원이든 일대일로 상대하다보니 그날그날 매출액에 따라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장사가 잘되는 날에는 고생 많겠다며, 걱정 해주다가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내려 장사를 못해 매출이 떨어지면 그 스트레스는 우리의 몫이 된다.

이주전의 일이다. 물가조사를 하기 위해 슈퍼에 들어서며

“안녕하세요?”

했더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버럭 소리를 지르며

“물가조사는 뭐하려고 하는 거? 맞지도 않는 거. 물가조사를 해갔으면 내려가는 것도 있어야지. 나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놈의 물가는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갈지를 몰라. 그런데 물가는 뭐하려고 하러 다니느냐고.”

뭔가에 화가 많이 나셨나보다. 8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후 가는 곳마다 자

주 듣게 되는 내용이다.

그분들이야 발표한 내용만 보고 말씀하시지 그 속 내용이야 알 수 있겠는가. 또 설명을 한들 이해를 하시겠는가. 난 한참을 꾸중 듣듯이 듣고 난 후 “그러게나 말이예요. 힘드시죠?” 하고 만다.

물가조사를 시작하지 4년이 넘어 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회는 해를 거듭할 수록 발전해 가는데 사람들은 더 힘든 세상에서 사는 것만 같아 나 자신도 불안한 생각이 든다.

슈퍼를 두어 군데 더 조사를 하고 방앗간과 꽃집을 조사하면 농축조사는 끝이다. 예전에는 금반지도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사를 마치면 사무실로 돌아와 종이조사표에 조사한 내용을 엠북에 입력을 하고 전송을 한다. 전송한 내용을 물가시스템에 들어가 품목하나하나 내검을 하면서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종이조사표에 적어온 내용을 비고사항에 적는다. 내검이 완료되면 농축조사는 끝이다. 또 뭐가 있었나??

공업제품 조사일이다. 공업제품은 14일이 포함된 주에 하게 된다. 공업제품은 품목수도 많고 규격도 다양하여 대상처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업제품 조사 일에는 밥을 굶거나 대상 처에서 산 빵으로 때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업제품은 대형 점과 마트는 물론이고 타일가게, 타이어 판매점, 전자 대리점등 다양하여 대상 처에서 겪는 일도 또한 많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다. 공업제품의 여러 품목들 중에 전자제품 조사가 있다.

전자제품은 대상처의 응답자가 컴퓨터 조회를 통해 출고가 및 판매가를 알려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조사하고 있는 전자대리점도 이제껏 그렇게 조사를 해왔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점장이 바뀌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린 이런 조사 안합니다. 하시려면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 중에서 직접 찾아 조사하도록 하세요.”

나와의 첫 만남에서 지점장의 말이다.

난 “예 하지만 진열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컴퓨터 조회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기 고객입니다. TV랑 청소기랑 밥솥을 저기 저분에게 구입 했어요” 라며 고객을 강조했더니 아무 말 없이 다른 일을 보는 척하는 것이다.

나는 지점장의 말없음이 거절을 의미하는 줄도 모르고 이후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은 찾아 조사하고 없는 제품은 컴퓨터 조회를 통해 조사를 했다. 그런 데 9월 공업제품 조사 일에 일이 터지고 말았다.

나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진열되어 있는 제품을 조사 한 후에 진열되어 있지 않은 5개 품목에 대해 응답자에게 컴퓨터 조회를 부탁했더니 옆에서 보고 있던 지점장이 “컴퓨터 조회까지 해가며 알려줘야 합니까? 난 못해주니까 돌아가세요. 그리고 본사에서 통계청 조사 오면 해주지 말고 쫓아 내라고 했어요.” 폭사 포처럼 퍼부어대는 지점장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다.

그동안 조사하면서 못마땅한 표정 지을 때 마다 굵실거렸던 생각에 순간 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숨 한번 크게 쉬고 “예 바쁘신데 번거로우시죠. 죄송하고요. 본사의 어느 부서 어느 분과 통화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설득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며 막무가내로 바쁘니까 나가라는 것이다.

다른 손님도 있고 거기서 옥신각신 해봐야 서로 입장만 더 나빠질 것 같아 일단은 내가 물러나기로 했다. 물러나 차에 타기는 했는데 그때부터 다리에 힘이 풀리며 일할 기분이 싹없어지고 은근히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우선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전자대리점의 점장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권역의 대리점에 가셔도 불응할 것이며, 또한 동종 다른 대리점의 사람들과 술자리나 또는 동석할 일이 있을 때 혹시라도 ‘통계청에서의 조사는 불응하면 조사 하지 않는다’라고 하기라도 하면 어

쩔 것인가.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팀장님에게 말씀드려 대상처 방문과 설득을 부탁드렸다.

다음 날 공업제품 일부 품목을 조사 한 후 팀장님과 대상처를 방문했다. 설마 팀장님까지 모시고 올 줄은 몰랐는지 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일단 얘기를 들어 본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팀장님이 소비자물가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비롯해 지점장을 설득해 보려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점장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였다. 하지만 팀장님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와 의무를 단호한 어조로 밀어 붙이니 결국에는 “그렇다면야 해야죠. 저도 장사는 안 되고 하니까 그랬네요.”한다.

그것도 진열되어 있는 품목은 기존대로 직접조사하고 진열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조사표를 놓고 가면 팩스로 보내주겠다는 허락을 받아낸 것이다. 조사표를 놓고 가면 정말 마감 전에 자료는 받아 볼 수 있을지 10월 공업제품 조사에서나 알 수 있겠다.

또 이런 일도 있다. 공업제품 품목 중 대상처가 많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어려운 대상 처를 잡을 때가 있다. 그런 대상처의 모든 응답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응답자는 우리에게 꾸준히 뭔가를 요구한다.

지금은 하지 않지만 얼마 전 상품권 배부 했을 때 매일 상품권을 요구하고 수첩은 월 초에 나온다고 해도 수첩 또 없느냐며 구해서라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럴 때는 난감하다.

난감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물건이라도 팔아줘야 웃는 얼굴로 반기는가 하면 “여름인데 선글라스 하나 장만해야지?” 하며 은근히 사기를 종용하기 오기도 한다. 안사면 웬지 낫뜨거울 것 같고 사려 들자니 필요 없는 물건이니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 할때가 있다. 그렇다고 늘 이런 분만 계신 것은 아니다. 그래도 가끔 “요즘 조사하러 다니기 힘들죠? 다들 어려워서 그런지 인심

만 사나워지고 그러네요.” 안쓰러운지 피로회복제를 주시며 기운 내라는 분도 계시다.

마트는 가끔 만남의 광장이 되기도 한다. 조사를 하고 있으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났는지 서로 반가워 어찌지를 못하면서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이 별을 아쉬워하며 헤어지는 모습을 간혹 보았다. 그런데 그런 일이 나에게도 간혹 생기더라 얘기다.

조사에 열중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 혹시 민자씨 아니예요.”한다. “누구” 하면서 뒤돌아 봐도 도무지 ‘누구지?’ 머릿속을 뒤져 아는 몽타주를 조회해 봐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먼저 “상담사 공부할 때” 한다. ‘나이가 같아 금방 친하게 지냈었는데. 서산에서 초등학교를 가르친다고 했었는데.’ 그제야 생각이 줄줄이 나는 것이다.

2년 만의 만남이라 무척 반가웠다. 또 한 번은 아산에서 같이 근무했던 언니를 만나 그동안의 근황을 주고받으며 신나게 수다를 떨다가 판매원의 눈치에 얼른 자리를 뜬 적도 있다. 그런가 하면 조사대상처의 응답자를 만나 “별 조사를 다하네요. 바쁘시겠다.” 라며 위로 받은 적도 있다. 이럴 땐 물가조사를 하다 보니 반가운 사람도 만나게 되니 좋구나 생각된다.

물가조사를 하면서 힘 빠지는 일은 출회가 잘되고 있던 품목이 보이지 않을 때다. 전 순기까지도 조사가 잘되고 있던 품목이 이번 순기에는 안 보인다. 출회여부는 한 순기 더 기다릴 수는 있지만 웬지 불안하다.

요즘엔 마트나 슈퍼도 자사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어 경쟁업체의 제품들을 진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다시 진열되는 제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대상 처를 찾아 기존 규격에 맞는 제품을 찾아야하기 때문에 물가조사를 하면서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대상처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크나큰 낭비라고 본다.

공업제품은 품목이 많고 품목별 판매가도 다양하여 특히 가격 입력할 때 주의를 해야 한다. 처음 물가조사를 맡고 TV가격을 입력 하는데 천만원으로 입력하여 엄청 놀란 기억이 있다.

자칫 실수를 저질러 250원 짜리 모나미볼펜이 2500원 짜리가 될 수 있으니 까. 공업제품도 농축과 마찬가지로 조사한 내용을 엠 북에 입력하고 내검을 마치면 공업제품 조사도 마감이다.

서비스 조사일이다. 서비스조사는 23일이 포함된 그 주에 한다. 공업제품은 품목도 많고 대상 처도 많아 힘은 들지만 어렵지는 않다. 왜냐면 공업제품 대부분 내가 직접 물건을 보고 판매가를 확인 할 수 있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서비스 품목 보다는 쉽다는 얘기가.

나만 잘하면 되니까 말이다. 하지만 서비스품목은 다르다. 또한 서비스 조사는 공업제품보다 품목은 적지만 지역이 넓다. 그 만큼 내 권역에서 대상 처를 찾기 어려워 타 권역에서 대상 처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전 지역이 다 내 권역이라고 보면 된다.

물가조사 중 서비스조사가 가장 까다롭다. 서비스 품목 대부분 응답자의 답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식당은 가격을 표시해 놓지만 다른 품목들은 응답자의 대답에 의존해야하며 또한 응답자도 수시로 변동이 있어 조사하기에 힘든 점이 있다.

특히 학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은 학원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무척 꺼려한다. 요즘은 교육청에 공시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세부규격에 따른 학원비를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선 공시된 내용이 없어 결국 학원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전에는 시간당 단가로 학원비를 산정했지만 지금은 분당 단가로 학원비를 산정하고 있어 학원 측에서는 학원비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다.

내가 조사하고 있는 대상 처 중 영어단과 학원이 있다. 처음 대상처를 선정했

을 때 학원장의 학원 운영방식이나 사고가 나와 같아 서로 친근한 사이가 되어 무난하게 조사를 해오고 있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학원 원장이 외부강사로 나가게 되어 학원 부원장이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무슨 세부규격까지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학원비만 조사해 가면 됐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물어보는 내용에는 싫으면서도 대답은 잘해주곤 했다. 그런데 8월 서비스 순기 조사 때였다.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학생들의 시간대에 맞추다 보니 세부규격에 변동이 생긴 것이다. 세부규격 내용을 자세히 물었더니 부원장의 태도가 바뀌면서 “도대체 내가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까? 항상 와서는 세부규격까지 물어 보는데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학원비를 외부에 노출하면 당신들은 교육청에 알려져 천안 학원비가 비싸다는 등 그런 소리만 나오게 만들고 거기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나 법대 나온 사람인데 청장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부원장의 당당함에 나는 조사한 내용은 비밀에 붙이며,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확신을 주었다.

하지만 부원장은 한사코 소장을 데려오라는 등 청장을 데려와도 내가 밀리지 않는다는 등 하면서 물러서지 않아 결국 나는 “이건 제일입니다. 이 일은 저에게 있지 그분들에겐 없습니다. 그동안 저의 어떤 점이 잘못되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선생님을 화나게 했다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답해주시기 힘드시면 제가 다른 대상 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처음 대상 처 선정할 때 원장이 학원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학원과 남다르다고 생각되어 원장의 생각에 감명 받아서 대상처로 선정했다는 등 학원에 대한 이미지가 맘에 들어 내 친한 사람들에게 학원 자랑도 했다는 등 좀 과장된 표현까지 했더니 부원장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는 본인이 직접 알려 줄 터이니 매일 꼭 찾아오지 말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알려 주겠다는 것이다.

난 가끔 우리가 하는 일이 마치 투쟁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소비자물가조사 일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은 누구와 투쟁을 해서 이겨야 하나. 지면 골치 아파지는데’ 그리고 이기고 나면 왠지 모를 승리감도 느끼는 것을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맘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한번은 식당에서 조사하는 품목이 있어 대상 처를 찾았더니 응답자가 하는 말 “통계청은 회식 안합니까? 회식하자고 해요. 우리 매출 좀 올려줘야지~.” 또 어느 날엔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우리한테는 상 안줘요? 뭐 통계청에서 주는 상도 있다며. 우리도 하나 줘요.” 한다.

회식을 안 하면, 통계청에서 상을 안주면 또 다시 투쟁을 해야 하나. 하지만 이발소 아저씨는 조사 때 마다 “이쁘니 왔네. 힘든데 뭐 하러 와. 전화 나누고. 누가 시켰어. 우리 이쁘니 힘들게 한다고 내가 혼내줘야지” 하시며 웃으신다.

가끔은 이런 분들이 있어 기운도 나고 재미있게 조사 할 수 있어 좋다. 이제 서비스 조사도 끝났다. 이렇게 농축조사, 공업제품조사, 서비스 조사를 마치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가 있다.

소비자물가조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무서운 것이 있다면 조사 일에 개인적인 일이 생기는 것이다. 아이가 사고가 났다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이다. 내 경우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이다.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이다.

물가조사일이라 갈 수도 없어 불안하고 걱정스런 마음으로 조사를 마치고 마감을 한 후 병원으로 갔더니 중환자실로 옮긴 다음 이였다. 난 아버지 얼굴도 못 봤는데 이게 마지막이 되면 어찌나 하는 생각에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 생각에 눈물이 난다.

중환자실에 한 달이 넘도록 있으면서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마다 가족

들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마음을 줄여야만 했다. 아버지는 가족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 후 회복이 되어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2월 공업제품 조사 둘째 날이었다.

그날도 조사를 위해 열심히 대상처를 뛰어 다니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위급하다는 내용의 전화였다. 마음 한구석이 “쿵”내려 앉는 걸 느꼈다. 하지만 난 당장은 갈 수 없었다. 여기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누가 내일을 대신 할 것인가 말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조사를 마치고 눈물이 범벅 되어 사무실에 와서 입력을 하는데 화면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울면서 했던지 주변에선 돌아가신 줄 알았다. 급하게 입력과 내검을 한 후 병원으로 뛰었다. 어떻게 병원에 왔는지도 모르게 병원에 도착하니 가족들의 표정이 침울하다.

의사의 말이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며 중환자실로 옮겼다는 것이다.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아버지가 내 얼굴을 봤을텐데 하는 생각에 난 병실바닥에 주저앉아 영영 울었다.

천만 다행으로 지적처럼 아버지는 고비를 잘 넘기시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퇴원해 계시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무섭다.

그리고 나쁜 생각일지는 몰라도 일이 생기려면 제발 물가 조사 일에는 피해서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건 아마도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본다. 같은 물가 조사를 하는 동료에게 일이 생겼을 때도 우선 물가 조사 일 부터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이제까지 물가조사를 하면서 겪었던 내용들을 조사 과정에 따라 체험 사례를 들어 보았다. 물가조사를 하는 담당자들이면 누구나 겪었고 겪고 있을 내용들일 것이다. 내가 소비자 물가조사를 하다 보니 이 조사는 세심한 관찰력

과 꼼꼼함 그리고 정확성이 필요함을 느꼈다.

나도 한때는 꼼꼼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한 순간 방심하면 실수를 할 수 있어 늘 확인한 것 재확인하여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상 처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 밝은 얼굴 표정과 부드러운 말솜씨와 상황에 맞는 대처능력도 있어야함을 알았다.

나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때에 차 안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며 ‘아, 예, 이, 오, 우’를 한다.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것은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워낙 얼굴이 무기인리라 입 다물고 있으면 화난 사람 같아 얼굴 근육을 풀어주고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대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차를 타면 하게 된다. 물가조사는 또한 많은 정보력도 필요로 한다. 인터넷 뉴스나 신문, 물가 업무 방을 이용하여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대상 처에서 가끔 물어 오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업무시스템의 보도 자료 조간스크랩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조간스크랩에는 특히 물가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아서 이용하기에 편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다. 어쨌든 어떤 조사가 되었든지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늘 노력해야함을 알았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았다.

체감 물가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와는 차이가 많아 허구 물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서민들이야 태풍의 영향과 가공식품의 가격인상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체감 물가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는 없다.

단지 정부의 발표에만 관심 있을 뿐이다. 이제 곧 추석이다. 얼마 전 태풍이 몰아치고 간 자리엔 뛰는 물가와 장바구니엔 서민의 부담만 가득 할 것이 불을 보는 것과 같다. 물가조사를 하다보면 늘 듣는 소리가 있다. “물가는 왜 그

렇게 자꾸 오른대요?”그럼 난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오늘도 난 물가조사를 위해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있다.

무서워도 너 ~ 무 무서웠던 할머니

장려상

이현주 | 충청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저녁 8시 30분경 전화벨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라 받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 응답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나를 아는 것 같다.

“통계청의 000선생님 아닌가?”

나를 찾고 있음이 틀림없다.

“누구신지..?”

낮익은 목소리는 예전에 조사했던 표본가구의 할머니였다.

“웬일이세요? 건강하시죠?”

“보고 싶어서 혼났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딸이 00아파트 사는데 우리딸집에 가면 선생님 집에 가고 싶어서...” 하 시며 말끝을 흐리셨다.

당황한 나는 “할머니, 저는 낮에 일해서 집에 없어요.”했더니

“그럼 저녁에 가면 안될까?” 하신다.

‘이미 연동으로 조사가 끝난 상태고, 1년여가 지났는데...’ 전화를 받으면서도 뭐라고 핑계를 대야하나 망설이고 있었다.

“그럼 우리집에 한번 와줘~” 하시길래

“예,언제가 될지 약속은 못하겠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하고 끊으려는데, 이사했으니 아들네 집으로 오라고 하신다. 찾기 쉽다는 말과 함께 중촌동에 있는 00지업사를 찾아오라고 하고선 아들네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다. 하지만 바쁜 생활 속에 금세 잊어버렸다.

출장을 마치고 운전 중 휴대폰 벨이 울린다.

아뿔사! 어찌지? 저번 통화 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시다.

“선생님, 바쁘지~? 언제한번 온다더니 왜 안와~?” 또 그러신다.

바빠서 못 간다고 딱 잘라 말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다.

현장조사를 시작한 첫날이었다. 1월 중순이라 날씨가 추워서인지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용운시장 근처 단독주택지역을 전입자가 인계해주면서 “주차할 자리가 없더라도 이집 앞에는 절대로 주차하면 안돼요.”했던 가구로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는데 어찌나 고약한지 대문 앞에 차만 대면 일부러 꼬챙이 같은 걸로 차를 긁어놓아, 동네사람들도 여럿 피해봤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대문에 “절대주차금지”라고 붙어있는 누런 종이를 보면 할머니의 찌푸린 인상이 연상됐다.

두 분은 85세가 넘었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 가구로 대문을 열고 우편함을 살피다가도 내가 인사라도 할라치면 대문을 꽁 닫고 들어가 버렸다. 대문 여는 법을 알았는데도 너무 무서워서 인터폰만 누르다가 3번째쯤 방문했을 때 용기를 내서 열어주지도 않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다. 현관 앞에 다녀간다는 메모를 남기고 돌아오기를 몇 번째, 전화를 하면 안 들린다고 끊어버리고, 전화로 집에 계신 걸 확인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면 할아버지가 아파서 문을 열어 줄 수 없다고 핑계를 대셨다. 계절

이 바뀌고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딸기를 사들고 다시 방문했을 때에도 얼굴은 보지도 못한 채 현관 앞에 빨리 쾌차하시길 바란다는 메모와 함께 딸기 바구니를 두고 왔다.

딸기 때문인지 다음 방문에는 할머니가 스스로 현관문을 열어주셨다. 하지만 여전히 가게부 설득은 진전이 없다. 냉랭해도 너~무 냉랭하다. 초보 조사원과 가게부설득을 위해 바뀌는 팀장님들마다 함께 방문하길 수차례지만 완강히 거부하셨다. 항상 찡그린 얼굴에 자꾸 윗사람들 데리고 온다고 버럭 화를 내더니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발걸음이 더 무거워졌다.

어느 날 조사구에서 일을 마치고 오는데 여전히 불응하고 계신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외출하실 모양이다.

“할아버지 저 일 다 마쳤는데 가는 길이면 모셔다 드릴게요.” 했더니

“바로 앞인데 뭐” 하면서 손사래를 친다.

“타세요. 바로 앞이라도 가는 길에 내려 드릴게요.” 했더니

“그럼 그럴까?” 해서 모셔다 드렸는데 가까워도 너~무 가깝다. 내 걸음으로 는 5분정도면 될 거리였다.

다음 주에 다시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는 웬일인지 환하게 웃으시며 맞아 주셨다. 할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절뚝거리며 걷게 되고 아프고 힘들었는데 짧은 거리지만 차를 태워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할머니에게 여러번 말씀하셨다며 이제부터는 주차할 곳이 없으면 우리집 대문 앞에 해도 된다고 했다. 그날 이후 대문에 붙어있던 누~런 종이는 없어졌고 대필이 시작됐다.

하루는 할머니가 “우리교인이 아니면 남은 우리집안에 발 들여놓은 사람이 없는데 선생님은 대단하시네! 언제 그렇게 이 동네 사람들은 다 포섭했어 그러?” 하셨다. 단독주택이라지만 시골도 아닌 도시에서 마당에 솔걸어놓고 불 피우고 쓰레기 태우고, 마당텃밭에는 음식물쓰레기 묻고, 모기나 날벌레 많다

고 구청에 전화해서 소독을 안 해서 우리집에 벌레가 생긴다고 억지부리는 막무가내 할아버지. 동네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도 황소고집이라 경찰도 포기한 노부부는 그렇게 주변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고 있었지만 이야기 상대가 필요하셨나보다. 적어도 1주일에 한번이상 방문하다보니 속에 있는 애길 꺼내신다. 그렇게 정이 들었나 보다.

몇 주후 사무실에서 세 번째 전화를 받았다. 이제는 안가면 안 될 것 같다. 할수없이 가게부를 서둘러 회수하고 미리 찾아놓은 지도와 연락처를 들고 물어 물어 지업사를 찾았다. 지업사 2층이 아들네 집이었다. 할머니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할아버지는요?” 했더니 조사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혼자서 외로우니까 할아버지생각과 내 생각이 많이 나서 연락하고 싶었는데, 연락처도 잊어버려서 못했다고 그러셨다. 그러다 살던 집이 팔려 아들네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서랍 속에서 명함이 나와서 챙겨두셨다가 꺼내보며 “보고 싶다, 꼭 한번 보고 싶다” 하면서 바쁜 사람에게 전화를 해도 되는지 몇 번을 망설이다 전화하신 거란다.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웃어보였다.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고, 만나서 반가웠고 건강하시라는 인사를 건네고 돌아서는데 할머니가 내손에 아이들 과자 사주라며 꼬깃꼬깃 만원짜리 두 장을 쥐어 주신다. 받지 않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고마운 마음을 받아들고 오는 길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지나간다. 처음엔 무서워도 너~무 무서워서 문 앞에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쉬어야 방문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정성을 쏟고 세월이 흐르니 마음을 열고 감동을 주고 있다. 한겨울 얼음처럼 마음을 꽂꽂 닫아두고 냉랭하게 대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따뜻한 봄볕처럼 맞아주는 특별한 인연이 되어 있었다.

왕초보

김봉순 |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



10년의 시간동안 농가경제조사를 해오다 금년 8월 1일자로 농업통계조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어 그래도 편안한 업무를 분장할거라 생각하여, 남자 직원들과 똑같이 차별하지 말고 업무를 분장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어떤 일인지도 모르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막연하게 농업 팀 일을 모두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으나, 생각하면 엉뚱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은 두려움이 가득차기 시작하여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긴장되었습니다.

나에게 부여된 업무는 축산물생산비, 가축동향, 농업면적(경지면적, 작물재배면적, 작물생산량 등)조사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틈도 없이 눈·발뻬 경지면적 조사업무 현지 인수인계를 받기 시작하여 “여기가 단위구입니다” 라고 인계자가 말하면 저는 “예”라고 대답은

잘 하였습니다.

그땐,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나 논·밭벼 예상량조사 경작자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구 요도 한장을 들고 현지를 찾아 가는데, 역시 인수인계 받을 때 대답만 잘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적도만 들고 해당 필지를 찾는데 한두 시간을 헤매는가 하며, 밭밑에 놓고서 있는데도 알지 못해 그 지역을 몇 바퀴 돌기도 하였습니다.

그 일을 마무리 하고 이번엔 가축동향조사 교육을 받고 역시나 무엇인지 몰라도 대답만 잘 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가축동향 현장조사를 하며 왕초보로서 어설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돼지 표본조사대상 농가 입구에 소독실이 있어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줄 알고 그냥 눈으로 힐끗 봐라보고 그냥 축사에 들어가 “사장님!” 하고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어 두세번 부르니 농가주 어르신이 나오시며 무슨일로 오셨냐고 불쾌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죄송한 표정으로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네요” 하고 말씀을 드리니 무뚝뚝한 목소리로 소독조가 밖에 있는데 “소독하고 들어왔오?” 하시며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는 ‘소독했어요.’라고 생각만 하였지만, 나의 표정에는 하지 않았다는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농가주는 누구 마음대로 소독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냐며 마구 화냈습니다. 그날 엄청 야단을 맞았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다음날 다시 전화를 드리고 농가를 방문하니 농가주와 관리인이 축사 옆에서 태풍으로 휘어진 파이프를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장님” 하고 부르며 사장님이 보는 앞에서 소독실을 거치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께선 웃는 얼굴로 어제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무슨일로 오셨어요?”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계청에서 일하는 조사원입니다. 가축동향 조사를 실시하는데 어르신 농가가 이지역 표본 농가로 선정되어서 조사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사장님께선 “관리인에게 물어보면 대답해줄거요.” 하시면서

관리인에게 “자네가 말해주소” 라고 말씀하시어 쉽게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농가를 마치고 나니 또 다른 농가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농가가 있는지 처음 가본 생소한 지역이다 농가주는 연락도 안되고 참으로 답답하엿죠.

그래도 그동안 10여년 경험이 헛되지는 않았습니니다. 물어 물어 찾아간 곳은 그냥 마을 뒤에 있는 농가가 아니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도 자주 찾아가지 않는 산중 외딴 농가였습니다.

찾고 보니 앞으로 계속해서 조사하게 될 이농가가 산속 공동묘지가 있는 으스스한 곳이어서 무섭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하고 가야지 물러설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찾아온 농가의 사장님은 공동묘지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고, 할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니다.(여차하면 도망갈려고 차문을 열어놓고 시동을 끄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사장님 대신 나를 반겨준 축사냄새와 파리만 가득신고 탈출하듯) 겨우 조사를 마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에 다른 조사대상 축산농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농가는 쉽게 찾아 축사를 둘러보고 있는데 이상한 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몸집은 크고 뿔은 자라서 귀 밑까지 휘어져 있으며, 소의 얼굴은 순한 양보다

더 순한 모습이어서 암소인줄 알았는데 암소는 아니고, 덩치는 수소이고 참으로 오아했습니다. 넌 여자니 남자니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사장님 저 소는 얼굴은 순한데 몸집이 크네요. 임신했어요?” 라고 하니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 같으요?” 라고 하시면서 “거세 수소인데 저렇게 변했어요.” 라고 하시어 이해가 되었습니다.

가축동향조사는 그렇게 해서 끝내고 나니 그동안 조사해야 된다는 마음 하나로 겁없이 돌아다니 나의 행동에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초보자는 정말 용감했다.’

힘들었던 가축동향조사를 끝내고 나니 논·밭벼 예상생산량 조사 시작...

업무 팀장께서 개인별로 장화를 사주신다며 밭 사이즈를 여쭙어 보실 때는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밭목까지 올라오는 요즘 유행되고 있는 빨간 장화로 상상했는데 나중에 보니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노란색 물장화라니 썩썩... 실망

논·밭벼 예상생산량 조사를 위해 팀장님께서 사주신 노란 장화를 신고 긴 줄자를 잡고 울퉁불퉁 논둑으로 달리기도 하고, 물이 가득찬 질퍽한 논 속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들어가 벼 포기수를 세어 큰소리로 조장께 외치는 진풍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험해본 조사라 웃음도 나오기도 하였지만, 태풍피해로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들녘이 아닌 하얗고 까만색으로 변한 벼를 보시고 한숨짓는 시골 어르신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름 열심히 해본다고 했는데 조장께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다시를 반복하였습니다.

몇 차례 반복을 말씀하는 조장님의 탁월한 조사능력 덕분에 처음해본 팀원들도 따라서 할 수 있었습니다.

벼 포기를 세고난 후 포기별로 잘라와 집에서 벼 모가지별로 낱알들을 일일이 세어 기록하느라 밤이 깊은 줄도 몰랐습니다.

며칠간 간 눈벼 예상량조사 깃대를 꽂으러 섬과 육지를 돌며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숨돌릴 틈도 없이 이번에 작물재배면적조사 시작 교육을 받고...

또 다시 현장으로 직행

이번에는 신규재배 작물 조사로 그동안 경험으로 ‘내가 작물은 좀 알지’라는 생각하여 이번 조사는 쉽게 끝낼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아뵘사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이라 작물은 너무 잘 아는데 경지 요도를 잘 볼 줄 몰라 이쪽 저쪽 방향을 바꾸어 확인해 보지만 경작지를 왜 빨리 못 찾는지 나에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조사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조사가 더디게 되어 마음은 갈수록 조금해졌습니다. 이리 저리 다니며 조사를 하는데 주위 어르신들은 태풍피해 작물을 조사 나온 줄 알고 우리 것도 다 버렸다고 적어가라고 피해보고를 하셨습니다.

“아니예요 저는 통계청에서 작물조사하러 왔어요”하고 말씀드려도 시골 어르신들의 마음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나에게 하소연 하듯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꼭 좀 말해달라고....

『주인의 애타는 마음도 아랑곳 않고 벼는 오늘도 누워만 있습니다.』

논둑에 앉아 쓰러진 벼를 바라보며 담배 한 개피 입에 무시고 긴 한숨만 내신다 이일을 어찌할꼬...

오늘도 내 마음은 빨강게 지는 해처럼 내일을 위해 또 다시 뜨겁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려나...

거부하지 않고 응답해 주고 싶은 통계조사를 만들고 싶어요!



최은나 | 호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

통계청의 새내기, 다른 경력 많은 선배님들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이력이었습니다. 멘토를 따라다니며 설득하는 방법을 배우고, 진땀을 빼는 일도 겪으면서 “내가 이 일에 적성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감을 잃어가려던 때. 통계조사를 처음 시작한 지 6개월 즈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식당이 폐업을 하고 새로운 대체 사업체를 찾아야했었습니다. 명부에서 적절한 사업체를 찾고, 전화로 먼저 조사안내를 드리고 방문 약속을 잡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 최은나입니다.”

“네.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처음부터 통명스런 아줌마 목소리에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니깐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호남지방 통계청입니다.”

“서비스업동향조사가 있어서 방문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언제가 괜찮으신가요?”

“전화로 물어보쇼. 뭐 물어볼라고 그러요?”

“네,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좀 길 구요, 찾아뵙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알았소. 그럼 이따 오후에 와보시오.”

‘다행이다. 순조롭게 조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고 전화를 끊고 ‘잘돼야 하는데’ 하며 마음속으로 주문을 걸었습니다.

년 초에 조사를 시작하는 사업체들 설득도 힘들었지만, 새로운 대체사업체를 찾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조사를 하냐는 등, 왜 옆집은 안하던데 나만 그러냐는 등, 이 조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얘기며, 국세청에 가서 알아보면 될 걸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왜? 하냐고 하는 얘기 등등……. 무수한 이유들이 응답자 입에서 나오면 그저 아직은

“그게…….” 라는 말부터 나오며 당황하기 일쑤인 초보 조사원인 저에게는 참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라고는 하시는 아주머님 말에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다짐을 몇 번을 하고 그곳으로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 최은나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가게에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이리 저리 가게를 뒤져보니 한 쪽에서 아주머니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처에 다른 곳을 방문하고 다시 와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깨어 나셨습니다. 또다시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 드린 통계청 최은나입니다.”

“아~ 뭘 조사를 한다고 그러나요?”

“장사도 안 되는데 우리 집은……. 조사할 것도 없어.”

“네에……. 그러시죠,……. 그렇게 어려운 조사는 아닙니다.”

“영업일수, 매출액, 종사자수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문을 내밀고 설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통명스러운 아주머니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뭐……. 매출?”

“장사 잘 된 데나 가서 물어봐. 뭐 이런 데까지 와서 물어봐.”

“그게 아니고요…….”

“장사가 잘되는 데만 조사해서 통계를 내면 경제 정책을 내는 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장사가 잘 안 되는 소규모 사업체도 저희가 골고루 조사해서 나라 정책을 세우는데 쓸모가 있게 하려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고 ~ 알았네. 물어봐 보소. 뭐 말이여……. 하도 조사한다고 온데도 많아서.”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쉽게 조사가 되고 일이 끝나게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통계조사라고 하면 처음에는 다들 하는 첫마디가

“꼭 해야 해요?”, “의무예요?”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니 이정도면 양호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바로 다음 달인 7월 여름이었습니다. 유난히도 더운 2011년 7월 낮 한때, 땀을 뻘뻘 흘리며 아주머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더운 날 고생 많으시다고 인사도 하고, 아주머니 얘기도 들어드리면 더 부드러워지실까 하는 생각으로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마침 주인아주머니는 가게 앞에서 순대를 썰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손님도 한 테이블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 죄은나입니다.”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아주머니 목소리는 너

무나 무서웠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왔다고?”

“통계청이 어딘디?”

“아니 지금 장사가 얼마나 안 되는데, 더운디 찾아와서 그러요?”

“장사도 안돼서 죽겠구만, 이런 조사를 해서 뭐한다고 그런가 모르겠네.”

“뭐 매달 한다고?”

“여기저기서 전화오고 귀찮아 죽었어. 아가씨가 내 성격 몰라서 그런가 본 데, 내가 보통 성격 아니여, 한 번 아니면 아니고, 자꾸 귀찮게 찾아오면 나도 가만 안돌 테니깐 그렇게 알고 그냥 가드라고, 다시는 오지 마소. 어떻게 할지 모르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트러블이 있을 걸 예상 못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갑자기 며칠 만에 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일단 아주머니께 장황한 설명을 드려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죄송하다고 무조건 사과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나라에서 필요한 조사다보니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렇게 협조를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말도 채 끝나기 전에 아주머니는 등을 돌리셨고 가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더 이상 오늘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느낀 저는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조용히 물러 나오는데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통계조사의 회한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는 처음이었지만, 그 전에 아르바이트로 선거출구조사, 환경리서치 등도 해봤었고, 홍보 아르바이트, 그리고 노동청에서 하는 사업체 조사도 나름 해봤었던 터인데, 전

화로 불만을 털어놓는 응답자는 많았어도, 방문하면 투덜대면서도 순순히 응답해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가야하는 건지…….

어느 날, 통계청홈피에 서비스업동향 조사(사업체 조사)라는 공고를 보고, 매 달, 조사 때마다 사업체가 바뀌고 조사내용도 달라지는 노동청과 달리 통계청의 이 조사는 계속 몇 년간 같은 업체를 조사하면 된다고 하니, ‘유대강화만 잘하면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 나도 짧은 경력이지만 잘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자신감을 갖고 지원을 하게 되었기에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조사에 대한 회환이 컸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일단 우편을 먼저 넣고 우편 회신을 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전화로 독촉을 하고 절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불응하고 나오는 사업체만 찾아가서 조사를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한 사업체에 대한 연속성이 없는 만큼 부담감은 덜했기 때문이었던 거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 방법을 고민 해봐도 해결방법은 이 한가지뿐이었습니다. 자꾸 목소리를 듣고 자꾸 얼굴을 뵈러 가서 반가운 사람이 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업무로 만났지만 따뜻한 이웃이 되는 것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는 기본 5년간은 매달 조사내용을 응답해야 하는데, 기본은 응답자의 마음을 열게 하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유연하게 하고 통계에 대한 신뢰를 쌓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부터는 전화와 방문으로 먼저 승부를 걸었습니다.

마음은 먹었지만 소심한 성격에 몇 번이고 수화기를 들었다, 뉘다, 망설였습니다. 어제는 많이 언짢으셨냐고, 죄송하다고, 이 말씀만 우선 드리고자 했습니다.

니다. 한참을 망설인 후에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우. 뚜우.”

통화중인 신호음……. 또 어디서 전화가 와서 화가 나계신 건 아닐까 하는 별 걱정이 다 들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5분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띠리리. 띠리리.”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네, 어디요?” 하는 통명스런 사모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계청 최은나입니다.”

“바쁘시죠? 어제는 바쁘신데 죄송했습니다.”

“다음번에 한가하신 때 말씀해주시면 방해되지 않게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아고~ 귀찮게 하네.……. 알았소. 일단은 장날을 피해서 와야 재. 장날은 바빠서 말 못해주시깐 그때 와 봐”

“뚜우~” 하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 이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안부 전화를 드리고 계시든 안 계시든 근처를 지나면 꼭 아주머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장사하시면 옆에 조용히 서있거나, 안계시거나 주무시면 옆 가게에 다녀갔다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고, 손님이 없을 때는 슬쩍 소소한 사는 얘기도 꺼내보고, 하소연하시면

“장사가 어려우시죠? 요즘 다들 그런 얘기들이십니다. 여름이고 불경기라 다들 어려우신가봅니다.”

“조금 있다 가을 되면 좀 나아지시겠죠? 저희 부모님도 장사해보셨거든요…….”

너스레를 떨어보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 하며 맞장구를 치기도 하면서 들어 드렸습니다.

“그래. 요즘 아무리 불경기래도 그렇지…….”로 시작해서서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조사한다고 쫓아다니는가 몰라, 다른 데서도 맨날 그래, 다 우리 집만 조사한다고 전화오고 그래. 옆의 집이랑은 다 안한다더만…….”

이상해”

그렇게 두 달을 “몰라. 똑같애……. 인자 그만하자고” 하는 얘기만 듣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되면 안 될 텐데……. 하는 걱정과 또 다른 곳을 대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으로 집에 가셔도 괜히 짜증만 나고 속만 상하였습니다. 통계청에 와서 조사를 나가보면서 통계청에 대한 인식과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노동청에서 왔습니다. 하고 조사를 할 때에는 “아 ~ 고용보험 때문이요? 나는 신고 잘하고 있는디……. 뭘 문제 있소? 잘 좀 봐주쇼.” 하고 오히려 응답자에게서 부탁을 하시는 일이 많았는데, 통계청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들어서며 “안녕하세요! 통계청 최은나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통. 뭐라고……. 어디요?” 라고 반문하기가 일쑤였습니다.

“통계청이요. 호남지방통계청입니다”라고 하면 “아~ 통계. 근디 거기서 뭐한다요? 이런 조사해서 어디 쓰게요?”라는 반문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통계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갖고 답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통계조사가 왜 필요한지 통계청이 뭐 하는 지가 시민들에게는 인식이 되어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아직은 잘 모르는 통계이지만 통계가 어디에 쓰이는 지 어떤 예를 들고 보여주면 좀 더 친숙하게 생각하고 응답을 해주실까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동의해주시고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전파가 되다보면 내 업체 90개는 통계청을 예쁘게 봐주시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관해 제가 먼저 공부를 하기로 맘 먹고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통계포털 (kosis)이란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국내 통계부터 지역통계까지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업과 도소매에 관한 월보와 생산지수에 관한 내용들, 한 눈에 짝 전년 자료를 비교해보게 자료가 정리되어 있고 그래프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거다……. 이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통계청을 다닌다는 나조차 관심이 없었는데 누구한테 친절을 바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하는 서비스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쭉 찾아보고 클릭해보고 가장 적정하고 각 사업체에 맞는 부분을, 물가처럼 관심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을 저장해서 인쇄했습니다. 통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이렇게 통계가 쓰이고 있고, 저희가 쓸모없는 자료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애써 만든 서류를 들고 다시 사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또왔습니다.”

“어. 누구더라 아! 통계청 아가씨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귀찮으셨던지 아니면 반가우셨던지 저를 알아봐주시는 응답자의 인사에 저도 방긋 웃음이 나오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네! 통계청 최은나입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지요? 제가 번거로우신지 아시지만 이렇게 또 왔습니다.” 하면서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래. 더운데 자네도 고생하네.”

응답자께서는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분하고 착각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말씀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 뭘 조사를 하러 다닌가…….”

“아가씨, 말고 다른 아줌마가 와서 다짜고짜 조사를 해 달라 하고, 또 전화가 와서 꼬치꼬치 물어보기에 나는 다 똑같은 텐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꾸 온 거 본게 뭇인가 얘기해보소.” 하고 드디어 저를 빛나는 눈으로 쳐다봐 주셨습니다.

“네에……. 서비스업동향조사라구요……………….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 그 열쇠를 찾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가 문제이다.’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가져온 서류를 보여드리면서 그래프도 설명해 드리고 차근차근 궁금하신 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업종별로 매출 증감이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더니

“음……. 이런 거였어? 미안하네. 내가 너무 심하게 했고 만”

하시면서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인자 나는 아가씨 조사만 해줄 것이여…….”

“앞으로 통계청 조사라고 하문 아가씨 말만 미드께”

“우리 딸 정도 나이도 하겠는디…….”

“아가씨, 이름이 뭐재? 명함하나 주소. 넣어두게…….”

“여름에는 장사가 잘 안 돼…… 서 속상하다 본께…….”

하시면서 속사정을 속속들이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날은 30분간이나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설득을 했다는 성취감과 또 한 사람의 내 업체, 내 사람이 생겼다는 뿌듯함에 그 동안의 수고가 보람 있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사모님께서

“응~ 고마워 바쁘고 더운디, 일부러 오지 말고, 전화로 물어봐. 고생해”

하시면서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주셨습니다.

어찌나 감사하던지……. 그 음료수를 냉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를 속상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응답자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이젠 통하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았기에 주저않지 않았습다. 표본인데 잘 안되면 그냥 몇 번 가보고 불응으로 대체를 해도 되는데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싫다고 해서 한 집, 두 집 빼주면 그제 또 소문이 나서 안한다고 하는 집이 늘어나면, “뭐가 의무냐 뭐 하러 귀찮게 하나. 라는 입소문이 생겨서 통계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고생하시는 통계조사관분들을 욕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통계청입니다. 하고 협조를 구하면 거부하지 않고 응답해 주고 싶은 통계조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먹었던 그 마음으로 까다로운 업체가 생기면 그 사업체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 우편도 보내드리고, 메일로도 보내드리고, 명절이고 때가 되면 안부 문자도 보내고, 저를 반기지 않은 업체 분들은 일부러 더 시간을 내서 찾아갔습니다.

이젠 “어~ 왔는가. 이번엔 늦었네. 차 한 잔부터 마셔” 하는 인사로 “푹푹” 사업체 문을 두드리러 가는 제 발걸음을 흥이 나게 하는 응답자가 많아졌습니다.

통계청에 들어와 조사를 한 지가 1년 8개월 즈음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조사……. 내 할이 아닌가보다, 내 적성은 아닌가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제 자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울했던 때가 불과 1여 년 전인 거 같은데……. 지금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통계청 최은나입니다.” 란 인사를 할 수 있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저번 달에 모바일 통계포털 웹을 스마트폰 즐겨찾기에 등록해두었습니다. 통계자료 어디냐 쓰냐고 가끔 묻는 분께 스마트 폰을 꺼내어 보여 드립니다. 그럼 신기한 듯 쳐다보십니다.

아직은 터무니없이 경력도 부족하고 노하우도 없지만 지금도 뜨거운 땀 흘리시며 수고하고 계실 통계조사관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고 끊기 있게 응답자들의 단한 마음이 열리도록 열심히 한 분 한 분 설득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리라 다짐해봅니다. 실패는 금방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행복하지만 앓는다면 다시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로 현장을 뛰며 고생하고 계시는 통계조사관 여러분, 우리 행복하지 말고 아자! 아자! 파이팅 해서 행복한 통계를 만듭시다.

언닌, 진땀개 스따~ 일야!

고 희 숙 | 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



우리 사무소 경제활동 인구조사 불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총괄자가 불응가구 설득을 하라고 한마디한다.

원래 불응이 많던 조사구를 인계 받고 노력 끝에 2가구 설득하고도 올 5월부터 연동표본 신규조사구까지 담당하다보니 불응가구가 늘어 내 마음이 편치가 않다. 어떡하나... 가슴이 답답하다. 가구표를 뒤척이며 어떤 가구를 설득하러 가야하나 고민고민해본다.

불응가구 첫 집은... 분명히 사람 사는 소리가 나서 초인종을 누르면

“야! 조용히 해. 문 열어주지마!”

문 밖으로 새어 나오는 엄마와 아이들 목소리가 쥐죽은 듯 조용해진다. 문이라도 열어줘야 말이라도 붙일텐데 매번 같은 반응에 설득할 길이 없어 보인다.

두 번째 가구...문은 열어주는데

“나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와요! 다음에!”하며

가구에 들어서려는 나의 몸을 밀치며 문을 ‘깡’ 닫아버린다.

그럼 이집은...아주머니 혼자 사시고 그래도 희망이 있어 보이는데 도전해 보자. 그래 가보자

“계세요?”

“깡!깡!깡!깡!”

“통계청에서 왔습니다~!”

“깡!깡!깡!깡!깡!깡!깡!”

“아무도 안계세요?”

“깡!깡!깡!깡!깡!깡!깡!깡!깡!”

말 한마디 더할 수록 더 무섭게 짖어 대는 개소리 때문에 인기척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겠다. 나를 잡아먹을 기세다.

“깡!깡!깡!깡!깡!깡!”

“개소리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누군데 시끄럽게 그랬잖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찾아뵈던 통계청 직원예요.”

“근디? 나 통계청 볼일 없으께 어서가! 안한다고 했잖여! 왜 귀찮게 자~꾸와서 사람 속도 불편한디 개까정 시끄럽게 그려? 가!”

“어머니, 상품권 선물도 받아주시고 잠깐이면 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으께 갖고가! 버꾸야, 조용히 하고 밥 먹어라~” 상품권을 바닥에 버리더니 개한테는 다정한 목소리다.

땅바닥에 내동댕이친 상품권을 줍는데 ‘통계청 직원의 말은 개소리만도 못하구나...’ 싶다.

그런 나의 모습을 지켜보던 옆집 아주머니가 넌지시

“그 아줌마 성질이 보통이 아녀! 근디 수산물종합시장 어디서 생선장사 한다지? 거기 서 있다가 욱먹지 말고 어서 딱 집 가봐~”

옆집 아주머니의 정보를 가지고 수산물종합시장을 찾아갔다.

최대한 밝게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드렸다.

“통계청은 상식도 없나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라? 나는 못해주니까 어서 가봐. 나 장사 해양께.”

“집에서 뵙기가 힘들어서 여기로 왔어요.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주머니의 계속되는 면박에도 꼭 참고 설득해보건만... 조금의 호감이라도 받아보려고 생선이라도 사겠다니, 통계청 직원한테는 안팔겠다고 가라신다. 아주머니의 거부하는 소리가 어찌나 크신지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집중 되고 당황스런 마음을 어찌해야할지?? 그래도 파시라고 팔에 매달리며 애꿎은 오징어, 고등어 한보따리 사가지고 사무실로 향하는데 서러움 반, 오기 반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통계조사를 처음 하던 때 군산의 새 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다닥다닥 모여 있는 해망동 조사구 명부를 작성할 때 어디서도 모르게 손이 쭉 나와서 잡혀가면 그만이라는 해변 달동네 조사구에서 얼마 언제 끝나냐고 자꾸 묻는 유치원생 아들 딸을 밤늦게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무서워도 어린것들 위안 삼아 조사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온 것 아니던가?

‘내가 저 아주머니를 꼭 설득하고 말리라!’

생선을 더 많이 팔아주면 좀 달라질까 해서 사회팀 팀원에게 생선주문을 받고, 사회팀장님과 총괄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설득을 나갔다. 아주머니의 태도는 처음과 달라질 것이 없었다. 통계조사 협조에 대하여는 완고하게 거부하시고 생선 사주는 것으로 나 꼬시는 거면 안판다고 밀쳐내셨다.

“어머니 조사보다 어머니 가게 생선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직원들 주문도 받아오고, 저희 직원들도 데리고 왔어요. 통계조사 부담 갖지 마시고 맛있는 생선 좀 주세요.”

생선을 이것저것 사서 다음에 또 찾아 뵈테니 오지마라는 말씀만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돌아왔다.

생선 사먹을 일이 있으면 가족들과, 친구들과 아주머니 가게에 가서 열심히 사먹으며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며 돌아왔다. 그래도 통계조사 협조는 못한다고 한결같은 말씀을 내 등 뒤에 질러댔다.

매일같이 식탁에 오르는 생선을 질리도록 먹으며 몇 달이 지나고 경제활동 인구조사기간에 아주머니를 찾아뵈었다.

“통계청 직원은 속도 없나벼? 내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면박을 주고 싶은 소리해도 어떻게 그렇게 한결 같은겨? 아이고 내가 미안해서 더는 못버티겠네. 뭐여? 뭘 조사 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싸?”

결국 나는 해내고야 말았다. 그 후로 아주머니는 묻지도 않는 집안사정이야 기며 자녀들의 사업이 망해서 일이 어찌나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지 화만 난다고 하소연까지... 그동안 조사거부 한 것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은 다정하게 대해주신다.

진정한 실패는 일을 그르치고 무엇을 잃은 때가 아니라 내가 포기 했을 때 ‘정말 실패했다’라고 했던가? 상황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이 자랑스럽다.

지금도 아주머니 댁에 가면 똥개는 여전히 날 잡아먹을 기세로 짚어댄다.

“야, 똥개야! 난, 진돗개 스파 ~ 일이거든!”

통계조사는 응답자와의 지속적인 만남으로 부터

박기수 |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2012년 2월은 잊을 수 없는 달이다. 7여년의 원거리 근무에서 연고지 근무 전보로 인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기대도 잠시, 한통의 전화는 부풀어 있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듯 부담이 백배가 되어 머리속이 행하였다.

다름이 아닌 업무분장 때문이었다.

이번 전보에는 전출 여직원보다 전입 남직원이 많았다. 16년 동안 농어업통계만 근무하였는데 경제조사팀도 아닌 사회조사팀에 근무하라니, 그것도 남직원이 한명도 없는 여직원과 근무하라니, 뭐라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앞이 캄캄하고 걱정이 앞섰다. 세월을 속일 순 없나보다.

전번 인사전보 때의 일이 생각난다. 나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적 갈등이 심하여 상당기간 고생한 직원이 있었다.

업무를 못한다고 전화를 할까?

주위 직원들은 나에게 남자가 도시통계조사인 가계동향조사를 하기에는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농가경제조사 및 어가경제조사를 예전에 하였지만, 사회조사팀 업무를 생각해보니 자신감이 없어지고 부담감이 한없이 늘어만 갔다.

걱정 반, 우려 반.

내가 사회조사팀의 업무를 그것도 가계동향조사를 잘 해 낼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사이에 가계동향조사는 4개월 후 연동업무부터 하기로 팀에서 의견을 모았다는 또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새로운 사회조사팀 업무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업무를 해보는 것도 또 다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다 “할 수 있다, 열심히 하자”

아자! 아자!

연고지 사무소의 개인 업무분장이 끝나고 첫 번째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시골 조사구로 임실군 지사면에 있는 조사구로 조금은 쉽게 모두 만나 뵙고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며, 부가조사며 아직은 생소한 업무지만 자신감이 생겼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업무 두 번째 출장을 나가게 되었다. 내가 맡은 3조사구 중 제일 어려운 조사구라고 소문이 무성하였다.

인계인수시 조사구 대상가구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고, 전임자의 노하우(보조조사표를 활용한 조사)를 전수받아 자신감은 있었다.

아파트 조사구로 저소득층가구 및 맞벌이 부부가 많아 응답자와 면담은 오후 20시 이후가 되어야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퇴근 후 오후 20시, 조사구는 ‘거의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조사구로 발길을 옮겼다. 삼천동 35204230조사구,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가구는 20가구, 집세 대상가구는 11구역 55가구.

몇 가구는 제외하고 모두 만나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옷맵시를 다시 가다듬고, 밝은 표정을 위하여 속으로 ‘스마일, 스마일’

외치며 출장에 나섰다. 하지만, 헉, 말문이 막혔다. 20가구 중 면담가구는 달랑 5가구.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사전예고제란 말이 왜 필요한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만나지 못한 나머지 가구는 사전예약을 하고 면담을 하였다. 한 아주머니는 얼마나 자주 보았는지 여기에서 사냐고 물어 볼 정도였다. 남자이기에 더욱더 열심히 저녁이며, 주말에 아주 열심히 조사구를 누볐다.

첫 인사에만 나흘 저녁을 투자했다. 하지만 연고지라 부담감은 없었고 어렵지 않았다. 한번 만나, 두 번 만나다 보니 이제는 이웃 같은 생각이 들고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 같이 느껴졌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조사구내의 전·출입자 파악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사람을 만나야 유대강화가 되고 정확한 조사가 되는데.....

얼굴표정은 굳어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사라지고, 어찌해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는다.

어찌해야 하나?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며칠 동안 업무로 인한 걱정 때문에 마음은 매우 무거웠다.

우연히 연간업무 가계금융복지조사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머리를 스쳤다. ‘그래, 모든 일은 해결방법이 있는 거야’라며 아무 준비도 없이 급한 마음에 그냥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들뜬 마음에 큰소리로 “수고 하십니다”라며 제 소개와 조사목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세대주 전·출입에 대해 협조를 당부 드리니, 관리소장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공문을 가져오셨나요.”라며 반문한다.

여러 사정 이야기를 하였지만, 할 수 없이 다시 찾아뵙겠다는 인사말을 건네고 물러나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공문을 작성하여 2차 방문을 하였다. 하지만 이번엔 세대원 사생활

침해로 인하여 답변을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셨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였지만 업무마감 일은 다가오고, 2차 방문도 실패로 끝나 마음만 더욱 바빠졌다. 하지만 물러 설 수는 없었다. 업무를 쉽고 빠르게 하려면 꼭 아파트 전·출입대장을 보고 싶었다.

조사에 매우 협조적인 연세가 많으신 ○○○분을 찾아뵙고 관리소장과 친한 분을 소개받아 관리소장님을 공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의 생각은 적중하였다. 관리소장님과 친한 분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니, 공무원증을 보시고는 “어느 기관에서 나오셨나요?”라며 문길래 통계청 전주 사무소며, 조사목적이며, 관리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천천히 훑어보시고는 본인이 통장이라 하시며 “관리소장은 아주 좋으신 본인데...”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가보라며 내 손목을 이끌었다.

통장님의 중개로 결국 3번째 방문에서 관리소장님은 모든 정보 제공을 약속하셨다.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권금동 관리소장님, 세대주의 민원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제게 보여주신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결국 삼천동 35204230조사구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새로운 업무에 대한 성취감과 뿌듯한 자신감도 생겼다.

4월부터 가계동향조사 5구역 연동업무가 시작되었다. 70여 표본가구에 대한 직업, 전화번호, 전월세 등 가구현황 파악..... 모든 직원이 연동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많다.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는데 연동업무를 하려니 마음은 또 다시 무거워지고 착잡하였다.

퇴근 후 저녁시간에 정보파악 차 표본가구 서너 가구를 방문하였다. 응답자의 답변은 각양각색이었다.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 주말에 방문하라는 사람, 다른 곳에 가서 하라는 사람,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사람, 정부에 불평만 하는 사람 등 연동업무를 어떻게 하면 수월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까?

나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조사에 대한 협조를 높일 수 있을까? 선배님의 노하우를 전수 받고, 2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험을 삼아 계획을 세워 연동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아파트관리소, 아파트 통장님, 그리고 아파트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을 만나보기로 하였다. 두 번째로는 표본가구로 선정된 취지와 조사의 목적 등 공문을 작성하여 조사업무 팸플렛과 함께 각 세대별로 배부하고 방문일정을 예고해드렸다.

1, 2차에 걸쳐 사전에 충분한 정보파악과 조사업무의 공문 및 팸플렛 배부로 인해서인지 표본가구에 대한 현황파악은 몇 가구를 제외하고는 협조가 좋아 마무리가 잘 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20가구 선정도 쉽게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가계동향조사 10가구 선정이 문제였다. 한집을 제외하고 모두가 맞벌이 가구였다. 10가구 중 부적격 1가구, 불응가구가 3가구, 성적은 초라하였다. 밤낮가리지 않고 어느 업무보다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하였다. 하지만 열심히 한 성적표가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했다. 불응가구를 설득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응답자께서는 “학원일로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요.”라며 말끝을 흐린다. 저는 얼른 “잠깐이면 되요. 10분만 내 주세요.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응답자께서는 “오후 2시요. 예, 알겠습니다.”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한다.

약속은 오후 2시. 일은 하다 보니 1시 30분이 훨씬 지나 약속시간에 늦을까 봐 과속을 하였다. 10분이 지난 후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약속한 응답자는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에 오라고 하였다.

허망하다.

불응가구 설득도 못하고 신호위반에 범칙금 6만원.

또 다른 불응가구원이 근무하는 약국으로 설득을 하려고 방문하였다. 하지만 역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귀찮게 하면 경제활동인구조사도 협조를 못한다고 나왔다. 할 말이 없다.

‘초라한 성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나, 아니야 만나면 방법이 생기는 법이야.’라며 마음을 가다듬고 발길을 돌렸다.

다음날 오후에는 상점을 운영 중인 가구를 한 번 더 설득하기로 하였다. 상점에 들어서니,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함께 계셨다.

아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매일 가계부 작성을 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아저씨는 아주머니 눈치를 힐끗 보고 계셨다. 얼른 화제를 바꿔 요즘 유행인 태양광 사업에 대해 말을 꺼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아저씨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지식이 다양해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다시 가계부 작성을 부탁드렸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아주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보, 가계부 예전에 써보았지, 가계부 작성 해 주는 것이 어때?” 아주머니께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럼 조사표 두고 가세요? 한번 작성 해 볼게요.”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힘들더라도 해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주머니를 다독거리려 주신다.

‘역시 만남은 유대강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통계조사가 시작되는 첫 거름이 되는 거야.’

나는 미안한 마음이 앞섰지만, 한편으로는 설득을 했다는 뿌듯한 마음이 앞선다. 그리고 발걸음도 가볍다.

지나고 보니 사회조사팀의 멘타·멘토 역할, 그리고 업무노하우의 전수와 업무마감 후의 입력시스템 내검 및 질의토의 등의 체계화된 역할에 업무 초보자

인 나도 쉽고 빠르게 적응이 된 것 같다.
우리 사회조사팀 화이팅!!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양은희 |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일곱 살 딸아이는 ‘엄마 뭐하는 회사에 다니냐?’고 물으니 밤에 모르는 집에 가서 “있수광”, “계시광” 이렇게 외치는 회사에 다닌다고 했다. 딸아이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통계청에 발을 담근지 4년 6개월.

우리팀에 근무하던 한분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그분이 담당했던 업무를 인력이 보강될 때까지 직원들이 나눠서 담당하게 되었다. 내가 임시로 맡게 된 지역은 한림읍 귀덕리.

6월 무덤던 날 오후, 가구명부와 답례품(샴푸)도 챙기고 눈맑은 동료 희정이와 조사구까지 순조롭게 도착했다. 거처를 확인하면서 첫 번째 집에 방문했는데 주인어른이 대문아래 그늘에서 손님 한분과 술을 드시고 계셨다. 신분증을 보여주며 “담당했던 분이 퇴직해서 경찰자료 협조 받젠 완예” 하고 인사하니, 전임자에게 담당자 바뀔 거라고 들었다고 했다. 술자리서 조사를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 여자삼촌을 불러 “지난주에 무슨 일 한 마시?”하고 여쭙보는데 갑자기 손님으로 온 분이 뭐하는 거냐며 관심을 보였다.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는데 표본으로 선정된 20집을 방문해서 협조를 받고 있다고 하자, “왜 나는 조사를 안 하나”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내 900가구, 귀덕리는 20집만 하고 있다고 하자, 다짜고짜 가구명부를 빼앗아 버렸다. 그제야 손님 모습을 보니 스님머리에 팔과 목에 문신이 그려져 있었다.

명부를 달라고 정중하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점점 공포분위기로... 아예 내놓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너 기분 나쁘다”, “넌 뭐냐”고 계속 욕 설을...

주인어른이 “너하고 상관없지 않냐” 서류를 돌려주라고 먹살 잡고 반 험박까지 했지만, 서류를 점점 꾸기고 상황은 더 나빠졌다. 급기야 여자 삼촌은 주인어른이 다칠까 염려스러웠는지 통계청 직원이랑 이 사람이 알아서 하게 놔두라고 주인어른을 만류하셨다.

안 되겠다 싶어 “그러면 선생님 댁에 조사를 갈 테니까,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니, 서류를 가지고 줄행랑을 치는 거다. 난 112로 전화를 걸어 “통계청 직원으로 귀덕리사무소 맞은편 50미터 지점인데, 통계조사 왔다가 손님으로 오신분이 개인 신상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빼앗고 도망친다고 도와 달라”고 했다. 주인어른은 경운기를 타고, 우리는 자가용을 타고 뒤를 쫓아가는데 그때 맞은편에서 시외버스가 오는데 버스를 세우더니 버스를 타버리는 게 아닌가! 우째 이런 일이... 주소와 성명, 생년월일, 학력, 하는 일까지 상세한 정보가 기재된 명부를 어떡하나 걱정이 이만저만.. 다시 112로 전화를 걸어 “서류 가져간 사람이 반대방향으로 버스를 타고 가버린다”고 하니, 버스를 따라가면서 일단 버스가 정류장에 서면 기사한테 부탁해서 버스를 조금만 세워 달라고 부탁하라고 했다.

정류장에 정차를 했고, 나는 재빨리 버스문 쪽으로 뛰어갔는데, 맨 앞자리에 노란 파일철을 꽉 잡고 버젓이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엄청 무서웠지만, 핸드폰에 숫자 112를 찍고 기사에게 보여주면서 “기사님, 지금 오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다행히 기사는 조금 정차해 주셨고 잠시 후 맞은편으로 경찰차가 눈에 들어왔다.

출동한 경찰에게 제일 앞에 앉은 분이 노란 파일철을 가져갔다고 하니, 경찰이 “잠시 검문하겠습니다”고, 그 사람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내리라고 했다. 그 와중에도 서류를 훼손하려 하고 안 주려고 했다. 경찰은 내 이름과 연락처를 수첩에 적었고, 저사람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고 하는걸 보니 상습범인 거 같았다. 이 마을 20집을 방문해야 하는데 아직 한집도 조사를 못했다고 2시간 정도만 저분을 격리해 줄 수 없냐고 했지만, 경찰은 또 만나면 다시 신고하라고 하고는 바로 훈방조치 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가구명부를 찾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혼자 와서 이런 일 당했으면 어쨌겠냐며, 서로 위로하면서 두려움을 안고 조사구로 가서 조급한 마음에 뛰면서 답례품을 돌리고 조사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통계조사 끝나면 경찰서로 와서 진술서를 작성해달라는 것이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다 끝나면 연락드린다고 일단 끊었다. 여러 생각이 교차되었다.

통계청 조사원의 길, 오늘만이 아니고 내일도.. 다음에 통계조사차 누가 이 마을에서 그 사람을 만날지 알 수 없고, 통계청 직원임이 이미 노출 되었으니, 만약 처벌을 당한다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지 우려가 되었다. 그래서 용서를 택하기로 했다.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진술서는 작성하지 않겠노라고 전했다. 기관으로 공문을 보낼 수도 있다고 하며 독려했지만, 서류를 찾았으니 진술서는 작성하지 않겠다고 거듭 통계조사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최고의 선택도, 최선의 선택도 아니었는지 모른다. 최악의 선택이 아니었기를 바라면서 집으로 차를 몰았다.

그로부터 2주쯤 뒤 신고처리 설문조사라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불안해하는 시민에게 “재발시 다시 신고하라”고 하는 것보다 1~2시간만 그 사람을 격리시켜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쉬웠노라고 솔직하게 내 생각을 전

했다. 차후 그 부분이 꼭 반영되도록 애쓰겠노라 하셨다.

그렇게 6월 조사를 마치고, 7월에 그 마을에 다시 갔을 땐 골목 안쪽에 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골목입구부터 도로 시멘트공사를 하고 있어서 공사하는 분들이 널판지를 놓아주어서 겨우 조사를 할 수 있었다. 8월 조사 땐 태풍 볼라벤으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조사표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온몸이 젖는 줄도 모르고 전 가구를 면접조사 하는데 성공, 9월 조사까지 무사히 마쳤다. 다음 달엔 드디어 인력이 보강되어 조사구를 넘겨주게 된다.

우여곡절 많은 녀달 동안 가구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불응했던 가구를 설득하여 협조하겠노라 확답을 받으니 넘겨주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엄마가 “있수광, 계시광”하는 회사에 다니다던 딸아이는 이제 아홉 살이 되었고, 엄마는 ‘호남지방통계청’에 다닌다고 정확히 말한다. 통계청에서 4년. 조사가구와 함께 웃고, 울고, 무서워하고, 배우며, 희망을 품고 지내온 세월... ‘나는 진정 통계맨이 되었는지?’라는 물음을 를 던져본다.

조사현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난관이 가로막아도, 비록 아직도 멀었다 해도 나를 서로를 위로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통계하러 다닌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해!” 이 말을 가슴에 품고 통계현장을 곳곳이 지킬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준 우리가족들 사랑하면서 살립니다.

나의 발자취... 『기억의 습작』

백은옥 | 호남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



내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였을까? 통계청에 입사한지 20년...강산이 두 번은 변할 세월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 나와 함께하는 동반자로 통계조사에 충실히 임하며 보내온 시간을 회상해 본다. 가을 이만때쯤이면 생각 저편에서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일은 추억으로 돌리기에 아픔도 많았던 것 같다. 들판에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고 코스모스가 흔들거리는 풍경을 보며, 유난히도 높고 푸른 가을하늘 아래 나에게 찾아온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2010년 9월 통계조사에 무료함을 느끼며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는 시기였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남직원이 부족해 한번도 접해보지 않은 농업생산팀 업무를 담당해야 했다. 2008년 직제개편으로 이관된 업무라 생소하고 낯설기만 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남직원의 전담업무라 생각했고 사실 관심을 갖지 않은 업무이기도 했다. 공무원으로써 통계조사를 함에 있어 열악함은 우리 모두

느끼는 삶의 잣대이지만 조사업무중 가장 힘들고 빛이 나지 않는 음지의 업무라고들 얘기하곤 했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모든 현장조사 업무는 성별에 관계없이 멀티 통계맨이 되어야 한다는 추세이기도 하다. 오랜 현장조사 20년 통계맨으로 이 정도 경험이라면 어느 업무도 두렵지 않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자신감과 사명감으로 현장을 뛰는 나로써 처음 접하게 된 작물재배면적조사와 가축동향조사, 농산물 생산량조사등 얼마든지 해 낼 수 있을 거라 장담했다. 하지만 긴장감과 어색함은 떨칠 수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농업생산업무중 가장 힘들다는 마의 시기 9월에 발을 딛게 된 것이다.

기억의 습작 one

정신없이 바쁜 9월초 가축동향조사를 하는 시점으로 여유롭게 지침서를 습독하고 선배들의 노하우를 파악할 짬조차 없이 인수인계를 받았다.

내가 담당한 가축 표본조사구는 젖소의 명소답게 규모도 150마리이상 사육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술술 불러주는 선배의 인계 내용 메모하랴, 전수조사구 위치 파악하랴..가축 사육수 받아 적으랴..

머리만 복잡해진채 말 그대로 붕붕 떠 다녔다. 그 답답함이란 20년의 통계조사를 경험한 자신감이 무색할 정도로 백지화된 상태였다.

그 후 12월 인수받을 때 막무가내로 써 놓은 위치 및 특성을 중심으로 심호흡을 하며 '잘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반 기대반으로 광범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대상농가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외곽에 꼭꼭 숨어있는 대상농가 찾아다니기도 버거운 상황이었다. 가축에 대해서 문외한 나로써 뭘 질문해야 할지.. 막막함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소는 소이고 돼지는 돼지라는 상식만을 알고 있을 뿐 소에는 한우, 육우, 비육우, 젖소 등 초임우, 경산우, 착유우~ 돼지는 육성돈, 종돈, 모돈~~ 용어자체도 구분 할 줄 모르는 갓난아이처럼 멍~만 때리고 있었다. 숨박꼭질하듯 어

렵게 겨우겨우 찾아간 전수농가에서는 젓소만이 반길뿐 아무도 없었다. 난처하고 실망스러워 가축농가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다.

“아버님...지금 댁에 방문을 하니 아무도 안계시네요. 언제 다시 방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랬더니 저편에서 들려오는 아버님 대답은 “뭘 소리여~ 왔으면 축사에서 소를 세어가면 되지. 뭘 또 와..난 몰러 정확한 소 마리수를 알고 싶으면 직접 세어가쇼~” 대답할 여유도 없이 하실 말씀만 하고 뚝...끊으시는 아버님..

‘헉..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래도 나름 여자인데 축사에서 풍겨 나오는 분뇨냄새도 역겹고 비위가 상해 적응하기도 힘든 상황에 ‘소 마리수를 세라니...’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고 있었다.

과거 현장조사때 아무리 응답자가 불응하고 조사하기 어려운 경험을 많이 해 봤지만 이렇게 내 자신이 한심하고 통계조사에 회의를 느껴 보긴 처음이었다. 말이 공무원이지~대부분의 여직원은 하지 않는 업무를 시작함에 소외감도 자존심도 상했다. 기운이 빠져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옥~하고 뭔가가 밀려오는 초심의 도전의식이 생겼다. ‘내가 지금까지 적응하지 못한 통계조사가 있었나..’ 훌훌 털고 다른 가축 농가를 조사하고 소땀을 주러 오신다는 주변 분의 조언으로 차갑게 전화통화 했던 아버님 댁에서 무작정 기다렸다.

온 몸엔 젓소 향기가 물씬 베어 있고 난...추녀스타일로 변신해야 했다. ‘아~이렇게 적응하는구나..’하고 씩씩한 웃음이 나도 모르게 띄웠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 멀리서 험악한 인상을 하신 가축농가 아버님께서 다가오셨다. 겁도 나고 대응할 방법도 생각나지 않아 살며시 반가움의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은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는 속담처럼 살짝 고개를 숙이듯 인사하시며 “아직도 마리수를 세고 있소?” 라며 황당하다는 표정과 조금 안쓰럽다는 말투로 “지금은 소땀 줘야하니 내일 다시 오쇼.. 같이 마리 수 셉시다.” 다소 누그러진 아버님 말씀에 반가워 내일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

다시 젓소향기와 시름할 생각을 하니 걱정은 됐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다음날 험악한 아버님과 젓소를 셀 차림으로 방문하니 아버님께서서는 여직원 이 이 험한 가축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뭐 얼마나 꼼꼼히 조사하겠어”하고 뼈딴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차갑게 대하셨지만 추운날씨에 기다리고 있는 열정과 조사를 잘 해보겠다는 모습을 보고 젓소 밥을 주면서 230마리가 넘는 젓소를 꼼꼼히 구간별로 메모 해 놓으셨다며 살며시 내 앞에 내미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통계조사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인간적인 면이 통하면 통계는 정확한 수치가 되는 것이다. 그 날의 일을 어찌 잊을 수 있으리...

기억의 습작 two

또 하나의 잊지 못할 논벼 생산량조사의 값진 경험이 뇌리를 스친다. 9.15 논벼예상량조사는 업무특성상 팀으로 담당하게 된다. 논벼라 하면 거리를 지나가며 들판에 곡식 익어가는 모습만 봤지 아는 바가 없었다. 농촌에서 생활해도 눈에 들어가 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저질 체질인 관계로 함께하는 팀원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는 마음에 긴장도 하고 만만의 준비, 각오를 단단히 했다.

이슬내린 새벽길을 달려 몸을 맡겼다. 함께 한 팀원들은 뒤쳐지는 여직원 챙기랴, 논벼 예상량조사하랴, 속도를 내지 못했다. 나 또한 피해주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베테랑 선배님을 따라 다녔다.

가을하늘 햇살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사우디아라비아 여인처럼 무장을 하고 들판을 나섰다.

하지만, 따가운 햇볕에 얼굴, 피부는 붉게 타고 죽음의 수렁 논인 경우는 푹푹 다리가 빠지는데 온 몸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몸살이 났다. 응답자와의 면접 어려움은 전혀 없지만 독심 하나로 버티는 내 체력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이틀 동안의 예상량조사는 나에겐 감당하기 힘든 9.15사태였던 것이다. 고된

긴장감으로 응급실 신세도 졌지만 함께한 팀원들의 도움으로 무난히 생산량 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솔로몬이 남긴 「이 또한 지나가리라(This will also pass)」는 명언이 그때부터 매순간 부딪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 스스로를 되새기는 힘이 되었다.

무슨 일이든 처음이 두렵고 어렵다고 하듯이 지난 가을 처음 경험한 논벼생산량조사도 나에게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줬지만 지나고 생각해보니 나에게 반전을 주듯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더라도 척척 해 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었다.

올해 태풍은 강도가 높아 농어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많은 아픔을 남기지 않았나 싶다. 그로 인해 9.15 논벼예상량조사를 하는데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남겨본다.

이렇게 현장조사 환경은 열악하고 힘든 업무이다. 하지만 통계의 정확성이란 목표아래 보람을 찾고 열심히 임하고 있다.

통계조사에 열정을 다하는 우리 통계맨! 「이 또한 지나가리라~~」

2012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응답자 부문



내 사업에 솔직해지자!

특별상

한양호 | 경기도 안성시



2012년 9월 1일이 통계의 날이라고 축산통계에 성의 있게 답변해주었다며 내게 상을 준다가에 많이 어색한 마음과 몸을 이끌고 시상식장을 향하여 서울에 입성하였다. 그리 더웠던 한여름의 무더위가 무색할 만큼 그날은 통계의 날을 축하라도 하는 듯 왜 그리 하늘이 맑고 파랗고 높던지...

2008년 04월 경인지방통계청 평택사무소 직원과의 첫 만남은 조사답례품 2만원에서 시작되었다. 방문하는 직원은 일계부인지 보조조사표 인지를 가지고 찾아와 기록을 해주면 매월 2만원씩 농협상품권을 주겠다고 하며, 우리축사에 사용되는 금전출납부를 적으라고 하는데, 정말 귀찮은 노릇이었다.

말이 그렇지 이날까지 매일같이 무엇을 적어본적도 없을 뿐더러 규칙적으로 적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였다.

부모님께서 경기도 화성에서 축산업을 하시다가 안성으로 이사 오신 후 고령으로 축산업에서 손을 놓으시고 내가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 한지도 얼마 되지 않아 일머리를 몰라 어색한데, 거기다가 이런 저런 일까지 하고 싶은 마음

이 전혀 없기에 절대 해줄 수 없다며, 직원에게 면박을 주었다.

직원은 내 집 드나들 듯 시도 때도 없이 일주일에 두어 번씩 찾아오며, 음료수며 박카스며 사다주고, 내가 없을 때에는 부모님과도 대화를 나누다가 가는지 부모님께서 “웬만하면 해주지 저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냐며 저리 찾아오게 하느냐”고 하시며 오히려 내게 핀잔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도 절대 일계부인지 보조 조사표인지 쓰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았다.

하루는 통계청 직원이 소 밥주는 시간에 찾아와 밥주는 걸 같이 거들며 보고 있더니 다 끝났는데도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찾아온 여직원은 나이도 제법 있어 보이고 퇴근시간도 지난 듯 보여 좀 미안한 생각이 들기에, “자꾸 오지마세요. 안 해드릴 겁니다. 다른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하니까 “인사만 드리러 올 테니까 오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마세요.”라고 하는데 마음이 흔들렸다. 이후 수시로 찾아오는 통계청 직원을 쫓아내고 피해도 보았지만 이미 흔들린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직원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통계청과의 인연이 어언 5년이나 흘렀고, 내 사업에 이렇게 많은 변화와 도움을 주고 도전을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다. 지금은 오히려 그때 끈질기게 찾아와준 통계청 직원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내가 하는 일에 솔직해졌다는 점과 사업성과에 대한 결과를 남보다 빨리 받아들이며 새로운 목표를 위해 도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변화 1. 사료원가를 줄여 사육두수 늘리기

2012년 5월31일은 7년간 거래해온 P사 사료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청산하고 S사 사료업체를 새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유는 두당 사육비를 40만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8월 현재 사육두수를 30두 이상 늘릴 수 있었으며 8

월 사료량(57톤)과 사료비(큰소 벌크기준 P사 589원과 S사517원)를 비교한 결과 사료비 또한 연간 4백10만4천2백원을 줄일 수가 있었다. 다 조사에 응하면서 자료를 모아둔 덕이 아닌가!

변화 2.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챙기기

농축산물생산비 조사표를 기록하면서부터 생긴 습관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얻은 작은 금전적인 이익은 부가세 환급이며, 또한 금전기록이 확실히 남아 물건의 재 구매 시 상품비교에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다.

사례로 매년 벗짚 구매 시 전년도 운반비와 벗짚 값을 제시 단가책정에 기준을 삼고 있으며, 톱밥 구매 시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서로 생길지 모르는 입고차수의 오류를 없애고 있다.

변화 3. 부대비용을 줄이자

사람도 몸에 좋다하면 주머니 생각 안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 또한 등급에 좋고 체중에 도움이 된다면 성분이 겹치는 줄 모르고 다량 구매하여 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부대비용 항목을 세부적으로 구성하고 금액을 산정하여 급여하다보니 정량급여 및 소량 구매하여 물품의 재고 및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월 경영비 감소 사례로

- 1) 첨가제 및 블록은 두당 20개월 사육기준 8만원,
- 2) 톱밥 - 15만원,
- 3) 전기세 및 기타 - 7만원,
- 4) 사료 - 400,000원 (1톤×400원) 등등

변화 4. 내 사업에 솔직해지자

축산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육규모 및 출하정산내역 또는 부채 내역 이

런 것들에 솔직하지 못하다.

나 또한 조사표 작성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많이 적지도 않았고 어떤 때는 정확하지 않은 숫자들을 기록하곤 했다. 하지만 내 사업에 솔직 하자는 마음가짐을 갖고 기록을 하다 보니 내 목장의 현실을 보게 되었다.

일간지나 축산신문에 나는 축산의 현실을 그냥 무덤덤한 숫자로만 보다 내 목장의 운영 실태를 매달 점검하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통계청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동안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축산인들이 성실히 응답해 정확한 통계자료가 생산되고, 이 자료들이 축산정책에 올바르게 반영이 된다면 축산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먹구구와 전자가계부

특별상

김광남 | 강원도 원주시



잔설殘雪이 봄바람을 부르는 어느 날. 작은 딸애 같이 얼굴이 가름한 여인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첫인상이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처럼, 허물없이 곁을 주고 싶은 분이었는데 통계청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벌써 3년 전의 이야기다.

인구조사를 하려나 아니면 재산을 조사할 건가, 그도 아니면 우리 집을 통계에 참고로 쓰려나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맞아들였다.

통계청 조사원은 우리 집을 한 주일에 한두 번은 방문을 하여 구순이신 우리 어머니부터 손녀까지 한 집 식구처럼 대하였다.

처음에 원주시 단구동 통계청 조사구에서 우리집을 지목하고, 허락을 구하였을 때 가계부를 열심히 쓰라는 계몽 정도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내가 컴퓨터도 할 줄 안다며 전자가계부 표본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선뜻 내키지는 않았다.

남에게 넉넉지 않은 빈 주머니를 뒤집어 보이는 것처럼 내 경제 속사정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 쑥스러웠다. 젊어서 아내가 가게부를 써보기는 했다. 하지만 매월 수입에 비해 써야 할 돈이 많다보니 늘 적자 살림이었다. 재미가 없어 서인지 슬그머니 가게부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전인소 조사원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 없이 살지만 합리적인 경제생활의 기초가 바로 가게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였다. 사실 이 통계청의 통계업무는 사회경제와 가정경제 국가운영의 기본 자료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그곳에서 조사원을 동마다 파견해서 동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여럿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 기관에 소속된 조사요원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전인소 조사원은 우리 집에서 '통계청이모'로 통한다. 이분은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을 사다가 내 외손주에게 안기고, 귀여워해 주어서 자연히 '통계청이모'라 부르게 되었다. 집사람과도 허물없는 사이가 되어 살림살이에서부터, 가정사까지 시시콜콜 이야기가 오고 간다. 심지어 시부모님을 모시는 어려움에서부터 홍보는 일까지.....

“우리 어머니는 잘 드시던 된장찌개도 마다시고, 파김치만 드신다니.”

“말도 말아요. 노인네 식성이 자꾸 변해서 골 아파요.”

친 동기간도 이보다 더 친밀할 수는 없다.

이분이 담당하고 있는 단구동의 통계청 조사구에서,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고층을 털어놓으며 집사람과 여러 방안도 의논하였다. 같은 이웃에 살아도 우리도 모르는 동네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 수 있는 뉴스통이기도 하다. 마을 구석 구석을 누비며 걱정을 나누고 관심을 갖는 '동네도우미'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계청 전자가계부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가게부를 작성하는

동민들을 위해 통계에 관한 교육이 있었다. 그날 교육에서 통계에 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또 시청각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통계가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자세히 알았다. 국가의 정책방향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단서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의 가게가 통계청 전자가계부를 통해 전산화하면서부터 전에는 물건이나 찬거리를 현금 주고 그냥 구입하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이제는 으레 영수증을 떼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였다.

처음 두세 달을 전자가계부로 수입과 지출을 전산화 해 보니, 가정경제의 전체적인 소비경향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었다. 소비의 흐름의 편중을 재고하고, 절약해야 할 것과 꼭 필요한 쓰임에 대해 더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가정경제의 소비를 어떻게 해야 짜임새 있고, 질 높은 가게운영이 될까를 고심하게 된다.

어쩌다 재래시장에 가서 농산물을 사 올 때는 영수증을 떼 수 없어서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어느새 물건 구입에는 영수증이 필수라는 인식의 변화가 왔다. 하지만 난전에 앞서서 ‘보자기가게’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들에게 용돈을 보태는 일에 일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일삼아 조그만 산밭을 얻어 푸성귀랑 고구마랑 고추를 심어 적잖게 수확을 한다. 가게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전자가계부에 생산물 수입을 잡으니 내가 생산한 물건들이라 그런지, 가게부에서 정확한 수치로 살아나 쏠쏠하게 보탬이 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전인소 조사원은 3년여를 한 식구처럼 우리 집엔 드나들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조사담당구역이 바뀌었다고 이별을 고했다. 이제는 우리 집에 올 일도 없다고 생각하니 서운했다. 옛정은 변치 말자고 다른 동네 담당이라도 가끔은 들러 달라고 집사람은 당부를 하였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손녀 수영이가

“통계청이모 왜 오지 않아”

“응, 다른 곳에서 일하고 가끔 오실거야.”

“통계청이모 보구싶다.”

친이모이거나 하듯 통계청 이모를 기다린다.

지금은 박군자 조사원이 우리 단구동 조사 구역담당이라 일주일에 한두 번 오셔서 친절하게 지도해주시고 카카오톡으로 문자도 넣어주신다. 우리집 대문을 넘나드는 횡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 분과도 정이 깊어질 것이 틀림이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통계청전자가계부를 사용하고부터 이웃의 정도 살가워지고, 우리집 가계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고맙기만 하다.

“가계부를 쓰면서 얻게 된 행복”

특별상

이형님 | 전라북도 부안군



유래없는 폭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전국을 초토화시킨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의 나약함과 농·어민의 시름이 더욱더 깊어가지만 어김없이 자연은 또 다른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선물하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와 산이 어우러지는 조그마한 어촌지역에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어부입니다.

우리 동네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바다가 가까운 지역이라 시간만 있으면 마음대로 바다에 나가 맨손으로 백합, 가무락(검정조개), 바지락 등을 잡아 생활에 큰 도움을 받으며 바다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만금 사업으로 주변의 바다가 육지로 변하여 이제는 맨손 어업을 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려 지금은 변산, 격포, 고창까지 가서 어렵게 어업을 하며 조그마한 수입을 가게에 보태면서 그럭저럭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년 겨울이었습니다. 통계청에서 나왔다면 어가경제조사를 하여야 하니 조사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업활동이 힘들어지게 되어 정부에 불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두어 번인가 협조 안한다고 통명스럽게 얘기하며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마다 통계청 직원은 공손하게 “다음에 찾아뵙게요”하고 인사를 하길래 찾아오는 것이 귀찮으니 제발 오지마라고 심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다시 찾아와 친절하게 어가경제조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협조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내용을 듣고 난 후 남편은 우리가정 생활의 비밀이 전부 노출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였지요. 그래도 저는 조사원의 진심어린 노력과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믿음을 갖고 조사에 응하자고 남편을 설득하여 우리 가정이 어가경제조사 대상가구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스운 일인데요, 그렇게 반대하던 남편이 지금은 저보다 더 꼼꼼히 챙기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가 가계부를 쓰기 전에는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가계경제의 수입, 지출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생활 하였는데, 지금은 남편과 들어서 기록을 하니 가정생활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게 되고 가계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무슨 일이든 남편과 의논하게 되어 부부 관계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응답자 간담회에도 초청하여 맛있는 점心和 좋은 선물까지도 주시어 너무 고마웠고, 또한 통계청에서 우리가 기록한 가계부가 어떻게 쓰이는지 내용도 잘 알게 되어 어가 경제조사 가계부를 작성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간담회가 또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항상 일주일에 한번 씩 찾아오는 친절하고 이제는 형제 같은 끈끈한 정이 묻어나오고 있으며 오는 길에 간단한 생활도구와 찬거리를 사올 것을 부탁할 정도로 단조로운 시골생활에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해주어 방문하기를 기

다려지곤 합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이고 무관심한 생각으로 뭘 이런 걸 하나며 귀찮게 생각했지만 통계청 어가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우리 가정의 잘못된 씬씀이를 줄이고 미래를 예측하여 가계 생활을 하다 보니 가계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일기장에 어가 가계부를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계기를 주어 정말 고마운데 매일 상품권을 주시어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어 보람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통계청에 무한한 신뢰를 갖고 조금이나마 힘닿는 데 까지 진심으로 많은 협조를 하여 우리 마을과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하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는 더 많은 좋은 내용과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글 솜씨와 표현력이 부족해 두서없이 써봤습니다.

앞으로도 어가경제 가계부를 잘 작성하여 우리나라 어업 발전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고, 어가경제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정든 분들과 오래도록 함께 같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배우는 시간

특별상

김춘희 | 경상남도 창원시



절약하지 않으면 가득 차 있어도 반드시 고갈되고, 절약하면 텅 비어 있어도 언젠가는 차게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따라 소유와 소비 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존재지향적인 생활태도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다.

어느 날 통계청 직원이 가정방문을 와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라면서 통계자료용으로 가계부 쓰기 협조요청을 했다.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가계부를 쓴다는 게 내키지 않아 거절하는 집이 많은 건 당연한 거였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성가신 일을 왜 하나, 게다가 평소에 숫자하고는 친하지도 않는데 생각할 여유 없이 단박에 거절을 했다. 그러나 통계청 직원의 의미 있는 한마디에 수락을 하고 말았다. “나라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일이니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내게 진정성으로 코옥 박혔다.

그렇게 시작된 일은 양곡가계부 따로 전자가계부 따로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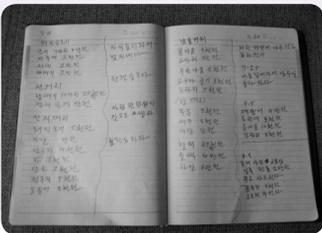
양곡가계부는 양곡 소비량과 재고량을 기입하고, 밥 할 때마다 쌀과 잡곡 양을 저울에 달아 기입하고, 식구들마다 외식과 결식횟수며 외식 뎀 뭘 먹었는지 등등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전자가계부는 일자별 수입과 지출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기입을 해야만 했다.

아,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나, 날마다 영수증 모아 밤이면 이것저것 맞춰 기입하면서 툄툄거리며 생각할수록 후회막급이었다. 달갑지 않은 일이었으니 월마감 할 때는 내 자신에게 만족스럽지가 않고 조사원한테 미안함마저 가득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집에 갔다가 장롱 속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지갑을 발견했다. 빛바랜 수첩을 살펴보니 영성한 바늘땀이 아버지의 노곤했던 삶처럼 박혀있었다.

아버지 숨결을 느끼며 자주빛 울음으로 살며시 열어보니 손길에 닳고 닳아 실밥이 터진 가장자리선이 보였고 때 묻은 통장들이 언제부터 그 자리를 지켰는지 모를 습함으로 벋단처럼 세워져있었다. 농기계 대출통장과 만기된 적금통장 그리고 엄마와 막내동생 앞으로 된 예금통장들... 깊이 파인 늙은 주름처럼 접혀 있는 누런 메모지에는 통장에 관한 이력들을 빼곡하게 적어 놓으셨다. 바로 아버지식의 가계부였던 것이다.

날마다 만기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셨을 아버지, 아끼고 또 아끼는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는 은행에서 공짜로 얻은 지갑마저 낡아서 못 쓰게 될 때까지 기워쓰셨던 것이다.



그러던 내 아버지는 근검절약하는 정신으로 오직 자식들 위해 쓰시다가 어느 날 사고로 황망하게 떠나시고 말았다. 살면서 아버지의 철저한 계획성과 절약정신은 죽비가 되어 나를 일깨워 주었다.

엄마한테 요즘 가계부 쓰는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 아프다는 등 괜히 고생을 사서 한다는 등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엄마는 가계부 안 써봐서 모르실거라 했더니 거실 한쪽에 놓인 탁자 아래서 무언가를 꺼내셨다. 청색 옷이 입혀진 오래된 공책이었다. 겉표지를 소매 끝으로 먼지를 쓱쓱 밀어내시며 속스러운 듯 받침이 다 틀렸을 거라며 옷지 말고 보라고 내미셨다.

호기심에 얼른 받아서 몽텅 넘겨 본 지면에 서툴지만 진지한 엄마의 글씨가 보였다. 아버지 제사장 보기내역과 가운데 선을 질러 메모 형식의 글 몇 줄이 있었다. 형식이 갖춰진 것은 아니지만 엄마만의 가계부였던 것이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그리움으로 사신 엄마는 눌러 써 연필이 받은 무게처럼 삶의 무게도 무거웠으리라는 생각에 또 한 번 시큰거렸다. 왜 이렇게 써 놓았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쓸 것을 제대로 쓰임새 있게 썼는가, 불필요한 것을 사진 않았는가를 반성하고, 잘못 된 것을 반복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다. 나는 좀 전에 늘어놓았던 푸념이 부끄러움이 되어 나를 에워싸는 듯 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계획성 있는 소비 지출과 근검절약정신을 가계부 쓰기를 통해 재인식하고 생활화해야겠다는 다짐 하나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의 가계부를 보았다. 아버지의 낡은 지갑과 엄마의 어눌한 가계부는 내가 가계부를 써야하는 이유가 되었다.

사고의 전환은 긍정의 힘이라고 했던가, 긍정적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면에 기대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장보기 하면서 품명과 용도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영수증은 거스름돈처럼 챙겼다. 친절한 조사원과의 약속을 대충 건성으로 할 수 없어 요구하는 대로 임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바꿨다. 월 마감을 하는 날엔 내 나름의 통계를 내서 털 써야할 것과 아껴야 할 것들을 구분하여 다음 달 생활비 계획 세울 때 참고를 하였다. 그리고 전자가계부 하단부에 있는 오늘의 일정이란 기입란에 그날의 소비에 대한 반성과 다짐을 메모형식으로 남겨 근검절약 정신을 몸에 배이게 했다. 뿐만 아니라 사례금을 받아 기부금

으로 전환하여 어려운 이웃에 쓰이도록 했다.

가계부를 쓴다는 건 크게 보아 경제관념을 확실하게 배워서 알뜰한 가정경제는 곧 나라경제로 이어지니 애국하는 일이고, 합리적인 경제생활로 가정에 보탬이 되니 주부로서 인정받고 자부심 갖는 일이고, 사례금으로 아름다운 기부를 하니 더불어 가는 세상 함께 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 되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인 것이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계부는 이제 나의 일부가 되었고 나를 배우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또한 날마다 감사의 달란트가 되었다.

얼마 전 조사원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동안 협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통계청장상을 주는데 나를 추천했다고 했다. 당장 부끄러워 손사래를 쳤다. 나는 그럴 자격 없는 사람이니 사양하겠다고 했다. 나보다 더 성실하게 임한 사람이 많을 텐데 오히려 변화된 내가 감사할 따름인데 상까지 주겠다니 안 될 말이였다. 하지만 결국 나는 상을 받았다. 상은 나의 자부심이 되었다. 절약하면 텅 비어 있어도 언젠간 차게 된다는 그 말을 신뢰하며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오늘 우편함에 새 양곡가계부가 꽂혔다. 가계부를 보면서 가치있는 일을 하며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리라 다짐해 본다.

통계청이 깨닫게 해 준 가계부!! 재테크의 시작

특별상

장기갑 | 충청북도 청주시



결혼한 지 20여년!

“집안 살림은 주부하기 나름이다.” 생각하며 결혼 초 몇 년은 열심히 가계부를 기록하였다. 가계부를 기록하다 보니 고정적인 수입에 지출만 늘어나 월말에는 적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점점 짜증이 늘어가게 되었다. 적자가 반복되면서 가계부 기록에 소홀해지기 일쑤였다. 그래도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로 올해는 꾸준히 써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늘어가는 적자를 보면서 결국 포기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가계부 기록을 멈춘 지 10여년이 지났다.

요즘 서점이나 방송 매체를 보면 ‘10년 내에 10억 버는 법’,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 ‘주식투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등 재테크 관련 내용이 넘쳐나고 있다. 그간 나는 재테크 하면 투자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세 자녀와 먹고 살기도 벅찬 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재테크는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였다.

그런데 재테크는 가계부를 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계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다. 나는 물건을 살 때 현금 보다는 주로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나에게 어느 날 남편이 카드사용 내역을 보여 주면서 카드 사용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말에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데도 그렇게 들어간다면 사용내역을 기록하여 보여주겠다고 하며 얼마 전에 바꾼 스마트폰에 있는 가계부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기록하게 되었다.

스마트폰에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난 후 살고 있는 빌라의 우편함에 통계청의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우리 빌라는 8가구가 있는 작은 빌라인데 모든 가구가 표본으로 선정되어 가계부를 쓰게 되었다는 안내문이었다.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가계부를 쓰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으리라는 생각에 통계청직원을 피해 다녔다. 표본조사라고는 하지만 일반인들의 생활에 쉽게 와 닿는 단어도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일상을 들여다본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연말까지 가계부를 써본 적이 없어서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자신감이 없기도 했다. 자꾸만 피해 다니는 동안 통계청 직원의 잦은 방문과 메모가 이어지고 무엇인가 중요한 일에 “내가 도망만 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 직원과 약속을 다시 잡았다.

며칠 후 통계청의 조사관님이 전화 안내를 해주신 후 방문하셨다. 솔직한 나의 심정을 들은 직원은 “개인의 비밀은 통계법 규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과 우리 가정의 가계부가 나를 위한 것뿐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계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답례품까지 가지고 방문하여 가계조사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자가계부 기입시 사례금도 주신다고 하니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기도 했다.

통계청이 이런 개인 가계부로 조사도 한다는 사실을 통계청 가계부를 쓰면서 알게 되었고, 개인 가계부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살림을 책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통계청의 조사관님을 보면 항상 친절함과 투철한 직업의식이 느껴진다. 언제나 전화 안내를 해주신 후 답례품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친절하게 설명하여 주셨고 현재는 전자가계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설치하고 전자 가계부로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이 이런 개인 가계부로 조사도 한다는 사실을 통계청 가계부를 쓰면서 알게 되었고, 개인 가계부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살림을 책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자긍심이 느껴진다.

적응하기는 어려웠지만 나에게 작은 생활의 변화가 생겼다. 가계부를 쓰게 되면서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긴다’. 전에도 영수증을 챙기기는 하였으나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요즘은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게 되고 영수증이 없는 것은 스마트폰에 기록하였다가 가계부에 옮겨 적는다.

통계청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지 이제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계부를 쓰게 되면서 우리집의 지출 내역을 파악하고 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다.

가계부를 쓰지 않았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가계부를 쓰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낭비를 줄이고 계획적인 지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월 가계부와 금월 가계부를 비교해 보면서 충동구매와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요즘 나의 재테크는 가계부를 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물론 가계부가 수입을 창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계부는 우리 가정의 수입에 맞게 적절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의 가계지출을 예상하고 더 절약할 수 있게 해주고, 과소비를 억제하여 재테크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계부를 쓰면서 지금까지 무계획적으로 생활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계획성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해 주고 싶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활의 지침서가 많겠지만 가계부 또한 우리 생활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지침서일 것이다. 전자 가계부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월 마감 때 모르고 기록하지 않은 것들은 자동으로 지적을 해주니 가계부 작성이 용이하게 되었다.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가계부 작성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내 손에서 우리 집 살림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수입에 대한 소비를 조절하여 과소비를 막을 수 있었고 아이들 사교육비 및 생활비로 인한 재정 적자도 줄일 수가 있었다.

열심히 정확히 가계부를 적다보면 우리 집 가계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 우리나라의 통계조사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통계청 가계부를 쓰면서 무계획적으로 생활을 하는 주위의 가계부 작성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계부를 작성하라고 추천해 주고 싶다.

돌이켜보면, 조금은 어렵고 부담스럽고 불편스럽게도 시작되어졌던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작지만 기여하였다는 자부심과 개인적으로는 저축과 여자로서의 당당함을 찾아준 통계청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2012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따뜻한 세상을 향한 발걸음

발행 : 2012년 12월

발행인 : 통계청장 우기종

편집인 : 조사관리국장 강창익

발행처 : 통계청

발간에 참여한 사람들 : 김남훈, 이민경, 손동현

기획 진행 및 디자인 : 예원인쇄기획(042-623-6200)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우)302-701

전화 : 042)481-3711

홈페이지 : <http://kostat.go.kr>



따뜻한 세상을
향한 발걸음

